

PRSR STD
U.S. Postage
PAID
Elk Grove VLG. IL
Permit #1320



美 京 大 同 窓 會 報

서로 돕고 사랑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들

재미서울대학교총동창회
사무국 및 편집국
790 Busse R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usa@snuaa.org
website : http://www.snuaa.org

발행인 : 李龍洛
편집위원회 총무 : 具環會
편집인 : 金正守

母校 신입생 地域割當制案에 同門들 강력 반대 뉴욕의 원로동문들 필요시 정총장 퇴진 운동도 불사

한국의 最高대학을 世界水準의 고등교육 기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가는 국내의 동문들의 하나같은 열망이나, 쾌도난마(快刀亂麻)와 같은 해결방안은 쉽지 않다. 촉망되던 經濟學者로부터 高等教育 行政家로 교수들의 정치적인 선거과정을 통하여 취임한 母校의 23대 鄭雲燦(상대 70년졸) 총장의 새로운 교육정책으로부터 母校의 발전과 현재 洞空現象을 빚고 있는 한국의 교육정책 전반에 큰 활력소가 나오기를 많은 동문들이 기대하고 있다.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동문 약 50명으로 구성된 골든 클럽(회장 정택수) 회원들은 서울대 신입 정운찬 총장이 지난 8월 13일에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위 입시 지역할당제 도입에 대하여 하나같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정총장은 자신의 현임기가 끝나는 2007학년도 전에 입시지역 할당제 즉 신입생을 전라도에서 몇 명, 제주도에서 몇 명씩 할당하는 지역 쿼터제를 실시하여 서울대 신입생을 선발하겠다고 밝힘으로써 한국의 모든 매스컴은 大書特筆하여 보도한 바 있다. 그는 "하바드대 등 미국의 명문대들도 사회적 약자의 배려와 대학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지역이나 인종, 계층별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특히 서울대 같은 국립대에선 지방 학생들을 배려하는 지역할당제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정총장의 주장에 대하여 임석태 동문(법대 52년졸)은 "정총장이 미국의 제도와 문화를 몰라도 많이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의 명문대학들이 신입생들을 지역이나 인종에 입각하여 선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고 정총장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미국과 한국이 어떻게 같으며 (미국의 면적은 남한의 약 86배이고 인구는 약 6배이다) 서울대를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서울대는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 한국 제일의 대학이지만 하버드는 미국의 명문대학들 중의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한 학생이 하바드, MIT, 프린스턴, 스탠포드, 컬럼비아 등에 합격이 되었지만 자기 전공분야와 장학금 혜택 등을 고려하여 컬럼비아대를 택하는 경우가 있지만 만약 한국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이 어느 지방대나 또는 서울대가 아닌 다른 대학을 선택하여 입학한다면 그런 경우는 만의 하나나 있는 희귀한 현상이다. 서울대를 미국의 한 주립대에 비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미국의 어느 주립대학이 지역 할당제에 입각하여, 즉 어느 카운티에서 몇 명씩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다."고 임동문은 정총장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정사열동문(법대 55년졸)은 "정총장이 제창한 소위 서울대 입시 지역할당제는 자유경쟁사회의 이념에 배치될 뿐 더러 이치에 맞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서울대를 망치려는 제도이다. 만약 그가 입시지

역 할당제를 고집할 경우 미주에 사는 모든 서울대 동문들은 쫓겨가야 하며 그를 총장직에서 퇴진시키는 운동을 벌려야 하며 뉴욕동창회가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택수 골든 클럽회장(문리대 50년졸)은 "정총장이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서울에 있는 총동창회를 비롯하여 세계 각 곳에 있는 모든 동창회가 한 목소리로 정총장의 소위 입시지역 할당제안을 적극 반대하여 포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이어 지역할당제가 한국현실에 맞는 방법이라고 정총장이 본다면 차라리 "성씨 별로 쿼터를 정하여 김씨 성을 가진 지방생에서 몇 명, 이씨에서 몇 명, 박씨에서 몇 명, 정씨에서 몇 명 이러한 방법으로 서울대 신입생을 뽑으면 정총장의 지역 할당제 보다 더 균등하고 합리적인 것 같다"고 정총장의 소위 새로운 안을 비교하였다.

"학교를 평가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즉 학생, 교수진, 시설, 그리고 전통과 동문들의 사회 기여도를 들 수 있다. 서울대는 무엇보다도 좋은 학생과 훌륭한 전통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의 대학으로 자리 잡아왔다. 만약 정총장의 제안대로 지역할당제를 실시한다면 한국의 큰 고질인 지역주의를 교육에까지 공식 제도화하는 것이며 만약 제주도나 강원도에 살면 서울대에 입학하기가 수월하다는 것이 판명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방으로 얼마 동안 이사하여 거주할 것이 분명하다. 정총장의 아이디어는 결국 서울대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결과 서울대 출신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서울대 동창회는 母校의 그릇된 방향으로의 진입을 막을 의무가 있다. "고 한창섭(문리대 62년졸) 전 뉴욕지구 동창회장은 정총장의 입시지역 할당제 도입에 대하여 그의 소견을 밝혔다.

<2면에 계속>

오하이오 지역동창회 발족준비 120여명의 동문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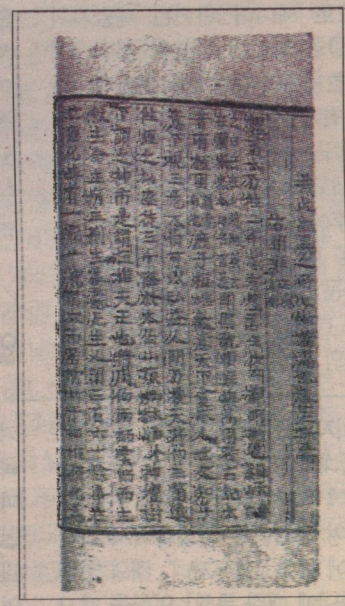
지난해부터 오하이오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간에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오하이오 지부창설을 준비해왔는데, 최근 崔仁甲 동문(공대 57입)은 그간의 동창회 발족준비 상황을 알렸다. 崔 동문에 의하면 현재까지 오하이오주 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 가운데 120여명의 병단이 확인되었으며(공대 30명, 의대 40명, 문리대 20명, 약대 10명, 사범대 10명, 상대 10명),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부창립 총회를 개최할 예

정으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6명의 동문들이 각 단과대학을 대표하여 오하이오지부 창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바 수고하고 있는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최인갑(공대 57년입), 이장섭(의대 52년입), 장은숙(문리대 53년입), 김옥자(약대 62년입), 김성자(사대 59년입), 이성우(상대 72년입)

(연락처: 최인갑 동문(614-447-3600, ext. 3225))



新天地와 弘益人間 사진설명 3면참조



목 차

제 1부 : 총동창회 소식
제 2부 : 문필과 논고 - 3면
제 3부 : 동문 및 지역동창회 소식 - 18면

동창회보 재정자립을 위한 기여금 답지 시카고 지역동창회 4000불 出捐

母校를 고양하는 견인차의 일을 담당하고 同門들의 발전을 성원하는 조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기간매체인 "재미서울대동창회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새 회계년도에도 동문들로부터 誠金(동창회보 구독료, 미주 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및 모교와 후진을 위한 기금)이 답지하고 있다.

재미서울대동창회보는 이번 호로 그 지령 104호를 기록하게 되며,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 나누고", "미주땅에서 개척자의 삶을 살고 있는 동문과 가족들의 소식을 나누는" 충실한 내용의 회보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동문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회보의 취재인력증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기반의 확대가 과제로 오래 전부터 숙원과제로 대두되어온 바 있다. 제 6대 집행부는 동문들의 성원으로 제 1차년도를 대과 없이 마치고, 제 2차년도를 맞이하여 동창회보 발간 외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중인 데 7000여 동문들을 연결하여 한국 最高 知性人들의 우정의 가교를 뒷받치는 재미동창회보의 발행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난 9월 5일자로 "회보구독료 납부서"를 4700여명의 동문(주소변동으로 해마다 확인된 배달지의 감소)들에게 발송한 바 있다. 이에 호응하여 동문들은 7월 1일자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전부터 새해구독료를 보내오고 (한 동문은 새회계년도 구독료가 60불인 줄 안 후에는 새 회계년도 시작 후 "殘金" 10불을 따로 보내왔다), 부부동문으로 확인된 가정에서는 회보를 한 부만 받고 있음에도 동문 內外의 2인분 구독료를 보내오시

거나, 또 어떤 동문들은 별다른 언급없이 인상된 구독료 외에 스스로 추가 성금을 보태어 보내오고 있다.

또한 작년도의 회보구독료 납부 인원이 1391명으로 (전년대비 189명 증가) 증가하였지만 그 수입금총액은 월간회보의 중단없는 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원의 절반에 불과한 사정을 이해하신 篤志家 동문들로부터는 금년도 미주관악 후원회 이사비 출연 요청서가 아직 발송되지 않았음에도 시카고 지역 동창회가 보내온 4000불을 시작으로 각자 형편에 따라 재미동창회보 발행 지원금을 성심으로 보내오고 있는데 10월 20일 현재까지 16명의 동문들(종신이사 1명 및 일반이사 16명-송순영, 엄무광, 구경희, 한재은, 이용락(종신이사회비 및 일반이사회비), 허윤행, 정유석, 정원훈, 김상순, 정정수, 제영혜, 강영국, 윤상래, 서동영, 전현일, 김항자)이 관악후원회비(종신이사회비)를 출연해왔다. 재미동창회보 편집진은 동문들의 성금을 간축 재정으로 최대한 절약하여 이를 알차고 격조있는 회보발행에 사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최고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의 고등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 재미동문들의 여망을 모으고자 하는 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에 새 회계년도에도 이용락, 정정수, 이소정, 변만식, 장병건, 조시호 동문들이 성금을 出捐해왔다.

<투고요청: 母校의 입시제도에 대한 논고>

<입시지역활동제 1면에서 계속>
"서울대의 입시제도는 완전한 자유경쟁에 의한 공정한 공개 시험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하며 어떠한 특혜에 의한 (교수자녀, 해외 거주자 자녀에 대한 특혜) 입학할 폐지시켜야 한다. 얼마 전에 김대중 대통령 의 손녀가 수시입학제도에 따라 서울대에 입학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서울대가 제대로 되려면 이러한 제도도 없어야 한다."고 한창섭 전회장은 덧붙였다.
在美 서울대 동창회보는 母校發展을 위한 뉴욕 동문들의 熱望이 깃들인 이 輿論을 지난 10월 17일자로 모교 총장실로 통지하고 11월 12일까지 모교로부터 앞으로 시행될 구체적인 입시정책 방안에 대한

기고문을 요청한 바 있다. 한국 교육제도 내에서의 母校의 위치와 해마다 變遷을 계속하는 教育部의 신입생 입학과 고등교육 전반에 관한 교육정책의 실행에 비추어 모교의 입시정책이 미치는 波長은 母校發展 뿐만 아니라 한국 교육의 百年之大計에 지대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깊이 있고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우리 同門들의 식견과 경험이 모교의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輿論을 실현시킬 시려깊은 비교, 분석이 뒷받침된 동문들의 玉稿를 재미 동창회보는 기다린다 (2002년 10월 10일자 접수).

재미동창회보 광고위원회 발족 동창회보 광고접수 시작 재미동창회보는 미국내의 손꼽는 월간지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행재원 부족분을 보전하고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새로운 사업기금의 확보"를 위하여 오래 전부터 구상되어 오던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광고위원회가 발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 광고위원회는 총동창회 상임임원들과 뜻있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광고위원회는 그 첫모임을 지난 9월 4일 오후 7시 재미 총동창회 본부 인근의 청기와 식당에서 갖고 (회장, 이윤모, 임이섭 및 강영국 동문과 회보 편집인이 참석), 참석자들의 호선에 의하여 姜永國 동문(수의대 67년입)을 광고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이 광고위원회는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와는 별도로 조직으로 운영하여 재미서울대 총동창회와 동창회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날 회의는 李 회장이 재미 동창회의 당면한 재정상태의 설명(전 회계년도에는 회보 구독료가

미주 관악후원회비를 간축예산으로 집행하여 간신히 균형예산을 이루었음)이 있었고, 金 회보편집인이 회보 편집과정을 통하여 느껴진 지역동창회와 일반동문들의 재미 동창회보의 광고확보 노력에 대한 전망의 설명이 있었는데, 金 동문은 많은 동문들이 "한국의秀才들로서 현재 종사하는 자신의 生業을 동창회보에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동창회보의 광고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매 달 5000여부가 인쇄되어 미주 전역 (Virgin Island와 해외 미군 주둔지까지 독자가 있음)과 캐나다 및 母國의 총동창회까지 배포되는 미주 내의 단일 지역에서 발행되는 월간 한글매체로는 글자의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재미동창회보이나 동창회보의 광고효과에 대한 홍보활동이 중요"하다는 관측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 참석자들간의 확보가능한 광고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미주 내의 대도시에는 광고대행업체를 경영하는 동문들로부터 광고주명단을 확보하고 광고대행업체들에게 동창회보의 광고효과에 대한 홍보를 전개할 것(임이섭 동문, 미대 59년졸)을 제안하였으며, 의대, 치대, 약대 동문들이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공급자, 각종 보험업체에 대한 접촉원을 동창회로 알려주고 매개자가 되어준다면 훌륭한 광고원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윤모 동문, 농대 61년졸)이라고 하였다.

이 날 광고위원장으로 선출된 姜 동문은 이날 토론을 바탕으로 광고계제 원칙을 작성하여 동창회보에 신고 (회보 103호 30면 참조) 시카고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능한 유료광고 확보를 시작하겠다고 하였다. 李 회장은 광고위원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면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동문들이 성심으로 출연하는 미주 관악후원회 이사회비는 별도로 적립하여 재미총동창회의 새로운 사업의 (장학기금확보 등) 추진자금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날 모임은 두시간동안 진지한 토론 후 散會하였다.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보발간을 가능하게 하신 美州冠岳後援會 理事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지난해 6월로 지령 100호를 기록한 재미동창회보의 중단없는 발간을 전체 동문 여러분들과 함께 자랑으로 생각하며, "구독료" 납부와는 관계없이 주소가 확인된 미주 전역과 캐나다 및 서울총동창회의 동문들에게 서울대 동창회보의 발간과 배포를 가능하게 뒷받침 한 美州冠岳 後援會 理事로 참여하신 아래의 동문들과 지역 동창회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알차고 격조있는 "재미서울대동창회보"의 발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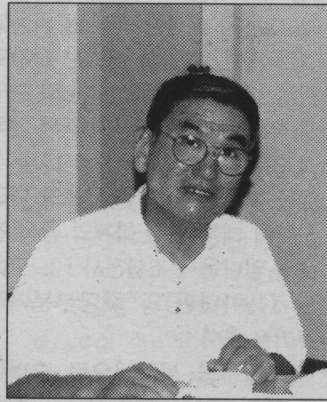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 이사명단(2001년 7월 1일-2002년 6월 30일까지)

- ◆일반이사◆
오길평, 정인환, 조만영, 서동영, 김성희 김동석, 이정광, 전희택, 이병준, 이명상, 한홍택, 김종표, 오재인, 심영춘, 김성복, 임낙균 (이상 남가주지역 동창회), 박성민, 김항자 (이상 샌디에고 지역동창회), 이재택, 이재원, 이문휘, 김용학, 최영태, 조대영, 김영덕, 이대영, 이명희, 이기형, 김상각, 이기영, 이운순, 한창섭, 이준행, 방준재, 오태희, 최수용, 김용재, 뉴욕약대동창회, 윤정옥, 노용면 (이상 뉴욕지구 동창회), 김현옥, 전현일, 박영규, 조중행, 구경희, 한재은, 송순영, 시카고 지역동창회, 최호승, 이정일, 장기남, 임춘수, 정승규, 조대현, 황치용, 최희수, 김병윤, 강영국, 최길용, 신석균, 소진문, 임근식, 임현재, 김기태, 최일주, 성흥환, 문병훈, 송재현, 김호범, 김정주, 조철원, 강창만, 노재욱, 지명식, 이기억, 강수상, 이용락, 시카고지역동문들 관악후원회 만찬 찬조금 (이상 시카고 지역동창회), 박윤수, 권철수, 진금섭, 전신애, 장효강, 신상균, 방은호, 이영복, 문성길, 변만식, 광홍, 주일 (이상 워싱턴DC 지역동창회), 김성렬 (이상 워싱턴주 지역동창회), 탁순덕, 김정훈, 조시호 (이상 휴스턴 지역동창회), 김옥균 (이상 달라스 지역동창회), 이창재, 김태환, 권승림, 김필주 (이상 미네소타 지역동창회), 김용건, 임수암, 김예순 (이상 조지아 지역동창회), 박성숙, 오덕겸 (이상 아리조나 지역동창회), 김성완 (이상 유타 지역동창회), 조충훈, 정태훈, 김상순, 나제관 (이상 오레곤 지역동창회), 정구영 (이상 플로리다 지역동문), 정정수, 이상봉, 현재원, 김현영, 이정필, 김세경 (이상 필라델피아 지역동창회), 변화경, 윤상래, 김인수, 정태진, 김영호, 김재호, 지역동창회, 이재신, 김순규 (이상 뉴잉글랜드 지역동창회), 김용환, 이상문, 류광현,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김호원 (이상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특별후원금-임광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장, 명태현 동문 및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11차 정기평의회회 순방단 일동, ◆종신이사◆강영민,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홍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진구, 정 태, 이정광, 전희택, 윤정옥, 한홍택, 조시호

한국이 先進國이 되려면?

-정신문화적 면에서

조시호 (문리대 59년 입학)



며칠전 Chicago에서 Biology 박사과정에 있는 우리딸이 부모가 보고 싶다고 일주일 휴가를 얻어 Houston으로 내려왔다. 오래간만에 딸과 골프를 치러 갔다. 18홀을 막 끝내고 휴게실에서 간식을 먹으며 딸이 나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Dad, 우리 학과에 한국에서 Post Doc을 하러온 DDS며 Ph.D 인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teaching 자리가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간데.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미국에 머무를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한국에도 미국에 있는 것이 다 있어서 별로 불편한 점을 못느껴서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했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나한테,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도 그 사람은 물질문명을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예를 들어, computer, 자동차, 호텔, 음식점 등등은 한국도 선진국에 못지

않게 다 가지고 있다." "그럼, 아빠는 미국과 한국이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해?" 나는 별안간 다가오는 딸의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마도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또 교육 면에서 각기 다른 시점(視點)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이야. 한국을 선진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물질문화를 두고서 하는 말일 것이다. 올바른 정신문화를 배경으로 하지 않은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은 항상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한국의 정치체도는 아직도 미국의 정치체도와 맞설려면 시간이 무척 더 걸려야 될 것 같다. 권력을 갖기 위하여 또 권력을 갖고 난 후에 일어나는 부정부패 현상을 보면 아직도 선진국이 되려면 멀었고, 또 경제제도면에서도 財力이 權力과 손을 마주잡고 온갖 부정을 행하고 있다. 한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따를려면 아직도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다. 몇년전 내가 얘기해준 한국의 IMF경제위기를

기억하나? 또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서로 잘 균형을 맞추고 화합을 이루어야 사회문제가 적어진단다. 또 교육면에서도 그렇다. 그 사람이 여기 미국에 와서 5년간 교육을 받듯이, 만일, 한국의 교육제도, 연구분야 및 시설이 미국과 같으면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연수할 필요가 없었을 터이지." 이 말을 듣던 내 딸이 그제서야 "아빠 말이 논리적인 것 같아 믿기로 했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딸이 운전을 하는 동안 나는 혼자서 지긋이 눈을 감고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으로 돌아간다. 동송동 문리대 앞길과 교정은 마로니에 잎들이 봄바람에 팔랑거리고, 우리들은 이런 학창시절의 젊음을 만끽하려고 풀밭에 동그러니 둘러앉아서 서로들 여러 가지 분야로 화제를

돌리며 이야기를 나누곤 하였다. 동송동은 문리대뿐만 아니라 의대, 법대, 미대, 음대가 있었고, 또 옛날부터 서울大學校 본부가 있었을 뿐 아니라 서울 시내에서 가장 낭만적인 大學街이기에, 또 그곳은 서울대학생 체질에 맞는 다방, 중국집, 음식점, 막걸리집 및 당구장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리라, 상대, 공대, 사대, 치대 심지어 농대까지도 원정을 오는 곳이었다.

그때 나누던 토론과제 중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는 경제국 後進國이라는 탈을 벗고 中進國의 탈을 빨리 쓸 수 있을까? 왜 우리나라의 정치체도는 그렇게도 부패되어 권력과 재력만 있으면 모든 일을 자기 원하는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영향은 가난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정상적으로 드는 돈 이외에도 소위 뒷돈이 들어야 일이 成事되는 문화를 쌓아 왔단 말인가? 사실상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및 교육체제는 서로 연관성을 띄고 있으면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 사회 및 교육을 잘 다스리는 것이 정치이다. 올바른 정치체제는 경제적인 발전을 촉진시킨 것이며 이에 따라 사회제도 및 교육 분야도 발전을 빨리 할 수 있을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패된 정신문화에 젖어있는 정치인을 바꾸는 길 밖에는 그것도 빠른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바꾸는 길 밖에는 없다는 것이 항상 토론의 결론으로 나왔다.

그리고는 4.19가 일어났다. 그때의 우리들의 믿음은 "1)正義와 眞實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목숨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성있는 勇氣, 2)정의와 진실을 위한 용의주도하고 탁월한 계획을 짜는 재치 또는 實踐적 지혜, 3)정의와 진실을 위한 일이면 하늘이 도운다는 信念" 등의 세 가지였다. 나는 아직도 4.19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象牙塔중 으뜸인 우리 서울대학교의 同門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어언간 그때로부터 4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우리 한국의 물질문명은 선진국이 되었으나, 그러나 정신문명은 아직도 중진국이란 점이다. 시간만 있으면 한국신문, 한국뉴스, 한국방송 등 고국 소식에 목말라하며 지난 42년 동안 한국을 연민하는 나의 마음속에 큰 염려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언젠가는 이 왜곡된 한국의 個人主義 정신을 신속하고 과감성 있게 고쳐 가는 각 개인의 용기를 그리며.....

2부 文筆과 論考 목차

- 1. 한국이 정신문화면에서 선진국이 되려면?/조시호-----3
- 2. 단군의 이해-신화와 역사 사이/김영하-----4
- 3. 20세기 한국상고사 연구에 대한 반성/심재훈-----6
- 4. 서양 고고학도들의 트로이 전쟁(자료)-----7
- 5. 단군동상 건립은 한국역사진보에의 역행/김일훈-----9
- 6. Duo Violinists/전명선, 전명진 자매-----10
- 7. 음악화로 이어진 40년/이건미-----12
- 8. 전자전통과 인류문화/정정수-----10
- 9. 취화선, 취아선/이태상-----12
- 10. 미국에 살다보니/허윤행-----11
- 11. 북한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美國時論-----13
- 12. 광어와 도다리/이기준-----14
- 13. 투사와 박애자/美國時論-----15
- 14. 나는 왜 수의사가 되었는가/윤상래-----15
- 15. 파리의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있을까/이용락-----16

新天地와 弘益人間

10월은 우리의 祖國에 있어서는 檀君께서 韓民族의 역사를 연 것을 기념하는 開天節의 달이며, 우리동문들의 삶의 터전인 新大陸을 콜럼버스가 '發見'하였다는 COLUMBUS DAY가 있는 달이다. 新天地는 영토적인 정복의 대상인가? 또는 하나의 마을로 좁아진 세계문화의 새로운 地주를 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작년 9.11 사태 이후 人類의 역사가 담대한 개인의 人權과 自由의 伸長이라는 상승계도를 어떻게 회복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新天地와 弘益人間의 이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미중유의 긴박한 각종정보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기술적인 여건하에서 冷戰종식이후 전 지구상의 唯一 帝國으로 등장한 美國은 "테러와의 전쟁"으로부터 이라크 정권을 전복하는 "예방적 攻撃"이라는 정책을 추구하여 전 세계의 여론의 표적이 되었다. 지난달은 戰爭과 평화의 기운이 교차한 "하 수상한 시절"이었다면 이번 달은 평화지향적인 세계의 여론에 따라 미국 국회의 무력사용 승인결의와 懸案인 유엔에서의 이라크 대량 살상무기 사찰 강요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카터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이라크의 사면 석방 된 죄수들의 饗會 속에 平和의 분위기로 역사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듯하다. 이러한 급박한 세계 정세 하에서 우리 韓民族의 반쪽인 北韓은 자본주의의 도입, 과도한 軍備정책의 조정, 인권을 무시한 지난날의 諜報戰과 납치범행의 인정 과 핵무기 개발계획의 시인 등으로 국제적인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롭게 새로운 進路를 모색하고 있는 듯 하며, 최근 南北韓 당국자는 전례없는 진지한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였다. 문필과 논고자는 이번 호에 항구적인 세계평화의 모색과 민족통일의 길로 가는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민족의 神話와 歷史 속에 담긴 檀君의 신화와 弘益人間의 이념과 실재를 검토하는 글 3편을 특별히 모았다. 재미 동창회보는 다음 호에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방안에 기여 할 수 있는 우리 동문들의 玉稿를 기다리며, 또한 自然科學분야에서 우리 동문들과 동료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날을 바라보며 각자의 전문분야인 자연과학과 기술분야의 최근의 동향들을 담은 원고들을 실어 풍요로운 재미 동창회보의 文筆과 論考란을 구성하고자 한다.

<1면 사진설명>

新天地와 弘益人間

사진 우측 시계방향으로 부터
홍익인간의 이념이 담긴 단군
신화를 수록한 삼국유사,
북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난해한 서명(신천지는 개척지?),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마라톤을
제패한 南男北女(함봉실
선수와 이봉주선수)



조수미 초청음악회 실황

녹음 CD 판매 계속 동창회보 발행財源

"Love from Washington"

소프라노 조수미(Sumi Jo) Washington, DC Concert(2001년 8월 25일)에서 실황 녹음하여 제작된 CD를 500개 한정판으로 우편 판매한다. 이 판매 대금은 관악후원회와母校와 後進을 위한 基金으로 사용된다.
가 격 : CD 1개당 \$15(송료는 첫 한 개에 \$3 복수 구입 시 개당 \$1 추가)
구매수량(1인당): 제한 없으나 500개의 제한된 수량 이므로 선착순 주문 판매하오니 가격과 우송료를 포함한 수표를 아래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 사무국
SNUAA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unausa@anuaa.org
* 수표는 Payble to SNUAAUSA로 작성 바람.

단군(檀君) 이해- 신화(神話)와 역사(歷史)의 사이

김영하 (성균관대 역사학 교수, 한국고대사)

<1>

1993년 10월 2일, 개천절 바로 전날 북한의 사회과학원은 평양시 강동군 강동읍 태백산 기슭에 위치한 단군릉의 발굴 사실을 발표하였다. 「단군릉발굴보고」에는 단군릉에서 출토된 남녀의 인골 가운데 남자의 인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단군릉에서 나온 남자뼈에 대한 연대측정도 진행되었다. 뼈와 연대는, 현대물리학의 첨단기술의 하나인 전자상자성공명법을 적용하여 두개의 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현대적 측정기구로 24회, 30회씩 각각 측정하는데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011년 전의 것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그 뼈는 다른 아닌 단군의 유골이다.”

이 내용에 따르면, 고구려 양식의 고분으로부터 나온 남녀의 인골을 현대 물리학의 측정방법에 의해 5천여 년 전에 실존했던 인물인 단군 부부로 환생시킴으로써 신화 속의 단군이 갖는 신비성을 걷어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남한학계의 단군연구는 물론 기왕의 북한학계의 그것과도 일정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내외의 상당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발굴된 단군릉은 다음해에 다시 웅장한 규모로 재건되었으며, 그 준공식에 남한 천도교의 유명인사가 참가함으로써 더욱 세인의 관심을 끈 바 있었다.

단군과 고조선에 관한 주제는 일반인은 물론이려니와 연구자에게도 한국사의 이해 방향과 관련하여 하나의 화두적 의미를 지닌다. 위에서도 보듯이 오늘날 분단된 남과 북이라는 공간에서 그리하며, 지난날 단군신화가 「삼국유사」에 기록된 고려시대 이래 역사적으로도 그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단군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에서 연유하였다.

일연은 고려가 元의 간섭을 받고 있던 시기에 「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우리나라 역사를 고조선의 단군신화로부터 시작하였다. 그가 고조선의 유구한 역사를 전할 뿐만 아니라, 신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단군신화로서 우리 역사의 기점으로 삼은 의도는 원의 간섭으로 인해 구겨진 고려의 민족적 자존심을 일깨우려는 데 있었을 터이다. 이러한 태도는 김부식이 신라 중심의 역사인식과 유교

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삼국사기」에서 고조선의 단군신화를 배제한 것과는 사뭇 다른 역사적 의의의 소산이었다. 이와 같이 단군신화는 이미 고려시대부터 역사적 상황과의 관련 속에서 배제와 선택이라는 다양한 인식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었던 셈이다.

단군신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이에 대한 근대적 방법의 연구가 시작된 일제시기에 역시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현실에서 단군 숭배에 바탕을 둔 대중교 등의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한편, 식민사학은 실증의 명분아래 단군과 고조선의 역사성을 부정하는 단군 말살론을 전개하였다. 식민사학과의 대립 속에서 주체적인 한국 고대사상을 추구한 민족주의사학의 신체호는 단군-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인식체계에 입각하여 단군신화를 대단군 왕조사(大檀君 王朝史)로 확대하여 해석하였다. 최남선은 민족주의사학과 일정한 거리가 없지 않았지만, 일제의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에 대해서 단군신화를 동방문화의 연원과 관련시켜 광명신앙에 기초한 불함문화론(不咸文化論)을 제기하였다. 한편 백남운은 식민사학의 부정론과 민족주의사학의 긍정론을 각각 사이비 합리주의와 환상적 단군론으로 비판한 뒤,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단군은 농업 공산사회의 붕괴기에 출현한 원시 귀족으로서 남계(男系) 주장일 뿐이라고 논단하였다.

이같이 단군신화가 민족의 위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한 사회통합의 기능과 상징적 의미로 말미암아 인식 주체에 의한 배제와 선택, 부정과 긍정, 그리고 긍정적 입장 내에서도 관점의 차이 등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이후 분단된 남과 북에서 비판적 계승을 통해 서로 다른 단군상을 그려 나갔으며, 마침내 북한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역사상 실존 인물로서의 단군 실재론으로까지 비약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남북의 역사학계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단군에 대한 이해 방향을 비교 검토해 보고, 단군 실재론이 함의하고 있는 행간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 셈이다.

<2>

무릇 인류역사상의 거의 모든 건국신화는 신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단군신화도 예외가 아니

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단군신화의 내용은 편의상 환인과 환웅부자의 관계, 환웅의 태백산 하강과 정치, 환웅과 웅녀의 혼인 및 단군의 출생, 그리고 단군의 조선 건국과 역년등의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의 단군신화에 대한 북한 학계의 공식 견해의 일단을 「조선전사」2, 고대편(1991년판)의 해당부분에서 보기로 한다.

“하늘신을 시조신으로 숭배한 발(박달)족이 꿈을 시조로 삼은 씨족(그것을 포괄하는 종족)이 살고 있던 지역(신화의 태백산-훗날 고조선의 발상지)에 이동하여 이곳 주민들과 결합하여 종족연합을 이루었다. 웅은 공동체성원들로부터 신지(신화의 신시)로 불리운 종족연합의 정치적 수장이었으며 제천행사를 주관한 신관이였다. ...신화에서는 웅에 뒤이어 단군이 등장하며 단군시대가 펼쳐진다. 이것은 선행한 원시사회발기에 뒤이어 계급사회, 국가단계의 사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웅과 단군을 부자관계로 설정한 것은 원시사회발기의 종족연합수장에 뒤이어 국왕이 출현한 사실을 신화적으로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웅신화와 단군의 건국기사는 서로 질적으로 구별되는 두시기(원시사회발기와 국가형성시기)를 배경으로 하여 해당시기의 대표자들인 종족연합의 수장과 국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인다.”

인용이 좀 장황한 감이 없지 않으나, 최근 북한학계의 단군신화에 대한 해석과 고조선이 고대국가의 발전단계에서 갖는 의미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도 불가피하였다. 북한학계의 단군연구에서 두드러진 방법론상 특징의 하나는 실증을 표방한 일제 식민사학의 단군 부정론을 비판하기 위해 구사한 언어학적인 방법과 치밀한 문헌고증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지배 도구로서의 신화는 역사적 현실의 반영이라는 유물사관에 입각하여 신화를 철저히 계역사로 환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의한 북한학계의 단군연구는 시기적으로 보아 두 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 첫째 시기는 1960년대 전반기로서, 이 시기의 단군연구를 주도한 학자는 사회과학원 고전 연구실장 리상호로 보인다. 단군연구의 계기는 1950년대 후반에 삼국사기의 사회 경제구성에 관한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삼국사기를 중세 봉건제사회로 규정함으로써 그 선행사회인 고조선을 고대 노예제사회로 파악할 필요성에서 촉발되었다. 1960년대 초에 고조선에 관한 일련의 연구와 더불어 단군신화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

편집자주: 開天節과 Columbus Day를 맞아 재미동창회보의 文筆과 論考란은 세계문화의 새로운 地坪을 내다보며, 韓民族 起源에 관한 檀君神話의 이념과 실제에 관하여 사계의 전문가인 김용하(성균관대), 심재훈(YALE대) 교수와 김일훈 동문의 글을 모았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 분단 조국의 통일의 미래를 내다보며 새롭게 전개될 세계문화에 기여할 우리의 바탕을 비판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함이다. 김교수는 단군신화의 南北韓의 연구동향과 그 政治的 함의(含意)를 검토하고 있고, 심교수는 한국에 있어서 고대사 연구방법을 書評을 통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김동문은 단군신화(檀君神話)와 국수주의적(國粹主義的)인 민족주의(民族主義)와의 연결을 경계하고 있다. 神話와 科學의 세계는 모두가 有限한 인간 理性의 산물이나 超越의 의지와 感覺의 세계에 기초하고 있다. 兩者의 비판적인 均衡상태의 유지는 歷史進歩의 원동력이며 弘益人間의 이념은 利己的인 현대인의 思潮에 반성의 話頭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 동창회보에 게재허락을 주신 필자들과 김용하 교수님의 글을 실은 통일사론(1990년 여름호)의 발행인 이신 상지대학교 총장 강만길 교수님과 재미동창회보 편집고문인 신 김일훈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심교수의 글의 出典은 역사학보 172호(2001, 12), 367-76면이다.

며, 그 결과는 「조선전사」2, 고대편(1979년판)에서 '고조선의 건국과정을 반영한 단군신화'로 정리되었다.

둘째 시기는 20년간의 공백을 지난 뒤 1980년대 후반부터 재개된 단군연구이다. 이 학문적 공백기는 단군연구에만 국한되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대체로 마찬가지였다. 이 시기가 갖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주체사상에 의한 조선역사의 완결관이라 할 「조선전사」의 편찬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다시 시작된 단군연구의 중심 인물은 사회과학원 역사 연구소 실장인 강인숙이었는데,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당시이거나 그 직후에 이미 형성된 신화로서 신화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가 앞에서 인용한 「조선전사」2, 고대편(1991년판)에 '고조선의 건국 사실을 전하는 단군신화'로 정리된 내용이다.

위의 인용 내용을 통해 우리는 북한학계의 단군 해석이 단군이라는 인물의 출생이 아니라, 고조선이라는 국가의 성립과정을 초점에 맞추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우선 북한학계는 신화상에서 환웅이 태백산에 하강하기 이전에 있었던 환인에 관한 사실은 후대에 불교도에 의해 첨가된 내용으로 크게 사료적 가치를 두지 않았다. 고조선이 건국할 당시에 형성된 신화 본래의 모습은 환웅과 웅녀의 혼인으로 인한 단군의 출생일 뿐이며, 환인에 관한 부분은 단군에 이르는 한 냇수를 늘임으로써 그의 출생을 더욱 신성화하기 위한 군더더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 아래 이루어진 단군 해석에서 두가지의 특징을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환웅

이 천상에서 태백산으로 수직 하강한 신화적 사실을 발-박달족이 태백산 지역으로 수평 이동한 역사적 사실로 본 점이다. 이곳에서 환웅은 웅녀와 혼인했는데, 이 사실 또한 곰 씨족과의 종족연합으로 이해함으로써 환웅은 공동체성원들로부터 신지-신시로 불리운 정치적 수장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환웅이 풍백, 우사, 운사와 같은 씨족적 귀족들과 함께 공동체 성원을 다스린 사회와 단군이 출생하여 세운 고조선의 사회발전 단계를 구별한 점이다. 즉, 전자는 원시사회의 말기에 해당하며, 후자는 계급사회에 기초한 국가 형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단군을 신관을 겸한 수장에서 발전한 사회제도상의 왕-박달임금으로 위치시킬 수 있었다. 이와같이 제정일치의 원시사회 말기에서 제정이 불리된 국가형성으로의 계기적 이행 사실이 신화상에서 환웅과 단군을 부자관계로 묘사한 현실적 배경이었다.

단군신화의 핵심을 고조선의 건국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북한학계의 연구 성과를 따를때, 자연히 건국시기와 중심지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먼저 시기의 문제는 「삼국유사」가 인용한 「위서」를 기원후 3세기 경에 편찬된 역사서로 보면서도, 거기에서 언급한 2천년 전을 중국의 요(堯)임금과 같은 시기로 이해하여 고조선이 기원전 20세기 이전에 건국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중심지의 문제에서 고조선이 처음 도읍한 평양은 강을 끼고 있는 마을의 우리말 보통명사인 '부루나'의 이두식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지금의 평양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다.

<5면에 계속>

<4면에서 계속> 그러한 까닭에 옮겨간 도읍인 아사달과 그 별칭인 공홀산, 금미달 등지의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각각 안시성, 개모성, 웅악성으로 비정함으로써 건국의 중심지를 요동반도로 추정하였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북한학계는 단군신화의 해석에서 박달족의 환웅은 요동지방으로 이동한 원시사회 말기의 정치적 수장이며, 박달임금인 단군은 기원전 20세기 이전에 고대국가로서의 고조선을 건국한 왕이라는 질적으로 다른 두 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신화로 이해하고 있었다.

<3>

북한학계가 단군신화를 이른바 인류 역사의 보편적 발전단계에 맞추어 단순하게 해석한 반면, 남한학계의 단군연구는 훨씬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사회의 학문적 풍토와 관련되는 바로서 남북 분단은 체제의 분단만이 아니라, 학문의 분단을 체제내화한 결과에 다름 아닐 것이다. 여기에서는 남한학계의 단군연구를 살펴봄으로써 북한학계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우선 논의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 대표적 개설서의 하나인 「한국사강좌」 고대편(일조각, 1982)에서 관련 부분을 인용해 본다.

“이와같은 내용을 가진 단군신화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선 환인은 천제 일신을 뜻하는 불교식 칭호로서, 오늘날이 하느님과 같은 단어인데, 하느님은 광명의 신이었을 것이므로, 이는 태양 숭배 사상에서 나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단군이 환인의 손자라 함은 곧 태양신의 손이라는 뜻이며, 이러한 생각은 천상의 세계를 광명의 세계, 선신(善神)의 세계로 보는 샤머니즘의 우주관과 일치하는 것이다. <5면에서 계속> 이처럼 단군신화의 세계는 역시 샤머니즘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고조선의 지배자는 태양족의 후예로 자처하는 주술사적 성격이 강한 군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건국신화가 신석기시대에 출현했다는 근거는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그 예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단군신화는 청동기시대를 배경으로 하여 고조선의 건국과 함께 성립된 것이며, 따라서 고조선의 건국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이다.”

위에서 보듯이 남한학계는 단군신화를 동북아시아의 보편적 종교 현상이었던 샤머니즘의 우주관으로 해석하여 단군을 주술사적 성격의 군장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그 형성의 문화적 배경을 신석기보다 청동기시대에서 찾고 있다. 이것은 남한학계의 단군연구가 방

법론상에서 유물사관을 배제하는 대신에 문헌을 중심으로 종교학, 고고학, 인류학 등 인접과학의 다양한 성과를 도입한 데서 기인한다. 그러면 이러한 연구방법론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단군과 고조선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단군신화가 형성될 수 있었던 문화적 배경을 고고학과 인류학의 관점에서 무엇으로 파악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남한학계의 단군신화 연구에서 주목되는 현상의 하나가 문헌자료에 대한 고고인류학적 해석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크게 신석기 시대 또는 청동기 시대로 보는 두 견해로 나누어져 있다. 신석기 시대로 보는 입장에서는 단군신화의 주요한 내용은 웅녀에 의한 단군의 출생이라는 곰 숭배에 기초하고 있는데, 곰 숭배의식은 신석기 시대 고아시아족의 문화적 특징이었으므로 단군신화의 토대는 신석기 문화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 단군신화를 형성시켰던 유문토기인 단군조선은 기원전 12세기 무렵에 청동기 시대의 무문토기인 알타이계 예맥족에 의해 교체됨으로써 종말을 맞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인용 내용과 같이 청동기 시대로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단군신화를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의 복합과정에서 파생한 것으로 보며, 단군신화는 구아시아계 계통의 시조신화인 곰 토테미즘 위에 알타이계 계통의 시조신화인 태양신화가 복합된 것이라는 설, 단군조선은 곰과 범으로 상징되는 두 개의 족단(族團)이 선주하고 있는 곳에 천제의 자손임을 표방하는 족단이 이주하여 정복 또는 동화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으므로, 단군신화도 후래한 농경민인 북몽골인이 선주한 어렵민인 고아시아족을 흡수 또는 동화함으로써 한민족의 원형인 한·예·맥을 형성한 사실과 관련된다는 설, 같은 맥락에서 단군신화를 청동제 단검의 권위로 상징되는 농경문화를 가지고 이주한 알타이=동이족의 문화적 소산으로 파악하는 설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 같은 청동기 시대로 파악하더라도, 범-환웅으로 상징되는 중국계 이주 집단의 영향과 자극 속에서 오히려 곰-웅녀로 상징되는 선주세력의 단군집단이 기원전 12세기 말경에 고조선을 성립시킨 것으로 보는 견해도 나왔다. 이상에서 살펴 본 단군신화의 배경에 대한 이해는 그와같은 사회적 조건 속에 존재한 단군의 성격 규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관해서 일찍이 최남선은 신화상의 곰과 범에 주목하여 토테미즘의 존재를 강조하는 한편, 단군

의 어원을 무당의 의미인 '뎡그리'와 '당골'에서 찾은 바 있었다. 이로써 단군왕검의 단군은 제천의식을 주재하는 천군(天君)을 뜻하며, 왕검은 왕호로서 무군(巫君)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이후의 연구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즉 천신족의 환웅과 지신족의 웅녀가 결혼하여 낳은 단군은 제사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왕검은 정치적 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견해에 의하면 제정일치단계에서는 단군 뿐이었으나, 제정분리단계에서는 제사를 주관하는 단군과 정치를 관장하는 왕검으로 역할이 나누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러한 단군 이해는 기본적으로 샤머니즘의 전제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군은 아직 고대국가로 이행한 사회에서의 정치적 지배자인 왕일 수는 없었다.

이제 단군신화의 배경 파악과 단군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고조선의 중심지 문제를 거론해 볼 필요가 있다. 고조선의 중심지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제기된 평양중심설과 요동중심설에 대하여 중심지이동설까지 제기됨으로써 논란이 많은 부분인데, 기왕에 남한학계의 통설적 견해는 평양중심설이었다. 이것은 일연이 「삼국유사」에서 단군이 도읍한 평양을 고려시대의 서경, 즉 오늘의 평양으로 비정한 데서 연유하는 바이지만, 아사달까지도 또한 현재의 평양 지역으로 비정함으로써 더욱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요동지방에서 평양지방으로의 이동이라는 중심지이동설이 제기되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이 설은 두 지역에서 출토되고 있는 고고자료와 문헌자료의 합리적 해석을 위해 도출된 것인데, 고조선의 초기 중심지는 요동지역이었으나 후대에 중국의 세력확장에 따라 한반도의 서북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단군이 다스리던 단계의 고조선은 요동지역이 중심지일 수도 있다.

결국 남한학계의 단군신화의 이해는 선주한 신석기 문화의 고아시아족과 이주한 청동기 문화의 예맥족의 문화복합에 의한 정치적 사회의 성립을 반영한 신화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며, 이러한 사회의 지배자였던 단군은 아직 국가 단계의 왕에는 이르지 못한 존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

단군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이 적지 않았던 만큼 남북의 역사학계는 모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회체제의 이질성에서 비롯되는 관점상의 차이도 없지 않았지만 단군신화를

한국사의 첫 출발점으로 설정한 점에서는 같은 역사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서는 두 학계의 단군연구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한 다음, 최근단군론 발굴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으로 글을 맺으려 한다.

남과 북에서의 단군연구를 크게 보았을 때 나타나는 공통점의 하나는 단군신화를 원시사회 말기로부터 국가형성에 이르는 두 사회의 교체로 이해하거나, 선주한 신석기 문화 위에 청동기 문화의 이주라는 두 문화의 복합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신화 해석에서 역동성을 확보한 점이다. 다른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에 상응한 단군의 성격 이해에 있어서 실재한 인물로서의 단군보다는 정치적 수장에서 발전한 왕 또는 주술사적 성격의 군장 등 사회제도적 존재로서의 단군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성을 견지한 점이다. 이와 같은 점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상의 문제로 인한 차이점도 없지 않았다. 우선 이 주제로서의 의미를 갖는 환인관련 기사의 사료적 가치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적 존재인 단군에 대해서도 제정이 분리된 고대 국가단계의 왕과 제정일치사회에서의 군장으로 파악하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점은 고조선의 중심지를 요동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평양으로 비정할 것인가에서도 나타났지만, 남한학계에서 중심지이동설이 제기됨으로써 적어도 초기 중심지는 요동 지역으로 추정하는데 합의할 수 있을 듯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남과 북에서의 단군연구는 모두(冒頭)에서 언급한 단군론의 발굴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단군 숭배의 열기가 고조되던 일제시기에 수축한 바 있는 소위 단군론이라는 고구려 양식의 고분에서 남녘의 인골, 금동관의 장식일부, 금동제 띠 조각, 철제 관못, 도기편 등이 출토되었다. 북한학계는 단군론이 고구려의 석실봉토분인 점은 고구려 시대의 시조의 동명왕과 함께 단군도 숭배되었으므로 개축한 때 문이며, 5011년 전의 단군 유골이 잘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석회암 지대라는 유리한 지층에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남한학계에서는 문헌상 단군조선의 건국년대인 기원전 2333년을 신빙한다고 하더라도 기원전 3천년 이전의 단군 유골과는 연대가 맞지 않으며, 인골과 함께 출토된 일련의 유물은 고분과 함께 고구려 시대의 것을 뿐 결코 고조선 시대의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면 왜 북한은 종래 고조선의 중심지라고 인정해 온 요동설을 포기하고 다시 단군의 평양 출

생설과 매장설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그러한 지간의 사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지만, 앞의 보고에서 언급된 다음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단군이 고조선을 창건하고 도읍한 평양이 산수 수려한 곳으로서 검은 모루 유적의 주인공과 ‘력포사람’(고인), ‘만달사람’(신인), 조선 옛류형 사람으로 이어지는 인류발상지의 하나이며 조선민족의 발상지이고 첫 국가의 발생지였다는 사실이 힘있게 증명되었으며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을 뚜렷이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단군이 실재한 인물로 밝혀지고 단군조선이라 조선이 단일한 민족으로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곳곳이 살아온 사실이 확증됨으로써 단군의 후예로서의 우리 민족이 긍지와 자부심은 더욱 더 높아지고 한 피줄을 이은 7천만 동포들이 조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하려는 길에서 더욱 굳게 뭉쳐 싸울 수 있게 되었다.”

위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같이 실존 인물로서의 단군이 창건한 고조선의 평양중심설을 평양이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의 발상지인 동시에 첫 국가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조국통일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당위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북한의 주체사상에 의한 역사 해석에서 당연한 귀결일 것이지만, 역사학의 정치 종속이 빚어내는 위험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단군론의 발굴 결과에 대해 남한학계의 일부에서 동조하고, 단군론의 재건 준공식에 북한에서 초청한 유명인사가 참가한 현실은 역사의 아이러니를 생각해 하는 대목이다.

단군과 그 신화가 과거에 설혹 민족적 위기의 상황에서 사회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라도, 장래 민족의 통일을 전망하는 단군연구에서 각별히 유의할 점은 배타적 확대 해석을 통한 이념화에 대한 경계가 아닐까. 그것은 바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의 사상적 무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이기백 편, 「증보판 단군신화 논집」, 새문사, 1988
- 역사학회 편, 「북한의 고대사 연구」, 일조각, 1991
- 윤이훈 외, 「단군」, 서울대학교출판부, 1984
- 서영대 편, 「북한학계의 단군 신화연구」, 백산자료원, 1995
-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7

書評

Hyung Il Pai,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a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2000, iii iv +514面

20세기 한국 上古史 연구에 대한 반성

沈載勳 (Yale대 동아시아어문학과 시니어 렉토르, Ph.D.)

지난해 한국을 떠돌다시피 했던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바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일 것이다. 미주판 한국일보에서 뉴욕의 교포들이 뉴욕주재 일본 영사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는 사진까지 본 기억이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참으로 대단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격분의 와중에 국내의 소장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우리의 역사서술에는 문제가 없는가 하는 반성의 모습이 적게나마 눈에 띄는 참 고무적이다. 미국에서 중국과 한국의 고대사를 공부하면서 필자 역시 국내 학자들의 한국 상고사 인식 체계가 상당히 과장되어 있음을 적지 않게 느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캘리포니아 대학(산타바바라)의 배형일(Hyung Il Pai) 교수가 펴낸 "한국" 기원의 구성: 한국 국가 형성 이론에 있어서 고고학, 역사학, 민족 신화의 비판적 재검토. *Constructing "Korean" Origins: A Critical Review of Archaeology, Historiography, and Racial Myth in Korean State-Formation Theori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2000)는 주목을 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구미 학계의 상고사 인식 체계를 반영하면서 지난 세기 한국의 상고사 연구의 문제점 및 그 원인을 과감하게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대안 역시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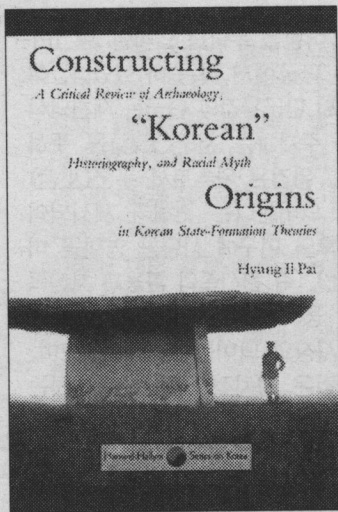
저자의 한국 상고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 고대 국가/문명의 형성에서 樂浪郡의 역할을 분석한 박사학위논문 <한국 선사시대에 있어서 낙랑과 그 상호 영향권> "Lelang and the Interaction Sphere" in Korean Prehistory" (Harvard University, 1989)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저자는 일제 식민지 학자들과 전후 한국 학자들의 한국 상고사 연구를 사학사적 관점에서 분석한 <한국의 과거를 둘러싼 정치적 시각: 일본 식민지 고고학의 유산> "The Politics of Korea's Past: The Legacy of Japanese Colonial Archaeology" (East Asian History 7 [1994], pp. 1-25)을

발표했다. 이 때부터 저자의 관심은 한국사 서술에 있어서 민족주의의 문제로 확대되었고 1998년에는 <민족주의와 한국인 정체성의 구성> Nationalism and the Construction of Korean Ident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을 編한 바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를 추가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모두 일곱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첫 번째 네 장(한국인 정체성의 형성/선사시대 한국의 식민지적 기원/고대 한국의 신화적 기원/한국 국가 형성 이론: 비판적 재검토)은 지난 세기 한국 학자들의 상고사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사학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 5장과 6장(낙랑: 문화접촉과 문화변동의 사례 연구/한국 선사시대의 낙랑 상호영향권)은 상고사를 다룬 부분으로 낙랑에 대한 저자의 견해가 담겨 있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 7장(민족주의와 과거에 대한 잘못된 재서술)에서는 저자의 연구를 요약하고 민족주의 역사학의 여러 다른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해방 후 민족주의적인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분위기가 한국학의 발전을 이끈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역사학 역시 "일제 제국주의 역사학의 틀"에 대항한 "독립된 한국의 새로운 민족사"로서의 "민족주의 역사학"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었음을 주목한다(p. 1). 저자가 볼 때 전후 대부분의 한국 상고사 연구자들은 한민족 정체성의 기원을 선사시대에까지 소급시키려고 노력했던 민족주의 사학자에 불과하다. 이들의 연구를 통하여 선사시대(3000-2000 B.C.)에 동북아시아에서 순수한 민족이 태동했고, 이들은 고조선의 시조인 단군의 후예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단일민족 의식은 외세 침략 극복사와 함께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한민족과 국가(고조선)의 형성을 오래 전 선사시대에서 찾고 있는 국내 학자들이 문헌 기



록보다는 고고학 자료들을 결정적인 근거로 활용함을 문제로 지적한다. 하지만 저자가 파악하기에 기원전 1세기에야 문헌에 언급되어 나타나는 고조선과 한국 학자들이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서기전 2000년 혹은 그 이상으로까지 추정하고 있는 고조선에는 분명히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p. 15). 더욱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문화를 통해 민족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현재 고고학자들 사이의 일치된 견해(p. 21)는 한국 상고사 연구의 민족주의적 경향에 대한 재검토를 요한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 선사시대 기원론의 근원을 일제의 식민사학에서 찾고 있다. 20세기 초 일본의 민주 진출로 시라토리(白鳥庫吉)와 도리이(鳥居龍藏), 이마니시(今西龍), 이케우치(池内宏) 등의 일제 관학자들이 한국을 만주의 지리적 역사적 연장선상에서 파악하는 소위 "滿鮮史"라는 개념을 도입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들 중 시라토리는 중국 문헌에 나타나는 부여와 고구려, 예맥, 옥저 등을 고조선과 연결시키고, 이들이 만주와 시베리아에 거주했던 "통구스/동호"의 후예였다는 한민족 기원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제출하여 식민지 민족학 연구에 토대를 제공한 바 있다.

이러한 식민지 민족학 연구는 통구스(고아시아, 고시베리아족 포함)를 동북아시아(바이칼, 몽골, 만주 지역)의 가장 "원시적"이고 오래된 인종으로 파악했던 17-18세기 러시아 민족지학(ethnography)과 이를 이어받은 시로코고로프(S. Shirokogoroff)의 20세기 초 연구에서 큰 영향을 받은 바 있다. 러시아, 일본 학자들의 견해에 통구스로 통칭되는 제 민족들의 후진성이 전제되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만, 원래 야쿠츠(Yakuts)족이 그들이 이웃 민족을 경멸적으로 부르는데 쓰였던 "tongus"(돼지)라는 용어는 18세기에 이르러서야 러시아 민족지학자들에 의해 아무르

(Amur)지역 민족들을 통칭하는 용어로 잘못 해석된 것이다(p. 45). 더욱이 러시아 학자들이 18-20세기초까지 극동 지역에서 관찰한 소위 통구스와 고아시아 혹은 고시베리아족의 후진적인 양태는 이미 수세기 동안 러시아인들의 착취를 겪은 후의 사회적 환경적 결과였을 뿐, 결코 오래 전 신석기 시대의 "선사적" 자취가 아니었다(pp. 54-55).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고고학 역사학 이론은 위의 가설적 토대 위에서 세워져서 한민족의 열등성과 선진 외세 침입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전후 한국(특히 남한)에서의 상고사 연구는 이러한 일제의 식민사학 극복을 지상과제로 삼아 독자적인 "한민족의 기원"을 재구성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파악하기에 국내의 연구는 여전히 식민지 민족학 연구의 편견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p. 56). 그 편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단군으로 대표되는 "고대 한국의 신화적 기원"이라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단군 연구 역시 시라토리나 이마니시 같은 일본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삼국유사 에 언급된 단군 관계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신체호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단군은 한민족사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고, 꿈을 토대로 삼기던 신석기시대 고아시아족의 한 갈래와 연결되기까지 했다. 단군의 부각과 함께 가설적인 한민족의 선사시대 기원론을 수용한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한민족을 고고학적으로 재구성하려고 시도하면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를 한국 문명의 형성기로 이해했다. 이들은 빗살무늬토기나 무문토기, 비파형동검, 지석묘 등을 통하여 선사시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과는 독자적인 문화권이었음을 강조했고, 濊貊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민족의 이주를 단군 고조선의 국가 형성과 동일시했다. 단군 조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불교나 유교 도입 이전 토착 종교로서 샤머니즘의 존재가 강조되었고, 고조선의 허구적인 건국연대인 기원전 2333년 역시 받아들여졌다.

이렇듯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없는 가설들을 토대로 전후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단군 신화를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국가적 여론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고, 이를 위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일제 식민지 학자들이 남긴 개념과 방법론, 자료들에 의존했던 것이다.

저자는 한국 문명의 기원과 발전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

난 세 가지 중요한 방법론적 오류를 지적한다. 첫째, 민족이나, 문화, 문화영역, 민족국가, 문화단체 등과 같은 개념이 고고학이나 문헌자료의 충분한 뒷받침 없이 무분별하게 선사시대에 적용되고 있다. 둘째, 사회변동의 메카니즘 역시 적절한 고고학적 토대 없이 이주나 침략, 정복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 셋째,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족속들을 19-20세기에 생긴 종족/민족적 범주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시도이다. 특히 春秋 國시대의 유동적이고 다민족적인 중국 북방 변경지대에서 고고학적 유물을 통해서 어떤 민족적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은 무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통구스=동이=예맥=한민족의 종족적 도식은 성립될 수 없고, 한민족의 종족적 열등성을 전제로 조작된 식민지 민족 차별 이론에 불과하다(pp. 97-111).

그러므로 저자는 19세기말-20세기초에 형성된 종족이나 민족 정체성의 개념을 이용하여 한민족의 기원이나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고고학 자료로부터 추정해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 고대의 발전을 이해하는 새로운 통찰력은 고조선 연구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민족주의적인 목표가 한반도의 선사시대를 해석하는 보다 합리적인 방법론의 형성에 저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p. 122). 저자는 나아가서 한국의 초기 국가를 입증하는데 이용되는 청동단검이나 지석묘 등과 같은 민족적 편견을 지닌 고고학적 표시의 추구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p. 124).

저자의 이러한 고조선 연구에 대한 회의는 고조선이 아니라 삼국이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한반도 최초의 발전된 형태의 국가라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국가들은 기원전 108년 漢의 침략 이후 약 500년 동안에 외부의 접촉과 내적인 발전의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 따라서 저자는 한반도에서 초기 국가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 문화적 변동을 촉발한 낙랑군의 역할에 주목한다.

우선 저자는 기존의 낙랑군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이들의 연구가 중국 문헌에 근거하여 단지 정치적인 사건만을 제한적으로 기술함으로써 한 이전이나 혹은 토착 세력과 한의 군사 스템과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7면에 계속>

<6면에서 계속>

더욱이 고대 한국이 중국에 종속되어 있었다는 식민지 이론을 입증하려는 정치적인 동기가 개입된 일본 학자들의 연구는 낙랑군의 역사를 한반도에 존재했던 제 세력과의 상호관계는 배제한 채 순수하게 한/중국의 그것으로만 파악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남한 학자들의 낙랑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역시 정치적 동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들은 낙랑군의 성립과 외해를 한국 최초의 민족적 반외세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pp. 136-37).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저자는 '다른 문화를 가진 개별 집단들이 계속적인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한쪽이나 상호 간의 원래 문화 형태에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인 '문화변용'(acculturation) 혹은 '문화접촉'(cultural contact)이라는 분석 틀로 한의 낙랑과 토착 세력 사이의 접촉과 변화의 조건, 과정, 결과 등을 구명하려고 시도한다(pp. 139-40). 이를 위하여 저자는 낙랑 문화권 유적지의 2000기가 넘는 분묘에서 출토된 부장품을 중심으로 漢(목곽묘, 청동거울, 철기, 장식품, 옥기, 봉인, 철제무기 등)과 非漢(토광묘, 세형동검, 화분형 토기 등)의 문화 목록(cultural indices)을 설정한다. 이러한 문화 목록과 분묘의 형태들을 토대로 낙랑 문화권에 존재했던 다섯 분묘군(한의 관료, 한의 귀족, 토착 귀족, 지방 귀족, 하층민)을 분류하고, 한반도의 토착 문화에 한의 요소가 유입되어 일어나는 문화 접촉과 변화의 양상을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소위 '낙랑 상호 영향권'(Lelang Interaction Sphere)을 설정하여 한반도의 초기 국가 형성에 끼친 낙랑군의 역할을 설명하는데, 이 영향권은 낙랑과 직접적 접촉을 가진 대동강 유역을 포괄하는 '중심지'(core area)와 간접적 영향을 받은 세 지역(압록강 유역, 한강과 영산강 유역, 낙동강 유역/일본 포함)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지역 사이의 다양한 교환을 촉발한 중

요한 요소는 중국의 고급 상품에 대한 욕구였을 것이다. 낙랑군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성장한 토착적 지역적 정체들은 낙랑군의 소멸과 함께 국가 단계로 발전하였다(p. 211).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초기 국가 형성을 위한 가장 특징적인 요소는 외부에서 유입된 힘, 즉 한 낙랑군의 자극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서 전후 민족주의적 역사 서술이 보편적인 양상이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전후의 모든 민족주의적인 담론에서 민족의 기원과 과거, 미래를 규정짓는 '고대'의 탐구는 민족 정체성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였다는 것이다(p. 287).

지금까지 요약한 저자의 연구는 국내 역사학계에서 비교적 기피해왔던 민감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저자에게 있어서 20세기 한국 상고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민족주의이다. 소위 실증주의 사학을 표방했던 여러 학자들의 연구 역시 민족주의적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저자의 지적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은 일제의 식민사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출발했지만, 여전히 식민사학의 개념과 방법론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도 역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자는 20세기 전반부 일본 학자들의 한국 상고사 연구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들의 공과 역시 지적하고 있다.

저자가 파악하는 지난 세기 민족주의적 사학의 핵심에는 바로 '식민지적 신화적' 기원으로의 단군과 고조선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한민족 기원으로서의 단군의 존재를 20세기의 신화로 부정하는 저자에 있어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고조선 역시 한국의 기원을 추구하기 위한 연구 대상이 되기 어렵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은 1980년대 이래로 한국에서 상고사 연구의 중요한 논쟁 거리로 등장

했던 고조선 연구를 뒤돌아보게 하고, 국내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단군=고조선=한국의 기원이라는 등식에 조심스런 재고를 요한다. 더욱이 저자가 지적하듯이 현재까지도 비파형동검이나 미송리형토기 등의 고고학 자료가 고조선 실체의 구명에 유력한 근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신중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면서 한편, 저자는 한국 학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한반도에서 漢과 접촉 이전에 계층화된 서열사회나 성읍 국가, 부족연합의 군장(chiefdoms)이 존재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고고학적 입증될 수 있는 낙랑 유적을 통해서야 한국 초기 국가 형성의 양태가 효과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자 견해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러한 철저한 물증주의는 상고사 연구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다. 더욱 오래되고 순수한 한국 민족의 독자적 원형을 추구해왔던 전후 한국 고고학/역사학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저자가 지적한대로 이러한 연구가 반박의 여지를 남기고 있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나아가서 낙랑 유물들을 미국 인류학자들이 만든 여러 가지 국가 형성 이론에 대입시켜 '문화변용'이나 '낙랑 상호 영향권'이라는 나름대로의 틀로 분석하고 있다. 사실 낙랑 연구는 일제 식민지 학자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된 탓에 남북한 모두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무시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저자의 연구가 국내 낙랑군 연구에 자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저자의 한국 상고사에 대한 주장이 과격적인 만큼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 역시 지적될 수 있다. 우선 저자가 기원전 1세기에 문헌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한 고조선은 이미 戰國시대의 문헌인 管子, 山海經, 戰國策에 遼東이나 遼西에 존재했던 것

으로 명백히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자는 평양 지역의 고조선 지역에 설치된 낙랑으로부터 한국 국가 형성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비록 저자가 '문화변용'이나 '낙랑 상호 영향권' 등의 외피를 입히기는 했지만 저자의 낙랑군에 대한 연구 역시 낙랑군의 존재를 한국사의 시작으로 부각시킨 일제 식민사학자들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저자는 만주에서 한민족의 기원을 찾는 한국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연구가 일본 식민지 학자들의 연구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근대적 민족 개념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해도 고조선은 요동 지방에서 찾으려는 노력은 이미 고려시대 이래로 李承休, 權學, 洪汝河, 李瀾, 申鼎濬, 李種微 등의 저술에서 시도되었다는 사실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저자가 전후 한국 학자들의 상고사 연구에서 민족주의 경향을 지적함은 일리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학자들의 연구 경향을 민족주의의 범주로 단순화시키다 보니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일 반화의 오류를 통해서 독자들은 저자가 기존 한국 상고사의 연구를 과장되게 폄하하려는 듯한 인상 역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조선의 건국연대와 관련하여 마치 국내의 모든 학자들이 이 연대를 신뢰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지만(pp. 90-92), 실제로 이 연대의 허구성을 의심하지 않는 학자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미 더 이상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통구스/고아시아족과 한민족의 연관성을 마치 '오늘날' '현재까지' 등의 현재 진행형으로 서술한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저자의 성급한 판단은 8-90년대 이후 국내 연구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에서 기인하는 듯하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도 눈에 띈다. 저자는 예맥의 이동을 한민족의 형성과 관련하여 설명한 후지타(藤田亮策)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를 西岡 후기(기원전 7세기)에 일어난 일로 서술하고 있는데(p. 50), 7세기는 9세기의 오류이다. 箕子와 조선의 관계가 최초로 언급된 문헌은 尚書가 아니라(p. 92) 尚書大傳이다. 고조선의 요동에서 평양 지역으로의 이동을 기원전 2세기 경 衛滿의 시대로 파악한 것(p. 98) 역시 기원전 3세기 경 燕秦開의 침입으로 이동했다는 문헌 기록과 상충된다. 중국어 로마자 표기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잘못(예를 들어 朝鮮[Chaoxian]을 Zhaoxian으로 표기) 이외에도, Kirk Larsen의 서평에서 지적되듯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실 관계의 오류는 비록 저자의 주된 논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이 책의 흠으로 남아 있다(Journal of Asian Studies 60.3 [2001], pp. 892-94).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구미 최초의 한국상고사 연구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일단 이 책을 통해서 한국과 구미에서 한국 상고사 인식의 큰 차이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이 책을 계기로 구미에서의 한국 고대사 연구가 활성화됨은 물론 한국과 구미의 학자들이 서로 논쟁할 수 있는 토대까지 마련될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역사서술의 문제 역시, 지난 세기 한국의 역사적 상황에 비추어 어느 정도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1세기의 더욱 엄정하고 객관적인 한국 상고사 서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부분임을 지적하고 싶다. 국내의 고대사 연구자들이 이 책을 일제 식민사학자들 연구의 아류로 치부하지 않고 진지하게 검토하길 기대해본다.

서양 考古學徒들의 트로이 戰爭

[편집자주: Troy는 터키의 고대 도시로 Aegean해를 가운데 두고 그리스를 마주하고 있는 곳인데 이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 Homer의 神話의 세계의 소재이며 고대 서양인들의 전쟁과 영웅들의 윤리관의 원천인데, 최근 고고학도들의 발굴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서양에서의 神話와 科學의 논쟁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 글의 원제명은 'Was Troy a Metropo-

lis? Homer Isn't Talking' 이며 필자는 JOHN NOBLE WILFORD이다. 뉴욕타임즈 2002년 10월 22일 자에서 전재함.]

A new Trojan War has broken out. In the warrior roles of Achilles and Hector are two respected professors on the same German university faculty who could not differ more fully

and vehemently over what to make of the ruins at the presumed site in western Turkey of the legendary siege in the 13th century B.C. immortalized by Homer.

One adversary, an archaeologist who has directed excavations there since 1988, contends that he has found telling evidence of Troy as a much larger and more important city than previously thought. Surveys and excavations, he says, dis-

close the outlines of a densely settled town reaching 1,300 feet south of the hilltop citadel. This greater Troy, with an estimated population of up to 10,000, sizable for the time, is now being portrayed as a thriving center of Late Bronze Age commerce at a strategic point in shipping between the Aegean and Black Seas. It seemed to have been a place worth fighting over (if indeed there is any historical basis to Homer's 'Ili-

d'). Where is the proof, the other combatant, an ancient historian, demands to know. Accusing the Troy archaeologist of 'willful deceit,' he argues that excavations have turned up no firm evidence of such a large town outside the acropolis. At best, he insists, Troy in that period was only a princely seat, a castle and little else of consequence.

<8면에 계속>

<7면에서 계속>

The argument between the two professors at the University of Tübingen, Dr. Manfred Korfmann, the archaeologist, and Dr. Frank Kolb, the historian of ancient times, may have little direct bearing on some of the more hoary questions about Troy. Was Homer's Trojan War part history or all poetry? Was there ever a woman like Helen, whose face, however beautiful, could have launched a thousand ships? The dispute is an unsettling reminder to archaeologists that lapses sometimes occur in the proper practice of their field, where evidence can be ambiguous and the temptation can be great to overinterpret piecemeal findings to burnish their significance. Whether that has occurred now is the issue. Controversy, though, is nothing new in Troy research. Heinrich Schliemann, the gifted amateur who was the first to conduct extensive excavations there, in the 1870's, had a habit of mixing fantasy with reality in his reports. Finding a lode of gold and jewelry, he announced it to be the treasure of Priam, king of Homer's Troy. Later, it was proved to be from a much earlier period.

In any event, the hostilities between Drs. Korfmann and Kolb erupted last year, with no armistice in sight. The immediate cause was an exhibition, "Troy: Dream and

Reality," organized by Dr. Korfmann to display results of his excavations. The exhibition opened in Stuttgart, near Tübingen, and moved to Braunschweig and Bonn. When Dr. Kolb saw its elaborate model of what a greater Troy might have looked like, he was incensed. It was nothing like his own conception of a lesser Troy. Calling the model a fiction, Dr. Kolb called Dr. Korfmann "the von Daeniken of archaeology," referring to Erich von Daeniken, a popular writer who contends that ancient astronauts visited Earth from outer space and created early civilizations.

Since then, Dr. Kolb has only slightly moderated his accusations. In e-mail responses to questions, Dr. Kolb said that Dr. Korfmann "wants to present a great Troy at any costs" and in doing so, "his interpretations distort the evidence." Where the archaeologist claimed to

ind many houses and streets outside the citadel, the ancient historian said that there were few actual excavations of house foundations and that much of the land was open agricultural fields. Moreover, Dr. Kolb said, "no evidence at all" has been found of trade goods and other artifacts to support a view of Troy as a major entrepot.

Under attack, Dr. Korfmann's team modified the model to show fewer houses in the lower city and reduced population estimates by several thousand. But Dr. Korfmann stoutly defended the research underlying his view of a greater Troy. "Our work is reviewed by independent scholars every year, and we have never got a negative review," Dr. Korfmann said in a telephone interview from Tübingen.

The archaeologist has also defended as legitimate the practice of including conjecture and interpretation in reports of findings. In an interview last year with a

German magazine, Dr. Korfmann said, "Without hypotheses, there can be no scientific and scholarly progress." Of course, Dr. Kolb responded. He accused Dr. Korfmann of presenting his conception of Troy as proved. Among Dr. Korfmann's allies is Dr. Wolf-Dietrich Niemeier, director of the German Archaeological Institute in Athens. In a recent article in *Archaeology Odyssey*, Dr. Niemeier said that even though Dr. Korfmann had exaggerated and oversimplified some points, his main interpretation of a greater Troy seemed correct. There was, Dr. Niemeier added, more to Troy than a citadel. Several prominent historians and archaeologists side with Dr. Kolb.

"We are dealing with a principle of only regional significance, which would certainly have not been drawn into a major military conflict with the Greeks," said Dr.

Dieter Hertel, a classical archaeologist at the University of Munich. At least the disputants have steered clear of literary warfare. "We find destructions and evidence of hostile activity, but we cannot excavate the Trojan War because it's literature," Dr. Korfmann said. "We will never find Helen and Hector."

Schliemann himself puzzled over the question at the core of the latest dispute. Digging in the castle ruins on a hill known locally as Hisarlik, he recognized the fortified area to be too small for a city of Troy's supposed wealth and power. The high stone walls encompassed an area not much more than 600 feet in diameter, about five or six acres.

Since scholars generally agree that the site is where Troy should have been, Trojan War or not, later excavators looked for ruins beyond the walls, but with little success. Historians began to suspect, as Dr. Kolb wrote in 1984, that Troy was not a city, but a citadel. Dr. Korfmann was inclined to agree at the time. Then Dr. Korfmann organized the first systematic investigation of the site in more than 50 years, conducted primarily by researchers from Tübingen and other German institutions, as well as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A decade ago, they began finding reasons for Dr. Korfmann to change his mind.

That was when a magnetometer survey outside the visible fortress ruins disclosed what appeared to be buried remnants of an outer wall. Possibly it had encompassed the quarters inhabited by the population of artisans and merchants, the larger city beyond the citadel. But excavations turned up not a wall, but a wide deep ditch cut into bedrock. Dr. Korfmann's team surmised that this was an obstacle to invading chariots and battering rams at the southern perimeter. A high wall possibly stood inside the trench, though its stones were presumably removed and reused.

Dr. Kolb and his allies argued that the ditch was for irrigation. Only if water runs uphill, Dr. Korfmann's defenders countered. In the area between the supposed ditch and the inner fortress wall, Dr. Korfmann's excavators reported finding Bronze Age pottery everywhere they dug, as well as a kiln and a cave with a well, perhaps part of the city's water system.

Several house foundations were uncovered. One, called the courtyard house, was described as especially impressive. Among its artifacts were a

bronze figurine and a ceramic bull. Dr. Peter Jablonka, a Tübingen archaeologist in charge of the lower-city excavations, said the remains of the extended city reached as far out as the ditch, making the city at least 10 times as large as its previously estimated area. Dr. Kolb pointed out that the Korfmann group had excavated just a small fraction of the disputed area, with inconclusive results. He told German newspapers that the exhibition model "falsely shows solid houses" where excavations actually revealed "only scattered wood and clay buildings and much free space."

In defense of the project, one of its principal archaeologists, Dr. C. Brian Rose of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explained that a site was never completely excavated before its place in antiquity was described and interpreted. That would take too long. Also, it is standard practice, Dr. Rose added, to leave something for future generations to examine with their improved technologies. Dr. Rose acknowledged that aspects of the lower-city model were based on some guesswork and that some details could be wrong.

"The same could be said of work Kolb himself has done," he said.

The site itself can be an excavator's nightmare. The mound at Hisarlik was successively occupied by different cultures from 3000 B.C. to A.D. 1200. Fires and earthquakes destroyed the place several times, and construction materials of one culture were often recycled by subsequent occupants. "Reading the past here is harder than reading a manuscript palimpsest," the Korfmann team noted this year in a newsletter to its backers. In making a case for Troy as an important trade center, Dr. Korfmann cited its position at the Dardanelles, the strait leading from the Aegean Sea into the Sea of Marmara, which then connects with the Black Sea where Istanbul stands today. The Trojans could have gained wealth by controlling shipping and collecting duties on all goods. Dr. Kolb, however, insisted that Aegean-Black Sea traffic was minimal in the Bronze Age.

□Another point of discord is Troy's possible ties to the Hittite Empire, which at the time ruled most of Anatolia, in what is now central Turkey. Dr. Gustav Adolf Lehmann of the University of Göttingen and Dr. Franz Starke of Tübingen argued that there was a "high degree of certainty" that Troy was a place that the Hittites called Wilusa. The name, mentioned in Hittite texts, is similar in sound to a Greek name for Troy. "Political opportunism," Dr. Kolb said, adding that the implication of close cultural ties between Troy and Anatolia was an attempt to please the project's Turkish

collaborators.

As the debate heated up, the University of Tübingen called a two-day conference in February in what it hoped would be a more collegial atmosphere. A crowd of 1,000 showed up. German radio broadcast the sessions, and tempers flared anew. A British scholar, Dr. J. David Hawkins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in London, left the meeting in shock. Dr. Hawkins told *The Times of London*, "The charges against Professor Korfmann are being made with a vehemence and a degree of personal vituperation that suggest that they are motivated by something other than an academic pursuit of truth." Dr. Rose said he found the bitterness inexplicable. "We all got along beautifully until a few years ago," he recalled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lb and Korfmann teams.

Dr. Korfmann said he had invited the critics to visit the ruins to see for themselves the evidence of a greater Troy. No one has showed up, he said. Excavations have continued without interruption, and with no change in the focus on the extended city. "Any time there's controversy, it forces you to sit down and reconsider your tentative conclusions," Dr. Rose said. "More evidence has been gathered. But there has been no cause to doubt or change our view of what the lower city of Troy was like in the Late Bronze Age."

Other Troy scholars are waiting on the sidelines to see who, Dr. Korfmann or Dr. Kolb, will be Achilles, the victor in Homer's Trojan War.

檀君동상 건립은 한국역사 進歩에의 逆行

김일훈 (의대 55년 졸)

현재 한국에서는 국제화와 민주화를 부르짖고 있는데도, 단군을 앞장세운 국수주의적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종교 망상가들에 의한 이단과 해괴망측한 사건들은 미국에도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런 운동을 주도하는 인물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우수한 지성인이라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실망케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단군 실존론과 檀君陵(단군릉) 건설은 고립된 독재국가로서 정치적 목적으로 조작된 것이라 일축할 수도 있겠으나 남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군 숭배 운동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대종교(단군을 교조로 받드는 종교)의 지도자며 고인이 된 A박사는 초대 문교부장관이며 독일 유학한 철학의 석학이다.

그는 국수주의 철학자답게 한국의 교육 기본법에 단군신화에 나오는 홍익인간이란 말을 넣은 장본인이며, 중국의 3민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항하듯 '일민주의' 사상 창안자이기도 하다.

자존자대한 철학자일수록 창시적 이념을 국민에게 과시하려 든다. 그는 북한에서 단군 조상의 뼈를 찾아 김일성 생존시 추진했던 거창한 단군릉 준공식에도 초대되어 참석한 위인이다. 만년(90고령)의 그가 했던 일이 몹시 못마땅했지만, 철학자의 망상이며 노망이라고 접어두려는 사람도 많은 줄 안다.

그런데 근래 K씨가 이끄는 '마고'를 찾아서라는 상고사 탐구문화 운동은 1만 4천년 전으로 소급하여 중앙 아시아의 낙원 '마고'에서 신화의 인물인 단군의 혈통을 찾아내겠다는 취지라니 문화운동이라기 보다는 황당무계한 역사 되찾기 운동이라 할 수 없다. K씨라면 저항시인이요 반 독재투사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던 영웅이며 지성인의 대표였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아무리 국수주의적 애국자라 해도 현재 망상의 길을 걷고 있고, 또 그의 유명세를 팔아 많은 군중을 잘 못 이끌고 있는데 대해, 양식 있는 국민의 실망은 너무나 클 줄 안다.

더구나 막대한 돈을 모금하여 3천6백개의 단군동상을 만들어 전국의 학교 문 앞에 세운다니 역사에의 역행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리고 그를 비판하는 역사가들의 반론에 그는 '식민사관의 오류'들이라고 비난해 버린다. 문학의

영역을 넘어서 현재 그는 한국 역사가들을 몽땅 무시하는 방약무인한 오만한 자가 되어버렸다니 슬픈 일이다.

왜곡된 역사는 왜곡을 낳는다. 일본의 황국사관(일본은 하늘이 보낸 천황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옛 일본 역사관)이 국수주의, 제국주의로 달려 일본이 패망한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수한 약소민족으로서 주변 강대국에 눌려서 살다보면, 우리를 돋보이게 하는 신화나 전설이 나올 수도 있다.

단군신화와 홍익인간이 바로 그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데 '흐뭇한 이야기'로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런데 곰이 사람이 되고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신화를 역사적 사실화하려는 노력, 그것도 전문가가 아닌 컬트(cult)적인 인물에 의해서 민중을 선동하여 왜곡된 사실을 인민재판식으로 호응을 얻어 역사를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면 이런 일은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체가 경계하고 저지해야 할 것이다.

단군신화는 고려 때 김일연이 쓴 '3국 유사'에 기록 되었다.

필자가 갖고 있는 1960년 조선 인민공화국 과학원 고전연구실 번역의 '3국 유사' 중 몇 줄을 인용해 본다.

"옛날 천국의 지배자인 환인이란 이가 있었다. 그의 아들 환웅이 자주적인 국가를 가져 볼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지망하더니 그 아버지(환인)가 아들의 뜻을 알고 아들에게 홍익인간을 위해 일하라 하면서 天符印(천부인) 3개를 주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다. 환웅은 3천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지금의 백두산) 꼭대기에 내려왔다."

이상이 신화에 나오는 단군조선의 조상의 天降親(천강설)이다. (이는 일본 천황족의 천강설과 동일하다. 일본의 아마테라스신(한국의 환인 격)은 그 자손에게 3종의 신기를 주어 다가지호 산꼭대기에 내려왔다).

내려 온 환웅이 신사에서 환웅천왕이 되어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상을 다스렸다고 하며 그러던 중 '때마침 곰 한마리와 범 한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으로 화하도록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속과 마늘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날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의 형체로 될 수 있으리라'고 했다. 곰은 이 말을 지켜 사람(여자)이 되었으나 범은 말을 지키지 못했다. 곰 계집은 혼인 할 자리가 없었으므로 매양 신단수 앞에서 어린애를 배도록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그녀(곰)와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그는 중국의 '요'임금이 즉위한 50년(주: BC 2,333년)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했으니 이것이 단군신화와 조선개국의 이야기다.

북조선에서 1959년 완성한 '3국 유사'번역의 서문에서 '3국 유사'는 정사가 아니고 '야사'라 했고 또 '원시시대를 포함한 우리 선조들의 고대생활 단면을 보여 주는 여러 가지 소박한 '신화와 전설'들이며——'라고 적고있다.

이 단군조선이 북조선 '김씨 왕조의 수도인 평양에 도읍하여 세운 나라며 중국이나 다른 외세의 영향받지 않은 순수한 주체적인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이북의 김일성에게는 이 이야기를 '신화'속에 묻어두기엔 너무나 귀한 기록이었다. 사실 인족 평양근교에 있던 소위 '단군릉'은 한국의 다른 역사유적들과 달리, 史書(사서)나 地誌(지지) 등에 언급된 바 없으며, 따라서 역사적 기록이 전혀 없는 막연한 묘소에 불과했다.

여기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북조선 사회과학원에서는, 평양의 김일성이 5천년 단군조선의 정통성을 이어 받은 인물임을 세계에 부각시키려던 노력이 단군릉 발굴사업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 아닌 평양이 조선의 영원한 수도임을 강조하려 들었다.

그래서 유도탄과 인공위성 제조로 국제적 주목을 끄는 그네들의 고급과학기술은 1993년 단군릉 무덤에서 많은 뼈를 찾아내어 '전자스핀 공명법'으로 뼈의 연대 측정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그 뼈의 주인공이 5천년전(BC 2,941년)의 단군 부부임이 판명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연대는 신화기록의 연대(B. C. 2,333년)보다 608년이나 더 오래된 연수로 조선의 개국은 단군에 의해서 만년 전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했다고 하나, 남한의 역사학자들은 아무도 믿으려 들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작위 사실은 남한의 단군 숭배자들에게는 가뭇에 단비와 같았으나 양식있는 국민에게 조소거리였다.

김씨 왕조에서는 수령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요 역사이며 모든 학

문은 수령님 사상을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북조선과학원은 단군릉 발굴보고서에 "종전에 신화적, 전설적 인물로 간주되어온 단군이 실재한 인물이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으며,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사와... 평양이 인류 발상지의 하나이며 조선민족의 발상지이고..... 조선민족은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임을 뚜렷이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현대인으로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귀신을 사람으로 탈바꿈하는 마술사의 말로만 들릴 따름이다.

김일성 명령으로 계획된 거대한 새 '단군릉'은 그가 죽은 몇 달 후인 1994년 10월 11일에 준공되었다. 수십만 평방미터에 279계단 위에 선 9층 돌무덤 '단군릉'을 현지 답사한 유홍주씨의 글을 빌리면 '한마디로 무지막지한 경지'라고 표현했다.

단군릉 사진과 비디오를 보면 너무나 웅장함에 눈을 의심할 정도다. 기아선상에 해매는 국민을 저버리고 진시황을 무색케 하는 건설공사는 쇼 효과로 봐서 유도탄, 원자탄 못지 않게 그네들 체제를 유지하는 수법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북한의 일은 그 체제와 함께 무시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민주국가인 남한의 단군 세력이다. 작고한 A박사는 북한의 단군릉 준공식에 참가했으며 그는 남한에서도 거대한 '단군성전 건설운동'을 벌이며 국민을 현혹케 한바있다.

그의 망언은 이어진다.

"일본에는 伊勢神宮(이세신궁)과 靖國神社(정국신사)가 있어 국민의식을 결합하는 주체역할을 하지만, 한국에는 그런 게 없다. 한국인은 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조상숭배를 기본으로 한 정신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그 조상의 근원인 단군성전을 원하고 있다.

일본에 신사가 도처에 있듯이 한국에서도 전국각지에 단군성전을 지어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반대한다지만 그들은 우리 단군에 등을 돌리고 마음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가있는 자들이다.

김일성도 조상숭배를 했으며 그는 선조가 내려온 백두산에서 독립운동 할 때 선조의 영혼이 도왔다. 남북통일은 단군에 돌아가는 일이다"고 역설했다.

A씨의 말은 최근 남북회담에서 북측이 주장하는 "단군이 실재인물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되었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으로서 남북통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과 같다.

왕년의 반공 반일 교육장관이 이제 와서 친북 친일학자로 돌변해 버렸으니 한심한 일이었다.

어거시 한가지 특기할 일은 군국주의에 희생됐던 일본국민은 2천6백6십년 전의 신무천황의 '건국신화'를 믿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있으며 그네들 역사교과서에도 상세한 기록을 피하고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북한에서는 국가적으로 5천년전의 '단군 개국설'을 선전하며, 남한에서도 단군을 민족주의의 고취에 이용하려드는 집단이 있음은 실로 시대역행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앞서 적은 바 K씨가 문화그룹을 만들어 모금한 돈으로 전국의 학교교문 앞에 단군 동상을 세운다는 계획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역사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는 유아독존적인 그의 태도는 도무지 제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여담이지만 국수주의자들이 일본의 옛 '황국사관'을 흉내 내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마다 동상'은 일제시대 일본 학교마다 '총효교육의 모범인'이라 할 수 있는 二宮尊德(이궁존덕)동상을 설치했던 일을 상기시킨다.

이궁존덕은 단군과 같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19세기 실존인물이었으며 지방정부의 유능한 재정으로 교육의 귀감이 되게끔 선전했던 것이다.

어찌하여 모든 것을 옛 제국주의 일본 모방만 하려드느니? 이것 또한 한심스러운 현실이다.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오에는 바로 K씨가 육중생활 할 때 그의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는 일본정부가 주는 최고상인 '문화훈장'을 거절한 바 있는데, "민주주의 보다 더 높은 권위나 가치관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거절이유였다.

즉 전쟁책임자인 천황이 주는 국수주의 색채의 문화훈장은 받을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왜 그들은 실패한 일본국수주의의 전철을 밟으며, 장한 일본인의 분을 받으려 하지는 않는가!

보도에 의하면 현재 한국에서는 단군동상 건립 반대 운동이 온 교계를 비롯한 일부 문화계에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일부 국수주의자들의 컬트 집단에 대해 크리스천 들 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참여가 아쉽다.

지식인이 앞장서서 조용한 국민들의 각성을 촉구하며 국민을 계몽하고 정부로 하여금 옳은 방향으로 협조하게끔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주 크리스천 헤럴드 에 게재됨)

자랑스런 2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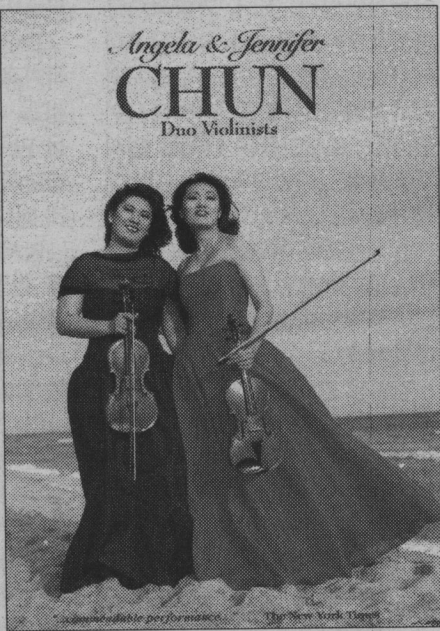
姉妹 Duo Violinists Angela(전명선) & Jennifer(전명진) Chun

지난 8월에 관악산의 후배들이 "신선한 和音의 충격"으로 미주 동문들의 친목과 화합에 기여하였지만, 미주내에도 자라나는 탁월한 음악도 자매를 둔 동문가족이 있어 여기 소개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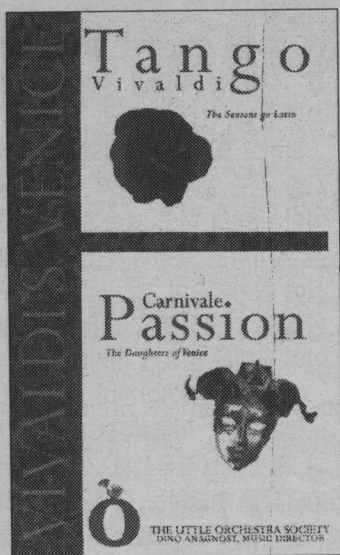
전웅상 동문(공대 52년 졸)의 두 자녀 Angela(전명선)와 Jennifer(전명진)가 지난 6월 5일(수요일) 저녁 7:30 뉴욕 Lincoln Center에서 뉴욕 Little Orchestra Society의 12회 정기연주회인 2002년 시즌 마지막 연주회가

될 Vivaldi Festival에 초청되어 Alice Tully Hall에서 성공적인 연주회를 가졌다. 세계적으로 유일한 자매 Duo Violinist인 이들은 Little Society Orchestra (지휘자 Dino Anagnost)와 협연으로 비발디의 두 대의 Violin을 위한 협주곡 3곡을 연주하였다. 이 곡들은 비발디가 베니스에서 여제자들을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곡들인데, Carnivale Passion "The Daughters of Venice"란 연주회명으로 바로크 무용까지 결집된 화려하고 흥미로운 무대가 되었으며 기대되어 5월 말로 그 입장권이 매진되었었다. 이번에 연주한 곡명은 Concerto in D minor RV 514, Concerto in A minor RV 523 그리고 Concerto in D major RV 549 이었다.

이 두 자매는 일찌기 '87년 Juillard 음대 재학 당시 이미 뉴욕 국제콩쿨대상을 수상하면서 카네기홀에 등단하였으며, 세계 3대 음악축제인 뉴욕의 "Mostly Mozart", 시카고의 Ravinia Festival, 오스트리아의 "Salzburg Festival"등에 초청되어 연주를 하였다. 특히 '97년에는 워싱턴, DC의 Kennedy Center에서 레너드 슬라킨 지휘로 National Symphony와 협연하고, 영국 마가렛 대처수상의 초청으로 런던의 Royal Opera House에서 Bach 100주년 기념음악회에서 London Bach Orchestra와 협연하였고, 중국의 Pro imucici와 홍콩, 상하이 베이징 등에서 협연하였다. 특히 모국에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의 초청으로 KBS 오케스트라 협연하였고 또 서울시향과의 협연, 국



제 관광 EXPO 초청 연주하였다. 98년에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윤이상씨가 직접 작곡하여 보내준 곡을 연주 CD(삼성 클래식)로 출



시했으며, 이 곡은 남북한 UN 동시가입을 기념하여 두 자매가 UN Hall에서 연주하여, 한국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음악대사의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지휘자 주빈메타가 줄리아드 재학 당시



한국이 낳은 또 하나의 별이라며 발탁한 세계 唯一의 Duo Violinists인 전 자매는 곧 5개의 음반을 낼 계획이며, 올 여름에는 프랑스 Radio National Orchestra와 Salzburg에서 연주할 계획이다.

한국에서 나온 CD "환상곡 작품집"(Piece of Fantasy)(삼성뮤직)은 작곡가 윤이상(1917-95)이 두 자매를 위해 작곡한 패초 판타지오소와 유엔홀에서 연주한 "2개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티나"를 비롯하여 환상적의 듀오 바이올린 연주로 한국에서 호평을 받았다. 두 자매의 연주 방식은 각자 개성이 뚜렷하다. 즉 언니 Angela(명선)은 활달한 성격에 이지적인 음색과 낮은 음역을 발산하며, 조용한 성격의 동생 Jennifer(명진)는 민감한 음색, 감성적인 연주로 대조를 이룬다. 두 자매는 5세부터 바이올린을 시작하여 예원중학 재학당시 도미하여 줄리아드 음대에서 도도시 달레이, 마가렛 파다 교수로부터 사사받았으며, 70년대 말부터 듀오 연주자로 활동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두 자매의 부친은 전웅상 동문인데, 그는 52년 공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대한석유공사를 창설, 한국가스안전공사 초대회장을 역임하였다. 부인 김복희 여사(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졸)와의 슬하에 두 자매 외에 막내딸 Christie와 아들 Steven 등 네명을 자녀를 두고 있다. 막내딸인 Christie도 두 언니 못지않은 才媛으로 줄리아드 출신의 피아니스트이고, 외아들 Steven은 University of Washington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 Cornell 의대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마친 후 현재 Sarasota Memorial Hospital(Sarasota, FL 소재)에서 Pain Care Center Director 겸 Chairman으로 일하고 있다.

전웅상 동문 연락처 New York (212)757-2340 또는 Florida (941)359-9637

電子 振動과 人類文化

정정수(의대 62년 졸)



우리가 사는 태양계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리현상, 자연법칙(Law of Nature)은 중력(Gravity)과 전자진동이다. 방대한 양의 수소분자가 모인 구름이 거대한 중력에 끌려 서로 충돌하면서 기체가 액체화되어 프라스카(Plasma)가 되고 내부에서 핵융합반응으로 수소분자가 헬륨으로 되면서 잃는 질량(Mass)은 방대한 에너지(E=MC²)는 빛의 속도로 바뀌면서 전자진동에서 8분여의 진공공간을 거쳐 지구에 도달하는데 이 태양자장파가 우리 모든 지구에너지의 源泉이다.

전자가 진동하면 자장파가 생기고 자장파가 진동하면 전자파가 생기고 해서 마치 물의 파도, 소리 음파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전자파라고 하고 일초에 지구를 일곱번 반을 도는 속도로 진공에 상관없이 전달되니 이것이 우리 Cell Phone으로 지구 어느 구석과도 통화할 수 있는 원리이다. 식물은 이 전자파의 에너지로 광합성을 해서 녹말 등 에너지를 저장하면 각종 동물들은 그것을 먹어 에너지를 축적해서 쓰고 弱肉強食의 생태계(Ecosystem)는 인간을 정점으로 여러 수억년 동안 식물, 동물이 썩어 매장되어 있는 생성된 석탄과 석유를 뽑아 쓰다가 하면 수력으로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어 스코 우라늄등 동위원소를 핵분열해서 원자력을 쓴다. 이 전자파동이 전자파를 만드는 원리를 모를 때는 물레방아, 방앗간, 제재소 등을 폭포 옆에 지어 쓰다가 이 전자파동은 쉽게 전도체를 통해 이동시킬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하자 전세계를르 전자파동 생산원전(발전소)과 전기망 연결(Electric Grid, Power Grid)을 만들어 가정, 공장, 컴퓨터, 부엌, 텔레비전, 전기열차 등 모든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많은 손실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뉴턴이 만유인력법칙을 발견해서 지상, 공중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이 중력에 의해 시계처럼 정확히 움직이는 물리현상(Clockwise Physics)을 발견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상대성원리로서 극한상황에서 설명하기 힘든 물리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양자물리(Quantum Physics)가 나와서 에너지 궤도로 구성되어 있는 원자 전자선에서는 전자의 궤도변경으로 생기는 여러 현상을 설명했는데 원자에서는 연속성(Continuous)이 아니고 전자가 다른 에너지 궤도로 뛰어올랐다가 내리는 현상으로 한 계단씩 뛰었다가 한계단씩 내리는 불연속성, 즉 한 묶음씩 에너지가 이동하는 현상을 Quantum Leap이라고 하고 보통물리현상과 다른점은 측정하는 대상이 전자라는 소립자이므로 측정하는 기구도 전자 입자를 쓰니 측정하는 전자입자가 관측입자를 때릴 때는 이미 그 입자는 거기에서 움직여

판대로 가버렸으니 정확한 위치를 짚 수 없다는 것이다(Uncertainty Principle).

위는 자연법칙의 일부이고 인문법칙은 어떠한가. 인간이 동물의 모든 생리 기능 육체구조를 지녔지만 두뇌가 발달해서 수십만년동안 동물들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기하급수적인 과학기술발전으로 이제는 인류가 미치는 영향이 자연이 미치는 영향보다 이 태양계 지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었다. 100 Billion이 넘는 신경세포(Neuron)들이 서로 연결되어 작용하는 인간 사고과정(Thinking Process)을 현대 신경생리학에서 파헤치고 있지만 극소수 현상만이 알려지고 있고 많은 학자들은 수억만개의 지구와 같은 위성(Planet)이 있는 우주에는 우리처럼 신경세포로 된 지성이 아니라 plastic chip으로 된 지능이 존재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수소 분자와 산소 한분자가 합쳐서 물이되면 수소와 산소가 지닌 성격보다 훨씬 고등한 성격을 지닌 물이라는 물질로 비약하는 현상(Emergent Phenomenon)으로 우리 복잡한 정신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학자도 있다. 이런 눈부신 물리적인 발전에 비해 人文분야의 발전은 너무도 한심한 지경에 있는 것 같다. 역사를 통한 모든 철학자, 사상가들의 논쟁과 학설들. 세계 각 곳에서 기원된 종교문명들의 인류구원의 염원에도 그 동안 수십차례 종파간 민족간의 전쟁과 몇 차례 세계대전, 9.11 사태를 저지르고, 팔레스타인 구민 비참성, 아프리카 내전, 기아, 에이즈 참상, 심각한 환경파괴 등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삼는 서양사상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양의 노장사상에 매혹되어 열심히 읽고 불교의 심오한 사상을 몸소 실천하면서 살고 계시는 법정스님의 책을 한권도 빼먹지 않고 탐독하고 즐기고 있으면서 나 자신의 실생활에는 현대문명의 이기를 하나도 포기 않고 열심히 추구하고 즐기면서도, 방관자인 것처럼 냐두리만 가끔 하고 있는 내 위선을 스스로 몸소 느끼면서 황혼인생을 오늘도 살고 있다.

美國에서 살아보니

北韓 동포에게 花卉 球根類를 보냅니다

허윤행 (사범대 67년 입, 시애틀 지역 동창회장)

1. COREA/ KOREA

우리나라의 英文 명칭은 사전에서 찾아보면 C로도 나오고, K로도 나온다. 원래는 C였는데 간교한 일본인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하면서 J자뒤로 놓기위해 K로 바꿨다는 것이 정설이다. 지난 World Cup 때 붉은 악마들이 응원하는 플래카드에 C로 쓴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제는 광복 50여년이 지났으니 우리도 우리이름을 찾아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모든 매체들이 C로 고쳐쓰고 정부도 대외적으로 Republic of Corea로 선포해서 고쳐 적게 한다면 만시지탄은 있으나 체면이 서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발음은 같고 spelling만 고치는 것이다. 그리 어려운 것도 없고 또 이내 Latin계인 프랑스, 스페인, 루마니아,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Corea로 쓰고 있으며 모든 중남미 국가가 Corea로 쓰고 있으니 단지 영어권에서만 K를 C로 바꾸는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국호부터 내 것을 찾아야겠다.

2. Ugly Corea / Ugly American

미국을 잘 모르는 모든 세계인들은 미국인은 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으며 그야말로 선진국민답게 행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다. 웬걸, 미국에 와서보니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눈속임도 많고 거짓 투성이며, 남의 것을 슬쩍 슬쩍 잘도 집어간다. 단지 남이 보는 앞에서만 안 그런척 할 뿐이다. 각 호텔, 모텔에 비치된 수건을 갖고 가는 것은 보통이고 보지 않는다고 소형냉장고,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 심지어는 못질된 헤어드라이어, 의자까지도 싹고 달아난다. 특히 현찰 내고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고 흑인들이 들릴 경우 더 많이 그런 일이 벌어진다. 범죄가 없는 이곳을 외부인들이 와서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겠다.

그런가하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갑자기 미국인(백인)이 된 양 의기 양양해하는 Corean은 우리를 딱하게 한다. 집에 가면 한식과 한국어 방송(라디오, TV)을 트는 등 순 한국식으로 살면서 마치 미국인양 집에 오는 사람들에게 선약(appointment)을 하고 오라고 강요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인정이 메말랐다고 할까? 한참 경제가 호황으로 10여년을 끌어온 Clinton 대통령시절 노

인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한인 노인들이 Clinton을 아들인양 손자인양 자랑삼아 그 아들이 또는 그 손자녀석이 효자(손)이어서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하고 있노라며 좋아하던 노인들이 있었는데, 저녁이면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를 다 불러다가 곰탕 끓이고, 갈비 굽고 전기를 흥청망청 써서 몇 시간이고 낭비를 해대니 정부에서 대주는 무료라고 하나, 계량기상으로는 한인 노인 아파트에 전기 사용료가 여타 국민들의 그것보다 몇 배가 더 올라간다는 사실은 왜 모르는가 말이다. 식당에서 자기네 아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끔찍하게 해도 아이 기 죽일까봐 그대로 내버려두는 젊은 부모들이 있는데 어디서 배운 교육이 그 모양이 됐는지 참 한심스럽다. 나중에 자기애들이 망나니(spoiled)가 된다는 사실을 그렇게 모를까? 요즘은 식당뿐만 아니라 한인이 자주 가는 도서관에서까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직원이 와서 제재를 시켜도 안 듣는다고 하니 Ugly Corean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어느 한 business가 잘되면 와 몰려들어 너 죽고 나 살기로 경쟁을 벌여 서로 다 망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니 얼마나 풀볼건이며, 2세, 3세로 흘러가면 그런 장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걱정된다.

한국에서 새로운 한인들을 등쳐먹는 사기꾼의 얘기는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런데 형제자매 지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한인사회이다. 누구하나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고 하면 그 자리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착각하고 투서질로 그 자리를 못 지키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닌가?

미국인 업소에서는 그러지 못하면서 한인 업소에서는 무엇인가 꼭 티를 내려고 하는 한인들. 특히 돈 좀 있다고 어깨에 힘주면서 금연석에서 담배를 피우려하지 않나, 또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아 waiter, waitress 에게 무안을 주거나 해서 꼭 손해를 입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 어느 노부부가 잘살던 한국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국제 결혼한 딸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왔다고 한다. 그런데 시장을 볼 때마다 사위는 돈을 내려 들지 않아서 몇 달이고 장인이 돈을 댔다는 것이다. 그



러자 하루는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낼 수 없으니 그리 알고 했더니 이 백인 사위녀석이 어디서 불펜을 갖고 와서 자기 딸 얼굴이고 몸이고 마구 굶타는 것이다. 간신히 뜯어말리고 이런 녀석하고 무얼 사느냐고 이혼하라고 하니 딸은 세뇌가 되었는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따로 나가 사는 노부부도 있다고 한다. 그 사위는 직장도 없는 고등실업자였던 것이다. 자기 마누라가 한국인이라고 하면서 한국인을 비하하고 한국인들 아래로 내려다보려고 하는 백인. 흑인 남편들은 무엇인가? 교육이 잘 못돼도 한참 잘 못된 것이다. 그런가하면 한국인 부인에게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백인 흑인들도 가끔은 보게된다.

3. 영어만 배워줄 것인가? 한국어 포함 몇 개 국어를 동시에 배워줄 것인가?

1.5세, 2세들에게 영어만 하거나 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한국어를 꼭 해야 한다는 가정이 있고, 아이가 스페인어, 불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가정에서 하게끔 부모가 유도해 줌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종종 본다. L씨는 어머니가 전형적으로 American Style로 영어만 하라 하여 지금은 소설도 쓰고 대학에서 교편도 잡고 있다. 그야말로 主流社會를 뚫고 들어가는 가장 첨경을 택한 경우이다.

K씨는 1.5세로서 영어도 우리말로 스페인어도 유창하게 하고 쓰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 사업을 잘 키워가고 있고 주위에서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는 창조주로부터 연령별로 다른 특기(talent)를 받아 태어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젖먹이 때부터 11살까지는 조그마한 머리이지만 언어만은 몇 가지를 동시에 접해도 소화해 낼 수 있는 힘을 타고났으며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이용하면 5-6개국어는 쉽게 배울 수 있으며 그로부터 오는 성취감은 무한대에 가까울 것이다. 이는 언어학자들의 얘기이다. 우리 주변에서 보자. 우선 매일 영어를 접하게 되고, 또 부모나 방송 비디오를 통해 우리

말을 접하게 된다. 조금 관심을 기울여주면 방송에서 스페인어, 불란서어 등을 들을 수 있고 여름 방학 때 캐나다에 가서 한 3개월씩만 불어를 하고 오고, 또 스페인어도 그런 식으로 멕시코에 가서 하고 온다면 4개 국어를 접하는 것이 되며 거기다 일본어나 중국어 또는 독어 등을 하나쯤 더하면 5개 국어까지 가능하게 된다. 그만큼 머리를 쓰면 쓸수록 더 빠른 회전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아기들을 언어의 천재로 키워보자.

4. 9.11과 인구이동

9.11이 일어난지도 1년 1개월이 지나가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미국인들이 느낀 바 큰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든 산업이 여러 가지 영향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언제 정상 궤도로 들어설지는 아무도 모르며 또, 이라크와의 전쟁이 터진다면 전산업은 군수산업을 제외하고 모두 위축될 것이며, 특히 빈 라덴의 경고 테이프 "미 경제 시설 테러"라고 해서 방영 됐더니 큰 도시의 경제시설물들은 큰 위협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러한 위협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조용하게 움직이는 세대들이 있으니 소위 은퇴자 그룹들이다. 9.11이전부터 이곳은 은퇴자 천국으로 소문난 곳이지만 9.11 이후 많은 은퇴자들이 이곳을 답사해보고 부동산을 구입하여 집을 짓고 상가를 짓고 몰려들고 있다. 주로 백인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은퇴자들도 상당수 이동중이다. 대략 연평균 20%이상의 인구 이동이 있는 것 같으니 5년후면 지금 인구의 배가된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는 더 빨리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서울대 동문분들도 꽤 여러분이 올 계획으로 움직이고 있다. 멀리 한국에서 까지 이곳을 답사하고 간 분들이 계신다. 내 고국과 비슷한 곳을 찾는 심정은 누구나 같은가 보다.

5. 북한 동포에게 화훼(花卉) 구근류(球根類)를

지난 7월 이후 김정일 위원장이 개방정책을 도입하고 시장경제도 전환하기 위하여 각종 감쪽소를 잘도 펼치고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식량사정은 최악이어서 여기저기 구걸행각을 하느라 아주 바쁘고 또 힘에 부쳐한다. 양빈이라는 사기꾼 비슷한 사람을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으로 임명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상전인 중국이 눈을 부라리고 있어 그도 물거품이 될 운명이다. 기왕에 자본주의를 도입할 바에는 보다 더 농촌의 우리 동포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려면 하는 생각이다. 양빈이 온실을 짓는 것으로 농촌살리기 운동

을 해서 쉽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 양빈의 국적이 있는 네덜란드산보다 더 좋은 겨울철 농사용 화훼구근류를 이북 전역에 보급하여 농한기에 일거리로 주고 또 수입도 올리게 하여 이북 경제를 연간 2-30%씩만 성장시킨다고 가정하면 이것으로 김정일 위원장은 또 한번의 hit을 날릴 것이다. 겨울철 구근류는 가뭄도 날 염려없고 추위에 얼어 죽을 염려도 없으며 수해를 걱정할 필요도 없으며 오로지 일손을 더하고 거름이나 더 뿌려주면 여름철(봄-가을)농사보다 더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될 것이다. 구근류 종류로는 수선화, 튜립, 아이리스, 글라디올라스, 달리아 등을 들을 수 있으며 한국산 꽃들이 사계절이 뚜렷하여 네덜란드산보다 시세도 더 나가고 더 오래 핀다고 하니 이제 좀 살만하게 된 중국의 각 호텔이나 부호들 집에 또 한국이나 일본으로 수출하여 외화벌이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로 이루어 졌다고 하여 생색내기도 좋을 것이다. 단 아직도 이 분야가 꺾꺾할 터이니 이북에서 넘어온 서울대 동문분들이 앞장서서 책도 사 보내고 구근류도 사 보내서 서울대의 힘이 이북 동포에게도 미치게끔 노력해 보아야겠다. 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대 총동창회에 북한동포담당 부서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 아니면 카톨릭교나 개신교를 통해 전달하면 될 것이다. 먼 장래에 우리 서울대학교 동문이 될 2세, 3세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동포애를 나눠주자. 그러나 금년이다 가고 있으니 천상 내년도 사업으로 돌려야 될 것이다.

▶입권택 名作 시카고 감상회
 2일 (토) 만다라(오후 6시 30분)
 불의 딸(오후 8시 30분)
 3일 (일) 태백산맥(오후 1시)
 4일 (월) 길소뜸 (오후 6시 30분)
 씨받이 (오후 8시 30분)
 5일 (화)티켓 (오후 6시 30분)
 야마다 (오후 8시 30분)
 6일 (수) 장군의 아들 (오후 6시 30분)
 장군의 아들2 (오후 6시 30분)
 7일 (목) 아제 아제 바라아제 (오후 6시 30분)
 서편제 (오후 8시 30분)
 9일 (토) 취화선(오후 9시)
 10일 (일) 춘향전 (오후 7시)
 ▶장소: Facets Cinematheque (1517 W. Fullerton, Chicago) 전화 773-281-4114
 ▶입장권: 1일당 5불 (현장판매 6불)
 ▶문의처: 시카고 한국일보 총무국 (773-463-1050)
 ▶입감독과의 대화: 일시-9일 오후 3시 장소-Harold Washington Library Center (400 S. State St. Chicago) 문의-312-747-4999

音樂會로 이어진 40년

이건미 (문리대 65년졸)

문리대 다니던 남학생이 고등학교 선배들이 하던 목요음악감상회를 맡아서 꾸려나갔다. 서울 시청역 개풍빌딩의 미공보원 한 방에 한 주 한번씩 모이는 모임으로 안국동에 있는 친구 집에서 스테레오 기구를 빌려 지게에 실어 개풍빌딩까지 옮겨가며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레코드는 시내의 음악 감상실에서 빌려 대기도하고, 해설을 해줄 분으로 경희대의 이상삼 교수를 비롯해 서울 음대의 첼로 교수 전봉초씨, 서울 시립 교향악단의 김만복 지휘자들을 초청했었다고 한다.

내가 같은 학교에 들어간 1961년에 하루는 이 학생의 초청에 응해서 그 모임에 가봤었다. 그 때 해설하는 분은 가고파를 작곡하신 김동진씨였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섞여있는 모임이었는데 재미있었다. 모임 뒤에 이 학생이 그때 마침 세종회관에서 공연중인 푸치니의 토스카 (영화판)를 보러 가자고해서 우리의 데이트가 시작됐다.

그런지 칠년만에 우리는 결혼을 했고 사흘만에 미국으로 옮겨왔다. 둘이 같은 학교의 대학원에 입학이 돼서 나는 철학을, 그는 사회학을 계속 공부했다. 뉴 욕에서 420 마일떨어져있는 버팔로는 서울내기한테는 너무도 적적하고 눈 많이 오는 동네였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가까운데 있는 큰 도시들을 자주 방문했었다. 토론토와 몬트리얼과 뉴 욕이 주 대상이었다. 여러 음악회 중에서 특히 생각나는 것은 토론토 메씨홀에서의 칼라스와 디 스티파노의 이중창, 뉴 욕 카네기 홀에서의 카리안과 베르린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말러의 교향곡 9번, 같은 카네기 홀에서의 솔티와 쉬카고 교향악단의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은 주옥같은 추억이다. 이미 지나간 사람들로 다시는 그들의 연주를 볼 수 없어 섭섭하다.

한편 여름의 짜라토키에선 유진 오르만디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를, 탱글우드에선 오자와와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즐길 수 있었다. 작년 탱글우드에서의 로스트로포비치가 연주하던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이 생각난다. 작곡자가 연주자를 위해 쓴 작품이었음을 되새기며 들을 때의 감명은 대단했다. 한편 두 애들과 한 봄에 같이 본 마주어와 뉴 욕 필하모닉의 말러의 교향곡 4번도 기억에 남는 연주였다.

특히 뉴 욕은 수많은 음악회가 있어서 좋았다. 그 중에서도 말로만 듣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있어서 더 좋았다. 서울에 있을 때부터 한 번 가봤으면 하던 세계 정상급의 오페라 하우스가 바로 420마일 떨어져 있었다. 이 매혹에 못이긴 우리의 목마름은 수차례의 성지순례로 만족하지 못했다. 금

요일 새벽에 떠나 그날 저녁 공연을 보고 토요일 마티네와 저녁 공연을 본 뒤 밤 11시에 집으로 향하면 일요일 아침 날이 밝을 때 집에 도착하는 강행군이였다. 이렇기 위해선 몇 달전부터 표를 사두고 잠잘 곳을 예약하는 등 준비가 철저해야했다. 한 주말에 세 공연 표를 다 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두 공연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만했다. 가끔씩 친구들과 동행할 때도 있었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뉴 욕시 교외로 옮겨 살아 온지 어느새 26년. 그동안 린컨 센터와 카네기 홀에서 본 공연의 숫자도 꽤나 많아졌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본 발레진이 제작한 차이코프스키의 호도까기 인형은 아직도 철마다 계속되고 있다. 1999년 설날 그룹 밤엔 세빌리아의 이발사를 보며 즐거워했고, 2000년 설날 그룹 밤엔 마주어와 뉴 욕 필하모닉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을 연주하는데서 표를 10월부터 마련해 기다리고 있었으나 당일엔 마칩 폭풍설이 있어서 못간 아쉬움이 아직도 남았다. 지난 설날 그룹엔 푸치니의 라보렐을 봤다. 이 작품은 볼 때마다 가난했던 젊은 날을 연상시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든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2001-2002년 시즌은 다른 해에 비해 흐뭇했다. 오페라란 개인 연주가 아니며 반드시 이름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뛰어난 공연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신인들이라도 서로 호흡이 잘 맞고 열심히 하며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와 연결을 잘 하면 관중을 휘몰고 들어가 많은 박수를 받는 뜨거운 공연이 된다. 얘기 줄거리라야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만 작곡자의 의도를 필수록 완벽하게 표현하려고 애쓰는 가수과 연주자의 태도가 좋은 공연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다. 작년 9월부터 올 5월까지 계속된 이 시즌엔 한 달에 한 번씩 가 봤는데 대부분의 공연이 거의 완벽에 가까워서 우리는 노래로 표현하는 대화와 얘기 줄거리에 흠뻑 말려들어 갔었다. 뭐니 뭐니해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오페라단이 아닌가?

우리는 이탈리아 오페라를 좋아한다. 특히 라 트라비아타나 리골레토나 일트로바토레는 감정을 휩싸고 몰려와서 베르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번쩍 들었다 내렸다 몇번씩한다. 수 없이 봐온 푸치니의 라 보렐과 토스카는 항상 처음 보는 것 같다. 같은 작품, 같은 제작, 같은 공연이라도 볼 때마다 다르게 느껴지니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못본 공연이 너무도 많다. 지난 시즌엔 이런 수치를 극복하려고 몇 개의 새 레퍼토리를 뽑았다. 그런데 지난 4월에 마주친 버그의 룰루는 정말 초 현대적이라고도 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우선 애



기가 제 멋대로 퍼져나가는데 일관성이 없다. 무대는 막마다 항상 자그만 방이어서 시각적인 자극이 없었다. 아리아도 제대로 있지 않았고 설렘없이 계속되는 음악은 박수를 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멜로디는 현대식 반음을 구사하는지라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세막중의 두막이 끝나자 남편이 그만 가자고해서 놀랐고 반가워서 얼른 나왔다. 그런 센트럴의 오이스터 바 식당에 가서 가진 저녁은 우리가 가끔씩 갖는 뉴 욕에서의 데이트의 연장으로 시달린 두막 세시간을 잊게 해 주었다.

9월 23일에 막을 여는 2002-2003년 시즌에는 여덟 공연의 표를 마련해 두었다. 우리의 첫 방문은 푸치니의 튜란도트인데 흥해경이 나온다. 흥씨가 파바로티와 같이 공연하던 이 작품을 2년전에 본 적이 있다. 언제나 봐도 좋은 오페라들은 우리 둘이 만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계기를 주었듯 지금도 중요한 생활의 일부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계속 해서 들려준다.



취화선(醉畫仙) · 취아선(醉我仙)

李泰相(문리대 59년졸)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은 최근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과거가 없는 남자(The Man Without a Past)'로 심사위원회 대상을 받은 핀란드 감독 아키 카우리스마키의 아마도 역사상 가장 짧고 솔직한 수상소감이다. 이번 제 55회 칸 영화제에선 우리 나라 임권택 감독이 '취화선(醉畫仙)'으로 감독상을 수상했다.

요즘 중년, 노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젊은 세대 대학생들까지 각종 스트레스로 우울증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앞에 인용한 말대로 우리 모두 무엇보다 각자 자기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취화선'이 머슴 출신으로 그림을 잘 그려 궁정화가로 출세하지만 다박차고 다란 그림에 신들려 방랑하는 환장이 신선이 된 조선조 말 장승업(張承業)의 이야기라면 우리도 각자대로 자기 자신에게 신들려 '취아선(醉我仙)'이 되어보자는 말이다.

자고로 '글'이란 그림이 준 말, 절절한 숨 기(氣)가 절로 응축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그렇게 '그리는 그림이나 글'이란 '인생'이란 종이나 화폭에 '살'이란 붓으로 '사랑'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로 쓰고 그리는 것이 아닐런지...

'사랑', '죽음', '가슴', '눈물' 그리고 '안녕'이란 다섯 단어만 알면 오페라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 누군가가 일찌기 말했듯이 진정코 '노래'란 목

소리 손 짓 발짓으로 부르는 것이라 기보다 냇소리 몸짓 마음짓으로 '가슴뛰는 대로 부르는 것'이라면 이것은 미치도록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그리고 쓰는 '글'과 '그림' 아니 '사랑의 숨찬' '숨소리' 곧 '삶의 노래'이리라.

소년시절 나는 코스모스가 좋았다. 이유도 없이 그저 좋았다. 청초한 그 모습과 아리따운 그 자태 때문이었을까. 보기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고 얼굴이 달아올랐다.

코스모스의 꽃말이 소녀의 순정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청년이 된 나는 코스모스를 사랑하게 되었다. 병어리 냉기슴 앓듯 남모르는 열병 코스모스 상사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나는 코스모스 같은 소녀를 찾아 나섰다. 미움과 모멸의 카오스적 혼돈과 혼란 속에서도 억지와 무리가 없는 사랑의 낙원을 찾아.

언제 어디서나 코스모스 같은 아가씨가 눈에 띄면 만고의 그리움 솟구치는 나의 사랑을 고백했다.

어찌면 타고난 태고적 향수에 젖어 정처 없이 떠돌아 방황하던 시절 어린 나이에 사랑의 순례자가 된 나로서는 독선과 위선, 고정관념과 편견, 고집불통의 아집으로 화석화된 어른들의 세계가 보기 싫어 아름다운 우주 코스모스 속에 순수한 사랑으로 새로 태어나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도 나는 사랑할 수가 없었다.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한.

이제 바람 한 점에도 코스모스 출렁이는 바다 뒀은 다 늙어 깨우침에 아직도 내게 미련의 노래 남아 있어 서일까.

하기는 사람마다 다 제 잘난 멋과 맛에 산다고 하는데 그도 그럴 만한 것 같다. 이세상에 태어나기 여러 달 전부터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치열한 생존 경쟁 끝에 엄마 뱃속에 수태했으며 태어난 후 지금껏 풍진 세계 그야말로 고해(苦海)와 같은 인생풍파 다 겪으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영어로 말하자면 Sink or Swim)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용하고 장한 일 아니더냐.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먼저 감축할 수밖에.

그렇다 해도 나는 어려서부터 유달리 '수선화 피우는 낙'으로 살아왔나 보다...연못 물 속에 비친 제 모습에 반한 나머지 그 연못에 빠져 죽은 미소년이 그 연못가에 수선화로 피어났다는 전설처럼.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수선화라 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 코스모스가 가을에 가는 곳마다 길가에 하늘하늘 하늘에 피도록 부지런히 수선화부터 이 지구 땅덩어리 연못가에 많이 많이 피고 지고 해야할런지 모를 일이다.

美國時論

北韓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

지미 카터

ATLANTA — In June 1994, the North Koreans had expelled inspector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nd were threatening to process spent fuel - from a graphite-moderated nuclear reactor in Yongbyon - into plutonium. It was clear that war might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as

being urged by the United States to impose severe sanctions on North Korea. There was a general consensus, shared by American military experts, that the combined forces of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uld defeat North Korea with overwhelming power. But it was almost inevitable that severe damage would be done to Seoul and much of the fighting would take place in its streets. The American military commander in South Korea estimated that total casualties would exceed those of the Korean War.

It wa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reject any direct talks with North Korean leaders. Responding to a standing invitation from North Korean President Kim Il Sung and with the approval of President Bill Clinton, I went to Pyongyang and helped to secure an agreement that North Korea would cease its nuclear program at Yongbyon and permit I.A.E.A. inspectors to return to the site to assure that the spent fuel was not reprocessed. In return,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subsequently assured the North Koreans that there would be no nuclear threat to them, that a supply of fuel oil would be provided to replace the power lost by terminating the Yongbyon nuclear program and that two modern nuclear plants would also be provided, with their fuel supplies to be

monitored by international inspectors.

Since then, the spent fuel at Yongbyon has continued to be monitored, but the two replacement nuclear plants have not been built and the United States has assumed what the North Koreans consider a belligerent attitude toward them. More seriously, Pyongyang has announced that it has acquired a source of enriched uranium and is developing the capability to produce nuclear weapons. If true, this is a gross violation of previous agreements and a threat to peace in the reg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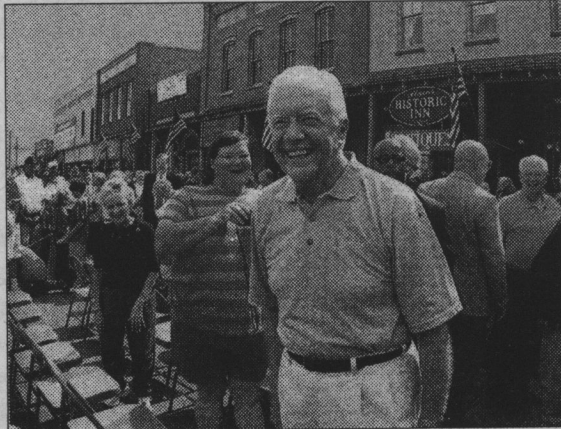
It is not clear if the North Koreans are bluffing, actually have a nuclear program or have yet produced any nuclear explosives. It is clear that the world community cannot permit North Korea to develop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South Korea and Japan are calling for continuing negotiations. China's position has not yet been clarified. The United States, in effect, faces a choice very similar to that in 1994: whether to move toward a military confrontation or accept North Korea's offer to resolve the nuclear problem based on the easing of tension between our two countries.

Kim Il Sung promised me that he would have full diplomatic discussions with Kim Young Sam, then president of South Korea, and arrangements were made for such a summit meeting. The North Korean leader died shortly thereafter. His son, Kim Jong Il, and President Kim Dae Jung of South Korea later arranged talks. Some progress has been made between the North Koreans and both Japan and South Korea in recent months, but similar efforts by President Clinton terminated with his administration.

What is needed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 end

<투고요청>: 동문여러분! 언론보도에서 아시아시피 北韓은 최근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보는 일반출판물같이 '보고 버리는' 紙面이 아니고 우리 동문들께서 숙고하여 쓰신 글을 바탕으로 '읽고 토론하는' 知性人의 友情을 글로써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새로운 變化를 모색하며 고민 속에 있는 北韓의 變化에 대한 분석과 統一 祖國의 앞날을 내다보는 건설적인 自主外交의 방안에 대한 동문여러분들의 玉稿를 기다리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한다.



to more than a half-century of "armistice" and the consummation of a comprehensive and permanent peace agreement. The success of strong diplomacy is still a possibility, with it being crucial that the United States play a constructive role. The framework for an agreement still exists and includes some elements that must be confirmed by mutual actions combined with unimpeded international inspections. First, North Korea should forgo any nuclear weapons program and the two Koreas should proceed with good-faith talks. The United States may then move toward normal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 basic premises of the agreed framework of 1994 must be honored, with North Korea, Japan,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China cooperating. Finally, international tensions should be reduced through step-by-step demilitarization on the border between the two Koreas.

There is, of course, still the option of war instead of peace talks. It would be devastating and probably unnecessary. (원제는 'Engaging North Korea'이며 필자는 이번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전 미국 대통령 Jimmy Carter이고, 뉴욕타임즈 2002년 10월 27일자에서 전재함, Jimmy Carter, the 39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s chairman of the Carter Cen-

ter in Atlanta and won the Nobel Peace Prize this year.)

<北韓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자료>

- #1 북한 핵관련 일지
 - ▲ 1962년 1월 구 소련 지원으로 IRT-2000형 원자로 건설
 - ▲ 1974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가입
 - ▲ 1977년 9월 IAEA와 연구용 원자로 안전조치협정 체결
 - ▲ 1991년 12월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채택
 - ▲ 1992년 1월 IAEA와 전면 안전조치협정 서명
 - ▲ 5월 핵 관련 최초보고서 IAEA에 제출(재처리한 90g 플루토늄 신고)
 - ▲ 12월 핵폐기물 보관 의심시설 한 곳에 대해 유엔 사찰 허용
 - ▲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 (NPT) 탈퇴 선언
 - ▲ 1994년 10월 미국과 제네바 핵합의 체결
 - ▲ 1995년 12월 한반도에너지 개발기구(KEEDO)와 경수로 공급 협정 체결
 - ▲ 2000년 2월 경수로 본공사 착공
 - ▲ 2002년 8월 북 외무성 담화, "제네바 합의문 파기 갈림길"
 - ▲ 10월 3-5일 제임스 켈리 특사 방북
 - 경수로 70% 부담...현재 공정률 25%
- #2 對北 중유 공급 현황
 - 미국은 1994년 제네바 핵 합의에 따라 북한에 핵 동결의 의무를 지우는 조건으로 매년 6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공급하기로 약속했다. 경수로 건설 지원에 대한 재정 부담에서 빠지는 대신에 경수로 건설 공사 완공 때까지 북한의 전력난 해소를 위해 중유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1년 분의 중유 60만톤을 월별로

나뉘 8년째 제공하고 있다. 의회의 예산 통과 문제 등으로 6개월 여까지 선적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매달 한번 꼴로 선적하는 원칙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개발 사실 인정으로 이같은 의무는 사실상 없어졌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10월 선적분은 이달 초 싱가포르 항을 떠나 북한으로 향하고 있어 미국이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11월분 선적분부터는 사정이 다르다. 북한이 제네바 핵합의를 어긴 이상 그 합의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취할 경우 언제든지 예산 집행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올 말까지의 선적분을 위해 국무부 대외활동예산 중 한반도에너지 개발지구(KE-DO) 예산항목에 9,050만 달러를 책정해 두고 있다. 내년 선적분은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2003년 중유 공급분으로 7,500달러의 승인을 의회에 요청해 둔 상태. 하지만 미국이 중간선거를 치른 후에는 '레이턴 회기로 접어들어 행정부의 공급중단 조치 여부에 관계없이 의회의 연내 승인 자체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다음 회기로 예산 심리가 연기될 경우에도 북한의 핵개발 시인에 대한 의회 내의 부정적 여론으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의 대북한 중유공급현황은 아래와 같다.

- ▲ 1995년-15만톤 (1600만불 상당 미국 부담금 550만불)
 - ▲ 1996년-50만톤 (6700만불 상당 미국 부담금 2200만불)
 - ▲ 1997년-500,327톤 (6500만불 상당 미국 부담금 2100만불)
 - ▲ 1998년-499,910톤 (4900만불 상당 미국 부담금 4640만불)
 - ▲ 1999년-499,664톤 (6200만불 상당 미국 부담금 6160만불)
 - ▲ 2000년-503,041톤 (9500만불 상당 미국 부담금 6060만불)
 - ▲ 2001년-559,611톤 (8000만불 상당 미국 부담금 7030만불)
 - ▲ 2002년-238,804톤 (3700만불 상당 미국 부담금 9500만불)
- (이 도표는 2002년은 10월 현재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미부담금은 예산 승인 금액에 기준하여 미정부가 조달하며, 공급은 웨스트포스트 BP 등 기업이 대행하는데, 금액은 국제 유가 및 공급계약 가격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음. 위 자료는 한국일보 2002년 10월 23일 수요일자 김승일 기자의 보도에서 발췌함)
- <위 사진설명 노벨상 수상소식을 받고 새벽부터 시내로 나와 흥심으로 카터를 축하하는 땅콩농장의 고향사람들>

광어와 도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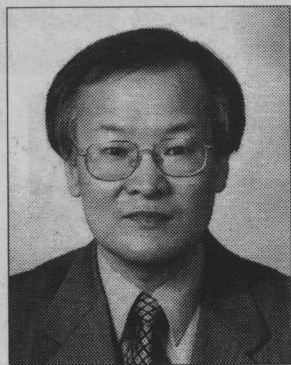
이기준 (사카고 중앙일보 편집위원)

광어(廣魚)와 도다리는 한국에서 우럭과 함께 3대 고급회갑으로 꼽히는 어종이다. 생선회에 조예가 깊은 사람치고 이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우선 손쉬운 방법으로는 좌광우도(左廣右道)로 판별한다. 즉 그대로 여놓고 보았을 때(등지느러미가 위쪽) 머리가 왼쪽을 향해 있으면 광어요, 오른쪽에 있으면 도다리다. 또 있다. 입을 벌려 보아 이빨이 있으면 광어, 없으면 도다리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이렇게 구분하면 거의 틀림없다.

동물분류학적으로 이 둘은 다같이 가자미목(目)으로 전자는 넙치과(科), 후자는 가자미과로 나뉜다. 이 어류가 고급회갑으로 꼽히는 이유는 그 살코기의 쫄득함과 독특한 맛 때문이다.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회값은 도다리에 비해 광어 쪽이 훨씬 비쌌다. 따라서 도다리를 광어로 속여 파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일반인들은 거의 이 둘의 맛의 차이를 모르지만 뛰어난 미식가들은 안다고 한다. 그래서 광어쪽을 조금 더 쳐준다. 그러나 요즘 서울의 서민회집에서 광어나 도다리나 생선회 가격이 kg당 4만5천~5만원 정도로 가격 차이는 별로 없다. 맛도 비슷하거나 자연산과 양식산 등의 구분도 모호해졌기 때문이다.

얼마 전 민주당 이인제 의원이 노무현 후보를 향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정치인'이라며 '국민



들이 광어와 도다리를 구별하지 못하듯 정치인과 정치광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다.

자, 이 말은 혹시 자신은 광어지만 노후보는 도다리라는 뜻일까. 또 자신은 정치인이고 노후보는 정치광대라는 뜻일까.

말이 나온 김에 광어와 도다리 공부를 조금만 더 해보자. 광어는 따뜻한 봄과 여름철 얇은 연안으로 나왔다가 늦은 가을철부터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간다. 먹이 활동이 무척스럽고 서식생태가 거의 일직선이다.

반면 도다리는 늦은 가을부터는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 월동한 다음 봄에 다시 북상해 연안으로 나온다. 따뜻한 곳을 찾는 회귀성향이 강하다. 눈의 구조상 두 눈은 각각 서로 다른 곳의 먹이감을 볼 수 있다. 인간과 달리 두 눈을 따로 따로 움직일 수 있게 돼있기 때문이다. 사시(斜視)라고나 할까. 중·고교시절 시험 때마다 감독 선생님들이 부정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가자미 눈을 하고 있는 학생이 보인다'며 우스갯 소리를 하곤 했던 말이 기억에 새롭다.

이인제 의원은 지난 97년 지금의 한나라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 탈당해 국민신당을 창당해서 출마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대선에서 낙선한 그는 따끈따끈한 아랫목을 향해 여당이 된 민주당으로 귀순(?)했다. 그는 올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또 패했다. 그리고 패배 원인을 자신이 등지로 삼은 당의 음모설 때문에 치부한다. 분이 풀리지 않은 탓일까. 이후 당의 햇볕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실패한 대통령'으로 본격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그의 한 쪽 눈은 끊임없이 대권을 향하고 있음은 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노무현후보는 지난 88년 제13대 총선 당시 김영삼 총재의 통일민주당원으로 부산 동구에서 출마, 첫 당선됐다. 이후 90년 1월 민정·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에 반대해 당에 잔류, 그 지조가 돋보였던(?) 인물이다. 이후 김대중 총재가 이끌던 신민당과의 야권통합으로 김대중 정부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올 초 여권의 대선후보를 위한 국민경선 실시 전 이인제 의원 대안론을 주장하기도 해 정치인으로서의 대범한 일면도 보인 바 있다.

자, 과연 광어는 누구며 도다리는 누구일까. 정치인은 또 누구이며 정치광대는 누구인 것일까.

이기준(사카고 중앙일보 편집위원)

당신은 다음의 한국大統領으로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왜?

투고요청: 미국도 한국도 선거철이 다가온다. 人事가 萬事라는 말이 있다. 이는 특히,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유능한 최고 지도자의 선출에 있어서는 더 말할 바 없다. 재미 서울대 동창회보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고질적인 지역감정을 극복하며 민족의 숙원인 통일문제를 풀어갈 원대한 식견을 가진 지도자를 선출하며, 한국의 민주화 과정이 형식적인 선거 절차의 반복적인 시행이라는 민주체제로의 이행(transition to democracy) 단계에서, 민주화의 내실있는 정착화(consolidation)가 요망되는 때이므로 다가오는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느낀다. 그러므로 어떠한 인물을 우리 동문 각자가 지지하는가를 정연한 글로 서로 토론하여, 조국의 장래를 맡길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재미 동창회보는 의미있는論壇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본국 정치 사정에 정통한 식견있는 한 언론인의 글과 美國時論 한편을 여기에 소개한다. 그러나, 이는 어떤 특정인을 우리 동창회보가 지지하고자 함이 아니다 (이 글의 필자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그간 선거 전략으로 보여준 알팍한 지역 감정과 파벌 두목의존

하고자 하는 양태는 이 필자가 간과한 바 있으나 이 점을 지적함으로써 우리의 문필과 논고란의 中立性を 표명하고자 한다). 이 논단은 우리 동문각자가 자금의 국제정세와 조국이 당면한 역사적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어떠한 식견, 도덕성 및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를 원하는가를 서로 토론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정치의 병폐가 논리정연한 이념과 건설적인 정책 대립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의미의 政黨조직의 不在이며 선거철마다 철새 政客들의 이합집산을 목도할 때, 한 미국의 時論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가 대립하는 사회에서도 "승리하는 다수(winning majority)"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政治修辭學의 중요성을 잘 분석한 이 글을 통하여 우리 한국의 朋黨정치가 理念政黨정치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청와대에서 최근 열린 제8차 남북한 장관회의 결과를 토의하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들



資料

美國의 북한 核武器 개발지정정책에 대한 北韓의 반응

(다음은 북한의 주유엔 대표부에서 발표한 성명문의 영문 초록인데 원제목은 North Korea's Response 이며, 뉴욕타임즈 10월 26일자에서 전재함. Following are excerpts from a press release yesterday from the United Nations 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The Bush administration listed the D.P.R.K. as part of the "axis of evil" and a target of U.S. pre-emptive nuclear strikes. This was a clear declaration of war against the D.P.R.K. as it

totally nullified the D.P.R.K. -U.S. joint statement and agreed framework.

In the long run, the Bush administration has adopted it as its policy to make a pre-emptive nuclear strike at the D.P.R.K. Such moves, a gross violation of the basic spirit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reduced the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on denuclearization to a dead document.

Its reckless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pressure is most seriously threatening the D.P.R.K.'s right to existence, creating a

grav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Nobody would be so naive as to think that the D.P.R.K. would sit idle under such a situation.

That was why the D.P.R.K. made itself very clear to the special envoy of the U.S. president that the D.P.R.K. was entitled to possess not only nuclear weapons but any type of weapon more powerful than that, so as to defend its sovereignty and right to existence from the ever-growing nuclear threat by the U.S.

The D.P.R.K., which values sovereignty more than life, was left with no other proper answer to the U.S.

behaving so arrogantly and impertinently.

The D.P.R.K. has neither need nor duty to explain something to the U.S. seeking to attack it, if it refuses to disarm itself.

Nevertheless, the D.P.R.K., with greatest magnanimity, clarified that it was ready to seek a negotiated settlement of this issue on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ly, if the U.S. recognizes the D.P.R.K.'s sovereignty;

Secondly, if it assures the D.P.R.K. of nonaggression; and

Thirdly, if the U.S. does not hinde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D.P.R.K.

Nowadays, the U.S. and its followers assert that negotiations should be held after the D.P.R.K. puts down its arms. This is very abnormal logic: Then, how can the D.P.R.K. counter any attack with empty hands? Their assertion is little short of demanding the D.P.R.K. yield to pressure, which means death. . . . The D.P.R.K. considers that it is a reasonable and realistic solution to the nuclear issue to conclude a nonaggression treaty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f the grave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o be bridged over. . . .

政治修辭學과 지배적인 多數의 구축 원리

鬪士와 사랑의 政治修辭學

The Gore-Lieberman feud is a minor political classic, something to read the newspaper for in this so-far-quiet August. The Republicans are enjoying it because it's Democrats fighting. Al Gore and Joseph Lieberman are enjoying it because everyone's watching them, which underscores their view that they're the two most interesting men in the party. And the other Democrats who are thinking of getting in the ring like it because Mr. Gore may bloody Mr. Lieberman and Mr. Lieberman may bruise Mr. Gore but no one's hurting them.

To recap: Messrs. Gore and Lieberman have been sparring-fainting and jabbing-as they circle each other in the ring.

Mr. Lieberman says Mr. Gore's populist strategy in the 2000 elections was "ineffective"-smack! Mr. Gore says this is no time to "stop telling the truth" to the American people-pow! Mr. Lieberman says Americans reject "us versus them" rhetoric-take that! Mr. Gore says centrism is "bad politics and bad principle"-there's more where that came from, buddy!

You Know Why

Why are the former allies now foes? You know why. Joe Lieberman thinks Joe Lieberman's a winner and Al Gore's a loser. He shares the views of most of the leaders and funders of his party: Mr. Gore is damaged goods, a bad campaigner who wasted the precious patrimony of peace and prosperity, a charm-free zone who took a weird turn in his acceptance speech two years ago this week, abandoning centrist sophistication and embracing Huey Long populism. In the debates with George W. Bush, Mr. Gore seemed like a cross between Frankenstein and Carrot Top. Also journalists, always more im-

portant to Democrats than Republicans, do not and never will warm to him.

Mr. Lieberman has a point.

Mr. Gore, on the other hand, feels he plucked Lieberman from the Senate gaggle, got him past the vetting of the left, made him a person in history, the first Jewish vice presidential nominee, and on top of it all he brought the ticket 500,000 votes more than the winners (Messrs. Bush and Cheney) got.

Mr. Gore has a point too.

Mr. Lieberman has vowed that he will not run for the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ation of Mr. Gore does. He has also told Godfrey Sperling of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that he has "meditating and activating" on whether to run. Sounding a lot like Al Gore, he defined activating as "moving around the country meeting with many leaders, speaking out on issues." He said he will make a final decision after the midterm elections and before the end of the year.

He says he has no opinion on whether Mr. Gore should run. But everyone knows Mr. Gore is running. So what exactly is Mr. Lieberman doing?

He's having fun and being serious at the same time. He's keeping the spotlight, he's investigating Enron and helping to fashion a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and he's demonstrating to party leaders that he isn't a creampuff, he knows how to be aggressive on the issue. By taking on Mr. Gore, he elevates himself from Veta Man to possible Alpha Man. Good work for a slow summer.

Mr. Lieberman made it as a moderate. He feels the future of the Democratic Party lies in sympathetic centrism. He sees the vast, voterich American middle class as the

true potential home of the party. And again he has a point. This is how two-term winner Bill Clinton read the playing field, and of Mr. Clinton knew anything it was popular politics. But while centrism may be the future of the Democratic party, it isn't the future of Al Gore.

Politics, as they say, is a game of addition. Middle-class appeals expand the party, and unite the country. Populism pierces: Its message is often rousing but inherently divisive. It attempts to divide the electorate between the bad people who seek to help the working class. What of those who seek to help working people through conservative policies? According to left-wing populists, they don't exist, or don't really mean it, or are unwitting pawns of economic royalists.

In the 2000 campaign, Mr. Gore figured that he would have to rouse his left-wing base to win. And the way to do that, he judged, was to play to the presumed passions and resentments of the little guy. He can argue now that he was right: He did bring out his base.

Still when Mr. Gore, whose career had been one of self-proclaimed centrism, went left two years ago, many political observers were surprised, including me. I wondered of perhaps Mr. Gore judged himself to be a rather chilly character, a man who could not approach the electorate with a Clintonesque warmth because...he doesn't have much warmth.

If you don't have warmth maybe heat is the next thing. And maybe that's what Mr. Gore's turn to populism was all about.

But his populist stance was never a perfect fit. Mr. Gore never made the old rhetoric new. He never made it something alive and pertinent to the moment. He sounded stale, and merely rhetorical. He was like a bright Ivy League student who had gone to a revival of a Clifford Odets play and

thought he'd bring the rhetoric home to upset dad. Mr. Gore's populism seemed cynical, a mere strategy chosen for the maximum gain of the candidate.

The Gore-Lieberman feud also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n national politics, it's better to be a Lover or a Fighter. Lovers seem to voters to be driven by a desire to help and protect. The most successful conservatives (George W. Bush, Ronald Reagan) have been Lovers. They may carry the sterner message, but they put it forward with a certain joy and moral confidence. Fighting conservatives don't last so long or do so well (Ask Fox News analyst Newt Gingrich).

Downside

But there's a downside to Lovers. They can get to soft. A few months ago I asked a Republican senator what President Bush should do next. He said, "Veto something." I asked, what? He said, "Anything!" Meaning: Loverboy sought to show some muscle, jab someone, show 'em who's the man.

With Democrats, too, it's probably true that Lovers flourish and Fighters don't, at least long term. Mr. Lieberman seems to see himself as a Lovers, embracing the middle class. He's painting Mr. Gore as a Fighter. And Mr. Gore is helping him. Because he likes the pose of the pugilist. His aggression may be joyless but it's interesting to watch, and makes its own heat. And it can be intimidating. It's just not inspiring. Unless you're the left wing of his party. (이글의 원제는 The Fighter vs. the Lover이며, 필자는 공화당 정부의 미국 대통령 연설문 작성자로 필명을 날린바 있는 Ms. Peggy Noonan 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지 2002년 8월 9일자에 기고된 글임).

유모어 칼럼

윤상래 (수의대 66년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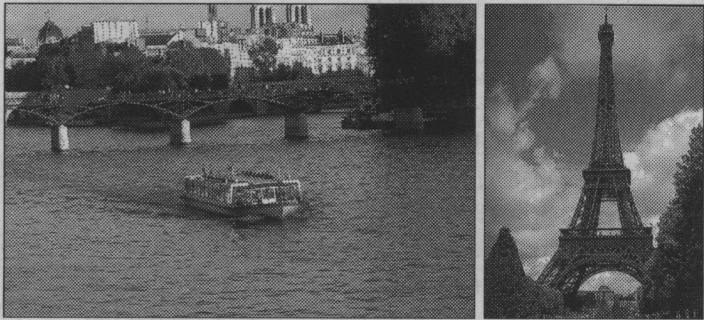
내가 수의과 대학을 지원한다고 했더니 주변에서 '왜 하필이면 동물의사가 되려는가?', 하고 의문해 하였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내 IQ가 165정도 되는데, 공과대학을 가려하니 너무 쉬운 것 같고, 의과대학은 사람만 다루게 되니 너무 쉬운 것 같고, 의과대학은 사람만 다루게 되니 너무 재미가 없을 듯 하나, 수의사가 되면 온갖 동물을 다루게 되니 IQ에 비해서 다양할 뿐 더러 실증도 나지 않을 듯해서 수의과 대학에 가노라.'라고 하였다.

수의사가 되고 나니 또 주변에서 얘기하기를 '의사가 되었으면 돈도 잘 벌텐데...!',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여 주었다. ... 「한 축주(畜主)가 개 한 마리를 안고서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내가 보기에 이미 죽은 듯해서 "당신의 개는 이미 죽었소!" 했더니 그 주인이 의문스러하면서 꼭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뒷방에 가서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와서는 진찰대에 누어있는 죽은 개의 몸 위에 내려놓았다. 고양이는 개가 죽은 것을 아는 까닭에 무서워하지도 않고, 냄새도 맡고, 할퀴어 보기도 하면서 진찰대위에서 걸어 다니었는데, 이제는 그 주인이 확인이 되었는지 "아! 정말 이개가 죽었네!"하면서 "요금이 얼마입니까?" 하고 지불 청구를 하였다. 그래서 나는 이미 준비하였던 청구서를 주었더니 주인이 눈이 동그레지면서, "아, 지난 번 응급치료비는 50불이었는데, 어찌 이번에는 550불입니까?"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설명 하여주기를.... "50불은 응급진료비이고, 500불은 'CAT SCAN'을 한 요금입니다."라고 하였다.

파리의 그사람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있을까?

異邦人과 人間愛

李龍洛 (공대 53년 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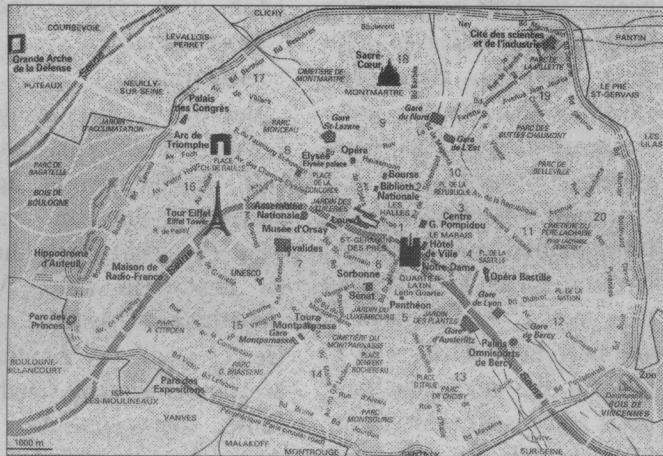


"Excuse me! Would you kindly direct me to this hotel?" 나와 반대방향으로 걸어오는 어떤 신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서, 나는 손에 들고있는 Paris 시내 지도에 나와있는 내가 묵고있는 호텔을 가리키며 길을 물었다. 그때가 1958년 8월 중순, 밤 12시경이었다. Paris 한복판에 있는 변화가에서 나는 길을 잃고 내가 집을 풀고 나온 속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러나 그는 "....."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으면서 나를 향하여 따라오라는 신호를 하였다. 나는 이 신사가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직감하였다. 내 추측에는 나보다 5살 정도 위인 30대 초반 같은 이 신사에게, 나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뒤를 따라갔다. 한참 가다 보니 아까 집을 풀고 나왔던 그 호텔 부근임을 나는 알 수 있었고, 나는 그에게 "이제 나도 알아서 찾아갈 수 있을 만하다" 라는 뜻을 손짓으로 몇 번이나 그에게 의사전달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 말을 듣지 못하는지 끝까지 나를 그 호텔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위의 상황은 내가 Scottish Student Association의 일원으로 Brussel에서 있었던 세계 박람회를 참관한 후 구라파를 혼자서 여행하던 중, 그때까지 꿈에서도 그리던 Paris를 구경할 수 있게된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하여 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지도를 따라 여기 저기 구경하다가 밤늦게 길을 잃었던 옛 추억의 한 장면이다. 나는 밤길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길에 나를 도와 준 그의 친절에 감사하여 무엇인가 사례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호텔 바로 앞에 Bar가 보여 나는 그에게 "한잔 대접하겠습니다" 하는 손짓을 했다. 그는 알아듣고 나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그 당시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하는 자유당 시대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상황이었다. 우리의 GNP가 일인당 소득이 고작

\$60인 때이고, 통행금이 엄격했던 때였다. 이와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주정이 넘었는데도 찬란한 등불이 낮같이 켜져 있고, 모든 사



업이 자유분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곳을 올 수 있었던 幸運의 그 순간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Bar 안에 들어서자 그는 Counter에 나를 인도하고, Bar Tender에게 무어라 말했다. 나는 나대로 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말해 주십시오. 내가 시킬 터이니"라고 하였다. 물론 손짓으로는 통하기가 매우 어려운 표현이었기에 그가 내 말을 금방 알아들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의사소통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있는 동안 Bar tender는 두 잔의 술을 가져왔다. 술의 색깔은 초록색이었다. 나는 선듯 지갑에 손이 가면서 지불할 태세를 했을 때 그는 나를 제지하면서 그는 "염려마! 내가 사는 거야." 하는 뜻을 몸짓으로 표시하여, 나도 알아들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서 異國 인간의 만남을 축하하는 건배를 들었다.

이날 낮에는 나는 Paris에 온 감격 속에서 근처에 있는 세느 江邊에 있는 맥주집에서 Hungary에서 온 한 夫婦와 만났었다. 이들은 그 당시 공산 정권의 억압에 항거하여 반정부 폭동이 일어난 혼란 중에 國境을 넘어 탈출하여 London으로 피난 갔던 부부였다. 남편의 직업은 신문기자였으며, 영어에 능통

하였다. 신문기자였기에 세계제에 밝았으며,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고, 우리는 反共思想이라는 점에서 모든 면에서 마음이 맞아 몇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친한 친구가 되었다 (이들과는 후일 London의 그들의 아파트를 방문하여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일이 있다).

이미 이들과의 만남에서 나는 이미 상당한 前酒가 있는 연후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므로 이 친절한 이국인과 호텔앞 Bar에 들어갈 때는 이미 술기운이 상당한 때였다. 나는 내가 대접하려던 이 고마운 신사에게서 오히려 대접을 받았으니 송구스러운 마음에 얼른 그 초록색의 술(after drink)을 마시고 Bar tender에게 꼭 같은 술을 달라는 손짓을 했다. 그리고 그 당시 구라파의 관습에 따라 나도 돈

을 Counter top 위에 올려놓고 이번만은 내가 꼭 지불할 태세를 취했다. 그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 나는 그 때까지도 감히 그에게 말을 더 건넬 용기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는 영어밖에 못하고, 그는 영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었다. 나는 "감사하다는 佛語를 알고 있었으나, 그는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가 모두 두 번째 잔을 비울 때 그는 Bar Tender에게 무엇인가 주문하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붉은 색의 술이 나왔으며, 이 때 그는 자기가 지불할 것을 강력히 원했기에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 다음에는 내 차례였기에 서로 마을 풀고 좀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듯 하였으며 술 몇 잔에 기분도 좋았다. 나는 그 당시 상당한 금액의 Franc을 지니고 있었기에 Counter top에 놓고 Paris의 이 순간을 한껏 즐길 태세를 갖추었다.

이 즈음에 이르러서는 나는 그에게 말을 건넬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생겼으며,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물론 이 질문을 소통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몇 번이고 되풀이하면서 약 10분 동안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다. 결국 나는 내 직업을 먼저 상대방에게 알리고, 당신의 것은 무엇이라고 묻는 것이 낫겠다고 결

론 짓고, "나는 England에서 온 학생" 이라고 말했다. 나는 실은 Scotland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지만, Scotland를 설명할 수 없어서 더 유명한 England로 말했고 그때 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설명하였다. 이랬더니 그는 놀랍게도 금새 알아들었다. 후에 안 사실이지만, England란 單語는 英語와 佛語(anglaise)가 발음이 닮고, Student란 단어도 영어와 불어(étudiant)는 매우 흡사했기 때문이다.

어째던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까지 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은 매우 쉽게 할 수 있었다. 후에 안일이지만, 그도 학생이었다면 쉽게 대답했을 터인데 그렇지 않았기에 그도 나처럼 그 자신을 힘있게 설명하였다. 처음에 내가 알아듣지 못하자 그는 일어서서 우선 자기의 웃옷을 열어 보이고, 오른 손을 들어 무엇인가 받드는 흉내를 냈다. 그 때 내가 그가 Waiter였음을 알아본 것은 그가 열어서 보인 上衣 속에 흰색의 조끼를 입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야기가 이 정도까지 진전될 때에는 두 사람은 여러 잔의 술을 번갈아 사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간 후였다. 이제 두 사람은 아무 어려움 없이 자유자재로 상대방의 의사를 알아들었고, 나도 쉽게 대답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韓半島에 戰爭이 있었으며, 나도 그 전쟁에 참전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적어도 20분은 소비했으나 결국 완전한 설명은 할 수 없었다. 첫째 韓國을 설명했으나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모양이었다. 따라서 화제를 바꾸어 가족에 대해서 물었을 때 그는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자기의 아내 사진이었다. 이 때 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行人, 그것도 흔히 볼 수 없는 人種이며 이상한 나라에서 온 친구와 이와 같이 긴 시간을, 그리고 나에 산술 값도 많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당신도 집으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나야 여행객이니까 괜찮지만.....". 그러나 그는 "이런 좋은 친구를 만났으니....." 하면서 Paris 복판에서 길 잃은 나그네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는 심정인 듯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Bar에서 나왔다. 그 때 시계를 보니 놀랍게도 새벽 4시였다. 불과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낸 줄 알았던 나는 매우 놀랐다.

나는 그가 집에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그가 마신 酒量으로 보아 나는 그를 그대로 보

낼 수가 없었다. 나는 그에게 "밤이 너무 늦었으니 내 호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집에 가십시오" 라고 초청했더니, 그는 알아들었기에 우리는 그대로 건너편에 있는 호텔로 들어가 우선 내가 그의 방 값을 치르고, 그의 방에 인도하고서 나도 방에 들어가 깊은 잠에 잠겼다.

그 다음날 나는 호텔을 나와 그의 인도로 Coffee shop에 들어갔더니 Coffee와 같이 술(지금 생각하니 Cognac이라고 생각됨)이 나왔다. 그가 Coffee 속에 술을 타는 것을 보고 나도 따라 했다. 어쩌면 한국의 "해장술"에 해당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후 나를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기차역까지 배려해주고 같다. 우리는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깊은 友情을 맺고 서로 작별했다.

이 일이 있은 지 이미 거의 반세기가 지났다. 그러나 그동안 한번도 그와 서로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항상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그 연유는 내가 그의 주소를 적은 수첩을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주소를 적었을 당시 내가 먼저 장문의 편지를 그에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내 주소는 주지 않았다. 아마도 내 일생에 몇 가지 후회되는 일이 있지만 내가 왜 그에게 내 주소는 적어 주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그 중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나는 그 이후의 내 생애에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내 주위의 사정을 돌아보면서, 그 때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순간을 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마음이 시일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하다. 사람과 사람이 만남에 있어서 言語疏通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人間愛라는 것을 깨닫게되었다. 살아오며 느끼는 사람들이 마음을 터서 교제하게 되는 것은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마을의 사투리를 써야하고, 같은 학교를 다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사람들이 가족 이외에는 관심이 없는 경우들을 볼 때, 나는 空想으로서가 아니라 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이 人間愛를 회상하게된다. 내가 사는 이곳이 아니라도 세계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편견 없는 사랑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면 언제나 마음이 흐뭇하고, 나는 이 세상을 사는데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 마음에 그가 없었던 들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텅 빈곳이 있었으리라! 내 일생에 있어서 나의 인격의 기본을 형성해 가는데 절대적인 힘이 된 그 사람과 그 순간에 대한 나의 동경은 내가 받은 영향 중 그 무엇보다도 컸음을 나는 단정할 수 있다. 아! 그리운 내 친구! 그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남가주 동창회 추계골프 성황리 개최 115명의 동문 참여

남가주 동창회(회장 임낙균)가 주최한 가을 골프대회가 9월 21일 (토요일) Los Veredes 골프장에서 열려 추석 명절에도 불구하고 115명의 동문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는데 이날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 <남자부>
- 메달리스트-이기준(법대)
- 챔피언-김명신(치대)
- 1등-김상찬(문리대)
- 2등-김재영(농대)

- 3등-이준호(상대)
- 장타상-김명신(치대)
- 근접상-권재웅(문리대)
- <여자부>
- 메달리스트-Mrs. 김병서
- 챔피언-Mrs. 유병원
- 장타상-Mrs. 승정순
- 근접상-홍옥자(음대)
- <단체부> 우승-상과대학팀
- 준우승-공과대학팀
- 또한 남가주 동창회는 이번 골프대회를 위하여 협찬하신 70여

곳의 동문 업체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다음과 같은 동문들께 감사드립니다. 근접상 수상자에게 주는 부상으로 VIP양복점에서 700불 상당을 기부하였고, 임낙균 (Mrs. 임낙균 경영)에서는 추석 떡을 보내주셨으며, Parm Springs Golf(조성상 동문)에서는 2인조 골프입장권을 부상으로 제공하였고 수상자에게 수여한 한국 트로피(박양중 동문)에서 염가로 제작하여주셨으며, 동창회의 모든 임원진들이 성공적인 대회진행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날 대회는 긴자스시에서 배달한 점심으로 동문간의 친목을 더욱 뭉치는 값진 하루가 되었다.

남가주 동창회 장학기금과 Web Site설립기금 모금 만찬에 동문들을 초대합니다

동문여러분,
이 달 예정되었던 조영남 동문 초대 만찬 음악회는 예약조건이 맞지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남가주 동창회 장학기금 및 웹사이트 준비 기금 모금을 위한 동창회 만찬회가 아래와 같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동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이 날 행사 당일의 만찬은 La Seoul Garden 에서 모든 참석자들을 임낙균 회장께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날 행사는 남가주 동창회 장학기금과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기금모금이므로 참석하시는 분들의 기부금(1인당 100불) 출연을 환영합니다.

일시: 2002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6시
장소: La Seoul Garden
100 S. Western Ave. L.A. CA 90004
(전화: 213-388-1975)

연락처: 홍옥자 위원장(전화: 213-387-5959)

2002년 10월 15일
남가주 서울대 총동창회



謹 弔

문흥식 동문 父親 별세

서부수의대 동창회 문흥식 동문(서부수의대 동창회장, 69년졸)의 부친이신 문해수님께서 2002년 10월 2일 향년 91세로 노환으로 자택에서 평안하신 가운데 가족들의 품안에서 召天하셔서 祖國의 고향 先塋에 安宅하셨습니다. 남가주 동창회와 재미총동창회는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유가족 연락처 714-262-0861 >

謹 弔

탁의용 동문 慈堂 별세

탁의용 동문(상대 58년입)의 慈堂이신 최정석 여사께서 지난 10월 13일 일요일 별세하셔서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남가주의 Memorial Chapel at Rose Hills Cemetery에서 장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남가주 동창회와 재미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이에 유가족들에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유가족 연락처 949-387-9582 또는 남가주 상대 동창회 성주경 총무 213-385-9550 >

남가주 동창회 산행대회 산불로 취소

10월 20일에 예정된 남가주 동창회의 산행은 예정된 장소인 Mt.

aldy, Cedar Glen Trail이 산불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되어 취소되었습니다. 선들바람이 불면서 단풍을 밟고 싶은 가을이오나 아쉽게도 내년을 기약하겠습니다.

<사진설명> ① 가을 골프대회에 출전하는 골프동창회원들 ② 여자 챔피언 Mrs. 유병원씨와 임낙균 동창회장 ③ 왼쪽부터 임낙균, 챔피언 김명신, 오홍조 동문 ④ 근접상 수상자 권재웅(문리대) 동문에게 임회장이 700불 상당의 VIP양복점 선물권을 수여하고 있다. ⑤ 단체 우승한 상대 동창회팀 (왼쪽부터 임회장, 조성상, 이청광, 김승집, 유병원 동문) ⑥단체 준우승한 공대 동창회팀 (왼쪽부터 김지영, 임낙균 회장, 김윤희, 이경호, 이범천, 이국진, 노명호, 김경무 동문) ⑦골프장의 동문가족 (민수봉, Mrs. 승, Mrs. Lee, 이병준 동문) ⑧골프장의 동문들 (김진, 오홍조, 임낙균, 방석훈, 지종근) ⑨만찬장의 동문가족들 (지종근, 방석훈, 김재영, 유병원, 박상길, Mrs. 유병원)

하트랜드 소식

謹弔

鄭東鶴 동문(공대 59년졸) 別世
(1937년 8월 5일~2002년 9월 13일)



금년 10월부터 하트랜드지역 동창회장으로 취임예정이던 鄭東鶴 동문(공대 59년졸, Iowa 대학교수)께서 속환으로 지난 13일 별세하셨습니다. 정박사는 1959년 모교 공대 통신공학과를 졸업하였고 1961년 Minnesota 대학원 전기공학과에서 MA를, 1965년에 Ph. D를 받으신 후, 1965년에 University of Minnesota 전기공학과 조교수와 1966년에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전기공학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1968년부터 별세 시까지 University of Iowa에서 전기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또 1997년에는 회갑을 맞이하여 그의 제자들이 기념논문집을 발간한 바 있는데(옆의 제자들의 회갑논문 봉증사 참조)

그 때까지 정교수는 61편의 학술논문을 전문학회지에 출간하였다. 이 해에 정교수는 母校에서 SBS 석좌교수를 역임하였고 작년 9월에 하트랜드 지역동창회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 이경희씨와 자 영화와 재환군(모두 하바드대 의과대학 재학중) 및 형제로 동익씨와 영숙씨가 있다. 하트랜드 지역 동창회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는 유가족들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유가족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Mrs. Chyung Dong Hak
13 Woodland Heights N.E.
Iowa City, Iowa 52240
(전화) 319-351-7437.

조지아 소식

동창회 송년회 12월7일(토) 7시, 한우리식당 모교 음대 연주단 음악회 결산보고

동문 여러분, 지난 8월 27일 화요일에 동문 여러분과 동포들의 참여로 모교 음대 연주단의 공연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이 음악회의 결산보고를 드립니다. 조지아 동창회장 김재철 배상
★ 모교음대 연주단 아틀란타 공연 음악회 결산 보고
- 수입 : \$6,928.17-
- 지출 : \$4,362.49-(세부내역은 조지아 관악회보 참조)
- 잔액 : \$2,565.68-
* 잔액은 동창회 기금으로 적립 예정
♣세부 수입 내역(\$6,928.17)
곽민자(300), 김만복(100), 김민부(50), 김수일(100), 김수경(30), 김예순(100), 김용건(100), 김용주(100), 김재철(1,173.17), 김재호(100), 김중구(200), 김준휘(200), 노행자(150), 양달수(20), 문중현(100), 박기수(100), 박민(100), 박종흠(100), 박희창(100), 백낙영(200), 백성식(40), 백순희(300), 사성주(200), 석정일 최지자(100), 은철수(100), 이경훈(150), 이관호(20), 이정희(300), 박진수(220), 이철남(80), 이철희(50), 이흥렬(100), 임수암(100), 임한웅(100), 주중광 허지영(100), 지승남(100), 최선호(150), 최재학(100), 한상철(40), 오애리(20), 김현화(40), 티켓 수입 및 기타(1,095)



鄭東鶴 교수님의 회갑 기념논문집 발간에 부쳐

정동학 교수님의 회갑을 맞이하여, 저희 제자들이 작으나마 정성껏 뜻을 모아 회갑 기념 논문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영광된 마음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님께서 1959년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잠시 동교 대학원과정에 재학하시다가 도미하시어 1965년 Minnesota University 전기공학(Electrical engineering)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위 취득 후, 곧바로 대학 강단에 서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University of Minnesota 및 University of South Carolina에서 조교수로 계시다가 1968년부터 University of Iowa에 부교수로 승진 전보되시어 자리를 옮기신 후 지금까지 30여년간 오로지 대학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셨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그 동안 강의실과 연구실에서, 그리고 아래층 실험실에서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정동학 교수님을 대하고 같이 긴 시간을 보낸 결과 정 교수님에 대한 지위지 않는 여러 가지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동학 교수님에 관한 첫인상은 보이는 것 위의 그 무엇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력한 눈빛과 어떤 문제라도 다 풀 것 같은 번득이는 재치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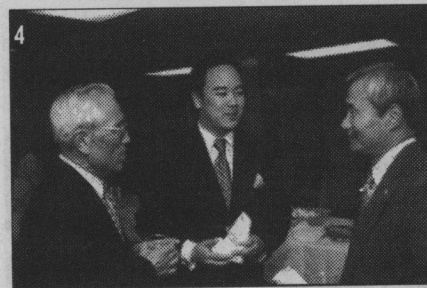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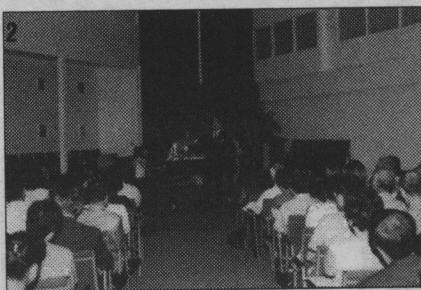
갖고 계신 듯한 천재적인 학자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창 활동하셨던 시절, Time-delay System Control에 관한 그 많은 논문을 쓰신 것도 이런 남다른 자질 때문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또한 정동학 교수님은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시면 밤낮을 구별하지 않고 달려들어 결단을 내고어머는 대단한 집념과 열정을 갖고 계신 분으로 기억합니다. 수없이 많은 날들을 몸이 피곤할 때가 잠자는 시간이라는 듯 새벽녘에야 귀가하시곤 하였다는 얘기를 사모님으로부터 들었으나, 사실 실험실 근처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정동학 교수님이 빈틈없고, 정확하고 논리적이며 수학적인 분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많은 대화를 해 본 우리들은 정교수님은 늘 남들이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세상을 해학적으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계시기에, 재미있고 무척 박식한 분이라고 생각했으며, 주말이나 명절 때가 되어 함께 어울린 때는, 순진한 젊은이가 되어 같이 어울리며 기타 반주에 노래도 잘 하시고 댄스도 수준급이신 것을 알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정동학 교수님 은 수 차례 고국을 방문하시어,

현대 제어기법과 이론, 컴퓨터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기술 등 70년대 한국사회가 필요로 했던 기술들을 헌신적으로 소개해 주셨으며, 80-90년대에는 KAIST와 포항공대, 서울대 등에서 현대 제어 이론 등을 강의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강의나 세미나 요청에 언제나 흔쾌히 응하시고, 강의는 늘 명쾌한 명강의를 하셔서 이곳 한국 학생들을 매료시키는 분으로, 대부분 주로 학교에 몸담고 있는 저희 제자들에게는 늘 귀감이 되고 계십니다.

정동학 교수님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예외적으로 젊어 보이십니다. 마음이 젊으신 탓일까요, 항상 젊은 기분으로 일하시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아무튼 회갑이 되셨기에 이 회갑 기념 논문집을 준비하였습니다만, 회갑이란 두 글자가 그다지 씩 잘 어울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라옵건대 앞으로도 계속하여 젊고 정열적으로 교육과 학문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그 동안 저희들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본 회갑 기념 논문집을 정교수님께 바칩니다.

1997년 7월 弟子 일동



<사진설명> ①춘향가를 열창하는 이자람 ②정호윤 ③공연 후 열렬한 기립감사를 보내는 250여명의 청중들 ④음악회장에서 환담하는 김용건(문리대 48년입), 정호윤(성악), 김재철(공대 64년입) 동문 ⑤Buckhead Club에서 총영사 초청 오찬 후 연주단원과 기념촬영. 전열 앞줄 좌측에 백순희(음대 57년입) 동문과 조중표(문리대 70년입, 아틀란타 주재 총영사) 동문, 연주단장 김형배 교수가 보인다. ⑥연주단과 동문들이 숙소 호텔 라비에서 기념촬영

뉴욕지구 소식

뉴욕지구 동창회 새 주소록 발간 배포중 1,146명의 동문들을 수록

2002년도 뉴욕지구 동창회 주소록이 새로이 발간되어서 배포중이다. 이번 주소록은 지난 1997년에 발간된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인데 1,146명의 동문들을 수록하고 있다(단과대학별로 보면 간호대 101, 농대 53, 문리대 68, 미대 94, 법대 80, 사대 76, 상대 222, 약대 70, 음대 30, 의대 뉴욕지역 196, 뉴저지 90, 코네티컷 15, 치대 34, 대학원 17명). 한창섭 제 23대 회장이 작년 9월 28일에 취임하면서 새로운 주소록을 발간하겠다고 공약한 바에 따라서 1,000부를 인쇄하였다. 새로운 주소록을 원하는 동문은 전화 212-594-0493 (한창섭) 또는 914-686-2222 (한창섭)로 연락하기 바란다.



동창회 추계 골프대회 성황

-9월 28일(토) Apple Green Golf Course에서 58명 동문 참가

뉴욕지구 총동창회(회장 김종을) 추계 골프모임이 9월 28일(토) 뉴욕주 북부에 있는 Apple Green Golf Course에서 개최되었는데, 이날 대회에는 총 58명의 선수(남자 45명과 여자 13명)가 참가하였다. 이날 대회는 우환호 동문(문리대 58년입)이 주관하고 Mrs. 장동만(사대) 동문과 Mrs. 노재홍(의대) 동문이 진행하였고, 여자부는 핸디캡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그리고 이날 골프모임은 태풍의 여파로 전날 밤까지 계속 비가 와 큰 우려를 낳기도 하였지만 아침이 되면서 푸른 하늘이 높게 보이는 天高馬肥의 가을 날씨를 되찾아 故國의 하늘이 연상되어 더 뜻깊은 자리가 되었고 특히

이 대회장이 된 골프장이 果樹園 내에 있어 자연과 더불어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여유와 낭만이 곁들여진 모임이었다.

<남자부 수상자> - Medalist 손영철 동문(공대 72년입, 81打), 1등 김봉희(공대), 2등 최수용(상대 59년입), 3등 강석권(법대 65년입)

<여자부 수상자> - 1등 Mrs. 노재홍(의대), 2등 Mrs. 정인용(의대), 3등 Mrs. 김영일(공대), <장타상> 임호순(공대 56년입), <근접상> 유무영(공대 70년입)

<단체우승> - 공대팀(서울대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배)

<動員賞> - 객선섭(공대 회장)

□골프모임 후에 있던 만찬은 인근 중국 식당에서 시상식과 함께 있었으며, 한창섭 전임 회장의 수고로 완성된 뉴욕지구 동창회 새 동문주소록이 배포되어 동문들이 하나로 다시 한번 뭉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골프대회를 위하여 이전구 동문(뉴욕 골프사장)이 예년대로 골프 공을 기증하였고, 이수호 동문(대학원회장)이 상품으로 한방 補藥 한제를 기증하여 동창회에 대한 지속적인 큰 관심을 보여 주었다. 가을 하늘 아래 이루어진 추계 골프모임은 어느 해 보다도 우리 同門들의 자긍심과 애교심이 드러나는 뜻깊은 모임이었다. (투고자 김종을 회장)

2002년 동창회 주소록을 발간하면서....

2001년 9월 28일 뉴욕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23대 회장에 취임하면서 임기 중에 동문들을 위하여 새로운 주소록을 발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97년 18대 최수용 회장 재임시에 발간한 후 약 5년 동안 업데이트한 동창회 주소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취임식에서 그러한 공약을 안하였더라면 아마도 그럭저럭 넘겨 버리고 나의 임기를 마쳤을 것입니다.

주소록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원입니다. 우리 동문들간의 연락과 통신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많은 동문들이 이사를 하였고 또한 세상을 떠난 동문들도 적지 않습니다. 각 단과 대학 동창회장들의 협조를 얻어서 가능한 한 정확한 명단과 그들의 주소 및 전화 번호를 수록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만족 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문들의 부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가 수록되었더라도 너그러

운 양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소록을 준비하면서 동창회 주소록을 처음으로 발간한 이 전구 14대회장, 제 2판을 낸 오인석 16대 회장 그리고 제 3판을 제작한 최수용 18대 회장의 노고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흡하고 불완전한 주소록을 제작하는데 바쁘신 중에도 많은 협조를 하여주시는 각 단과대학 동창 회장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리고 지난 1년간 동창회를 이끌어 오는데 크나큰 기여를 한 추재욱 이사장에게 깊은 경의와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 동문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고 컴퓨터에 인풋하는 많은 수고를 한 KPA의 박숙희씨에게 감사하는 동시에 이 주소록의 인쇄를 맡아 주신 유니온 프린팅사의 황창근 사장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2002년 8월 15일
23대 회장 한창섭

<뉴욕지구 동창회 23대 집행부 사업일지>

뉴욕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2001년 9월 28일 - 2002년 9월 26일 주요일지

- <2001년>
- ▲회장 이취임식, 금강산 (9월 28일)
- ▲모든 서류와 동창회기 등 인계 인수 (10월 2일)
- ▲음악위원회 회의(용수산: 김영덕, 김인석, 이전구, 추재욱, 김종을, 한창섭) (10월 5일)
- ▲음악회 Ticket 431장 및 Brochure 400매 인수
- ▲중앙일보 방문, 광고 주문 (10월 15일)
- ▲회장 주최 상임이사회 및 원로 동문 만찬 (회장 자택) (10월 19일)
- ▲홍인준 동문 장례식에 조화 보냄 (10월 21일)
- ▲2001년도 추계 골프대회 (Philip Rotella GC, 34명 참가). 이전구 회장 골프공 24 박스 기증, 추재욱 이사장과 한창섭 회

- 장 각각 \$500 기증, 이수호 회장 \$200 기증 (10월 25일)
- ▲2001년도 SNU Concert (Merkin Concert Hall, 약 300명 참석) (11월 3일)
- ▲한승수 장관 (행정대학원 동문) 유엔총회의장 취임 축하연에 화환 보냄 (11월 11일)
- ▲유희길 동문 장례식에 조화 보냄 (12월 20일)
- ▲2001년도 송년 파티 (대원, 180명 참석) (12월 22일)
- <2002년>
- ▲이회창 총재 뉴욕방문에 화환 보냄 (1월 23일)
- ▲황명자 동문 장례식에 조화 보냄 (2월 19일)
- ▲이어령 동문 뉴욕 강연회에 화환 보냄 (3월 1일)
- ▲진봉일 동문 장모 장례식에 조화 보냄 (5월 8일)
- ▲2002년도 임시총회 (결산보고를 상임이사회에서 하기로 결의) 겸 춘계 골프대회 (Philip 聃

- otella GC, 49명 참가) 추재욱 이사장 \$1,000 기증, 한창섭 회장 \$300 기증, 이수호 회장 \$200 기증, 오인석 전회장과 이문취 전 회장 상품으로 Putter 각각 기증 (6월 1일)
- ▲시카고 재미총동창회 2002년도 평의원회의 참석 (한창섭, 오인석) (6월 15일)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 일행을 위한 골프대회 (River Vale GC, 12명 참가) 및 간담회 (38명 참가) (6월 18일)
- ▲모교 음악대학 연주단 (12명) 뉴욕도착 (8월 18일)
- ▲서울대 음악회 (뉴저지 연합교회, 약 400명 참석) (8월 19일)
- ▲한국 태풍수재의연금 \$1,500 기부 (9월 17일)
- ▲뉴욕지구 동창회 2002년도 주소록 발간 (9월 26일)

오하이오동문 소식

지역동문들 미주사회 행사에 적극 참여

오하이오 지역에는 현재 120여 명의 동문들의 주소가 확인되어 현재 동창회 지부발족을 준비하고 있는데(이번 회보 1면 참조), 그동안 이 지역의 동문들은 지역내의 미주 사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하

여 재미동포들과 우리 동문들의 존재를 홍보하여 왔다. 특히, 분단조국의 상황을 상기하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연례적으로, 4월 15일의 한국해방대 창설기념일, 6월 25일의 한국전쟁

기념일, 8월 15일의 광복절 기념일, 9월 28일의 서울수복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또한 미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주최하는 행사들인 7월 4일의 July 4th Independence day, 6월 25일의 한국전쟁기념행사 및 11월 11일 Veterans' Day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재미 동포들과 우리 동문들의 노력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는 이는 崔仁甲 동문(공대 금속공학과 57년입, 콜롬버스 지역거주, 오하이오 지역 한국해방대 재향군인회 회장)과 동포 김창국씨(데이튼 지

역거주)인데 이들은 "한번 海兵은 永遠한 海兵"이라는 정신으로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 동문은 군복무시 한국해방대 특별 기동전투부대의 창설을 위한 장교들의 유격훈련 교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23면에 계속>

뉴욕지구동창회 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동창회비 없이 1년간 동창회 黒子 운영에 큰 보람



23대회장 한창선
동문(문리대62년졸)

뉴욕동창회가 23년 전에 창립되면서 회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가나다순으로 각 단과대학에서 추천하는 관례에 따라 2000년 9월에 수석 부회장으로 봉사한 후, 농대 출신인 최철용 회장의 후임자로 文理大 출신인 나는 2001년 9월 28일에 뉴욕지구 서울대학교 제 23대 회장직에 취임하였다. 이 관행은 매우 훌륭한 제도였으나, 지난 1년간은 나에게겐 바쁘면서도 지루한 한해였다. 2차에 걸친 음악회, 3회에 걸친 골프대회, 1년 행사중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인 연말 파티, 서울총동창회장 일행을 위한 환영회 및 간담회, 재미 총동창회 평의원의회의 참석, 작고한 동문들의 장례식에 조화 보내는 일, 저명한 동문들이 뉴욕에서 갖는 행사에 참석하는 일 등등 그야말로 바쁜 한 해였지만 무거운 회장직을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루한" 한 해였다.

나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뉴욕지구 문리대 동창회장직을 그리고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수석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동문들간의 동창회에 대한 관심이 해마다 저하되는 현상을 체감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비록 뉴욕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내의 타 지역도 마찬가지 일 가능성이 크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하고 나는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첫째는 미국생활이 정말 바쁨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 두 번째는 동창회 행사가 별로 재미없어서 참석한 많은 동문들이 실망하고 돌아간 후 동창회 행사를 기피한다. 세 번째는 동창회에서 회비, 이사회비, 관악후원회비, 100만달러 기금 모금 운동 등등 너무나 돈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동창회 행사에 나가면 돈 내라고 하니 피하게 되고 또 고지서를 받고 돈을 못 낸 동문은 미안하여 동창회 행사를 멀리하게 마련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동창회를 소원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나는 판단하여 1년간 나의 임기 중에는 동창회비와 이사회비를 걷지 않고 이사장인 秋藏玉 박사의 赤子를 보전하기로 결심하였다. 나의 이러한 동창회 운영 방침에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행사 때마다 내가 요청하기도 전에 항상 자진하여 기부금을 내준 秋 이사장에게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어떠한 동창회 행사이든 동문들에게 유익하고 보람있는 행사로 만들

고 가능한 한 赤子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일종의 철칙 하에 음악회, 골프대회, 연말파티 등등 모든 행사에 많은 동문들이 참가케 함으로 黒子 대회를 만드는데 성공하여 나는 큰 보람을 느꼈다. 2001년 10월 25일 골프대회에서 669달러, 2001년 11월 3일 음악회에서 2,628달러, 2001년 송년파티에서 1,054달러, 2002년 6월 1일 골프대회에서 330달러 등등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흑자를 기록한 원인에는 일부 뜻 있는 동문들이 프로그램 등에 광고를 쾌히 내주었고 상품 등을 기부하여 준 덕택이다.

나의 임기 중 무엇보다도 큰 보람을 느낀 행사는 지난 8월 19일에 있던 母校 음대연주단 미국 순회공연을 뉴욕 일원에 거주하는 동문과 교포들을 위하여 무료로 선사하고 이 음악회에 참석한 약 400명의 청중을 위하여 리셉션을 가짐으로써 뉴욕, 뉴저지, 케네디컷 동포들에게 친근하고 유익한 우리 동창회의 모습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물론 적지 않은 경비가 들었다.

2001년 9월 28일 취임식 때 나는 5년 전 최수용 18대 회장 재임 중에 발간된 뉴욕지구 동창회 주소록을 한번도 개정하지 않을 사실을 지적하고 새로운 주소록을 발간하겠다고 공약한 후 1년동안 각 단과대학 동창회장의 협조와 뉴욕에 있는 대한항공, 리버티 은행등 기업체와 뜻 있는 동문들의 도움으로 5년 반만에 새로운 뉴욕지구 서울대학교 동창회 주소록을 제작하여 미흡하고 불완전 하지만 현재 배포중이다.

나의 1년간의 경험에서 터득한 사실은 봉사정신과 열성으로 동창회장직을 수행하면 동창회원들에게 별로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유익한 동창회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임 중 뉴욕지구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선배 동문 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23대 뉴욕지구 총동창회 임원명단 (2001. 9. 1-2002. 8. 31)
회장: 한창선, 상임 고문: 정택수, 감사: 김창수
수석부회장: 김종을, 행사위원장: 고애자

▶단과대학 동창회장
간호대/서영숙(516-944-5049), 공대/곽선섭(201-670-6855), 농대/송용섭(973-614-1735), 문리대/최용열(201-461-8686), 미대/조기현(201-661-1099),

법대/강석권(212-683-6462), 사대/윤병남(917-225-3736), 골든클럽/정택수(718-358-7628), 상대/최수용(212-268-7955), 약대/성기호(718-358-3801), 음대/박상원(212-879-2900), 의대/정인용(908-647-8350), 치대/이성길(718-461-2725), 대학원/이수호(718-353-6207)

▶이사장: 추재욱
▶이사: 강석권, 곽선섭, 권영대, 권태전, 김세중, 김영덕, 김영만,



23대 이사장 추재욱동문(左)
24대 회장 김종을동문(右)

김종을, 김진승, 노용면, 박상원, 서영숙, 성기호, 송용섭, 성경숙, 신정택, 양문석, 오인석, 윤병남, 윤정옥, 이강홍, 이문휘, 이상복, 이성길, 이수호, 이재광, 이재덕, 이재원, 이진구, 장용순, 정도현, 정인식, 정인식, 정인용, 정택수, 조기현, 최구진, 최수용, 최영대, 최용열, 최일단, 최철용, 한창선, 함철호
▶고문: 박승서, 이범선, 김기웅, 진봉일, 현종건, 임건식, 김영근, 오민근

▣역대 뉴욕동창회 회장 및 이사장▣

▶회장
제 1대 최상봉(경성제대 법문학부), 제 2대 박승서(의대), 제 3대 이범선(상대)
제 4대 진철수(문리대), 제 5대 김병술(약대), 제 6대 현종건(음대)
제 7대 김정훈(공대), 제 9대 김기웅(치대), 제10대 임건식(음대)
제11대 노용면(의대), 제12대 진봉일(공대), 제13대 오민근(의대)
제14대 이진구(농대), 제15대 이문휘(문리대), 제16대 오인석(법대)
제17대 권태전(사대), 제18대 최수용(상대), 제19대 윤정옥(약대)
제20대 송관호(의대), 제21대 김영덕(공대), 제22대 최철용(농대)
제23대 한창선(문리대)
▶이사장
제 15대-16대 김영덕(공대) 제 17대-18대 이진구(농대) 제 19대 이문휘(문리대)
제 20대-21대 윤정옥(약대) 제 22대 김영덕(공대) 제 23대 추재욱(의대)

뉴잉글랜드 소식

서울대 동창회 2003년도 장학생 선발공고

뉴잉글랜드 지역 서울대 동창회에서는 2003년도 장학생을 아래의 요강에 따라 선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4명
- 장학금액: 개인당 \$500.00
- 지원자격: 뉴잉글랜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계 대학진학 예정자 및 대학 또는 대학원 학생(유학생 포함)
- 지원서류:
 - 지원서 1통 (지원서 용지는 www.snua.org에서download가능)
 - 추천서 1통 (소속학교 교수와 본대학 동창회원으로부터 각 1통)
 - 성적 증명서
 - 한글 또는 영문 Essay

선발규정: 경제적인 도움 필요 여건과 학업성적 참조
지원마감: 2002년 12월 31일(sharp)
서류제출처: Byong-le Han
584 Walden St. Concord, MA 01742
E-mail: benedict_han@hms.harvard.edu
Tel: 978-371-722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과 심사내용은 영원히 비밀입니다. 장학금은 2003년 1월 18일로 예정된 본 동창회 총회 식사에서 지급합니다.
뉴잉글랜드 서울대학교 동창회 장학위원회 위원장 한병의

워싱턴 DC 소식

23대회장에 이영목 동문(공대 59년입) 692명의 동문 새 주소록 발간

9월 28일 (토) 오후 6시 알링턴 소재 우래옥에서 개최된 워싱턴 지역 서울대학교 동창회 정기 총회에서 이영목 상임부회장 (59년 공대 입)이 제 23대 동창회장으로 만장 일치로 선출되었다. 전임 김국 총무(농대 75년입)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의 정기 총회는 진금섭 전임 회장(약대 57년입)의 인사말에 이어 사업 및 경과보고, 재무, 감사보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상임 부회장으로 박 평일 동문(69년 농대입)을 선출하였다.

동창회기의 인수로 새 회장에 취임한 이영목 동문은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임기 중에 동문회의 활성화를 약속하였다. 또한 이날 22대 회장단의 공약사업이었던 동창회원명부가 발간되어 참석한 동문들에게 배부되었다. 이 주소록에는 692명(단과대학별로 보면 간호대 38, 공대 118, 농대 15, 문리대 98, 미대 6, 법대 39, 사범대 44, 상대 76, 수의대 7, 약대 54, 음대 62, 의대 105, 치대 12, 인문대 5명과 여타)의 동문들이

수록되어 있다. <투고자 유희열 총무, 자연대 75년입>
진금섭 회장님 4고
맏으셨습니다!



전임회장 진금섭동문(左) 신임회장 이영목동문(右)
새로발간된 워싱턴 동문 주소록(下)



달라스 소식

북텍사스 동창회 활성화

-박인수 동문 초청음악회로 지역 한인학교 지원-

달라스 지역의 북텍사스 동창회 (회장 이병규, 약대 61년졸)는 그 간 신임 회장 취임 후, "소강 상태"에 있던 동창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데 최근 86명의 동문들의 주소를 확인하여 총동창회에 보내왔다(재미동창회는 조만간 전체 동문들에게 주소가 확인되는 대로 동창회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병규 회장이 재미총동창회에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금년에 다음과 같은 행사를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다.

▶4월 20일 야유회 개최
Lewisville Lake

▶5월 11일 대학진학 세미나를 개최하여 12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참가

▶6월 23일(일요일) 오후 7시 30분 모교 음대 교수인 박인수 동문 독창회를 Irving Arts Center에서 개최하여 700여 관중이 참석하였다. 이 음악회는 박인수 동문과 그의 제자들인 박은식(피아노), 김성준(테너), 엄경목(바리톤), 윤길웅(테너) 동문 등이 출연하여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제 1부에서는 새타령,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이별가, 한 오백년, 뱃노래, 거문도 뱃노래, 임당수 뱃노래, 신고산 타령과 농부가 등의 민요가 열창되었고, 제 2부에서는 고향생각, 가을바람, 고향의 푸른잔디, 목련화, 그리운 금강산, 오! 나의 태양, 여자의 마

음, 돌아오라 소렌토로, 저 타오르는 불꽃을 보라, 친구여, 향수, 희망의 나라로 등의 가곡과 아리



로 지역동포들에게 고국의 향수를 새롭게 하였으며 음악회의 수익금 2000불을 한인학교에 회사하였다.

이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많은 동문들이 힘을 모았다. 북텍사스 동창회는 이 음악회의 준비를 위하여 협찬하신 동문들과 광고를 게재하신 업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음악회 준비위원회>
고문-권혁초, 김옥균, 김인숙, 김인호, 김정환, 김종원, 민정숙, 서태근, 이남규, 이웅근, 이정자, 이찬대, 임성빈, 장상욱, 정철웅, 정태용, 정호안, 조준영, 조진태, 조광영, 최근자, 최취기, 황명규
준비위원장-문인선, 방덕수, 임

정숙
부위원장-강성호, 유영준, 윤길웅, 이광훈, 정혜진, 조익현, 최연

운영위원-김송영, 마광일, 유지연, 윤수경, 이정윤, 이화정, 임정신, 전미경

준비위원-강병찬, 김계수, 김나



중, 김상돈, 김광한, 김영철, 김정대, 김정우, 김태승, 김형선, 김학현, 김홍우, 민동식, 박준섭, 박진섭, 박호웅, 박현주, 박흥수, 백해태, 변복섭, 서원후, 손진희, 신철영, 엄방원, 윤귀현, 윤영주, 이기반, 이도준, 이덕형, 이명자, 이상국, 이상훈, 이석호, 이준, 이희덕, 전중희, 정경화, 정병호, 정재수, 정현주, 정희자, 조문기, 조성규, 최면순, 함희철, 호요철

▶10월 19일 동창회 친선 골프 대회

▶12월 8일 송년 가족 음악회 및 정기 총회를 Omni Hotel에서 개최 예정. 동문 가족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있다.

박교수 이야기

-박인수 교수 음악회에 초대합니다-

준비위원장 임정숙(음대 59년입)

6월의 싱그러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테너 박인수 교수의 음악회가 우리 고장 달라스에서 열리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이 음악회를 준비하는 준비위원회 한 사람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광명으로 여깁니다.

박인수 교수는 대학시절부터 크게 성공이 약속된 유망주였다. 타고난 재능과 아름다운 미성,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적인 노력과 끈기가 돋보였고,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확신이 넘쳐있는 매력적인 남학생이었다. 그에 대한 나의 특별한 감회는 나의 가장 절친한

친구인 안희복을 그는 끈질기게 구애하며 따라다녔고, 끝내는 그의 열정 때문에 그의 반려자가 되었는데, 그 둘이 벌리던 사랑의 숨바꼭질을 돕던 일은 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았으며, 우리는 40년이 넘는 친구가 되었다.

1971년 New York에서 수학중인 박교수 부부를 만나러 갔을 때다. 우리 부부를 오페라 가수들이 모이는 큰 무대가 있는 Opera Cafe로 안내해서 주옥같은 아리아들을 노래해 주었는데, 그 때의 목소리는 천상의 노래 황홀함 그 자체여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 후부터 박교수는 미국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Opera의 주역으로, 격찬받는 독창자로 활약하다가 모교인 음악대학의 부름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가 후진양성을 위해 힘쓰는 한편 지금까지 300여 차례의 Opera주역으로 매년 수많은 동창회와 자선 음악회를 열어 새로운 음악 장르를 마련하고,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을 접목시키며 국민들이 원하는 음악이 무엇인가를 개발하는 한국 악단의 거장으로 높이받고 있다.

순수 음악의 전당에서 가르치는

감사의 말

동문 여러분과 음악 애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대학교 동창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박인수 교수 독창회에 참가해 주신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줄



포들이 단결하여 작은 일에서 벗어나, 더욱더 큰 뜻과 사회봉사에 마음을 두고 정진할 수 있다면 결코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인의 한국이

차려진 어빙 문화은 환경에서 영화를 누리는 위치에 계시는 우리 동포님, 또 하루하루 생존 경쟁에 지친 동포님, 어떠한 위치에 계시든지 바쁘고 적막하기만 한 이민생활에 그리운 고국을 마음으로 그려보지 않은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비록 몸은 고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미국 동포들이 흘리는 땀과 피는 한국인의 긍지이자 전 세계에 대한 기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금까지 어렵게 지어 올린 시기에 우리 동

관에서 우리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오늘 박인수 교수의 가곡을 통해 흠뻑 느껴보며, 우리 동포들의 이상을 더 높이는 단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임이 있기 위해서 협조와 봉사를 아끼지 않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북텍사스 지역동창회 회장 이병규 드림.

휴스턴 소식

동창회 장학금 모금 음악회 개최

- 9월 7일 토요일, Adam's Mark Hotel -

서울대학교 동창회 휴스턴 지부에서는 지난 9월 7일 토요일 Adam's Mark Hotel에서 장학금 모금 음악회를 Houston지역에 사는 여러 동문들과 함께 가졌다. 휴스턴에서 활동하시는 5명의 음악가들이 초청에 응해주셨다. 유명순님은 민요와 국악 성가를, 신항숙님은 Puccini의 Opera Aria를, 주연선님은 Fabbro의 피아노반주와 함께 Cello Sonata를, 그리고 박소영님은 Chopin의 피아노곡을 연주하였다. 그리 큰 무대는 아니었지만 열정적인 연주가 압도적으로 청중들을 사로잡

았다. 휴스턴 지부에서는 매년 성적이 우수한 학생, 지도력이 탁월한 학생, 예능에 뛰어난 학생, SAT 영어성적이 높은 학생, 그리고 성적이 우수하면서 Texas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이렇게 5명의 학생들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500씩 지불하고 있다. 음악회에 참석하신 동문들의 성원과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여러 동문들의 성원으로 내년도에 쓸 장학금 모금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투고자-이재용(공대 88) 총무>

교수의 신분으로 대중가요 가수와 함께 부른 향수는 열광적인 인기와 함께 환영과 지탄을 동시에 받았으나, 그의 음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의 벽을 허물어, 새로운 음악풍토를 개척하는 선구자요, 국민가수가 되기도 하였다.

요즘 박교수는 순수 우리 민요를 노래해 또 다른 선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다. 민요는 민심을 대변하는 노래들이며 기쁜 소리, 화난 소리, 슬픈 소리, 즐거운 소리, 민의 모든 삶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소리들이기 때문이다. 민의 노래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래 해온 성악가인 박교수가 민의 소리를 대변하는 민요를 불러 선풍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 외에도 박교수가 한국 음악사에 남긴 커다란 발자국은 말할 수 없이 많다.

오늘 밤 박인수 교수 동창회가 Dallas교포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아름다운 음악회가 이루어 질 것을 나는 믿으며 박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시카고 소식

신수정 · 이경선 교수 연주회 11월 7일(목) 8시

North Shore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Skokie

서울대 음대 동문이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수정 교수님과 이경선 교수께서 UN에서 연주를 한 후, 이곳 시카고에서 오는 11월 7일 저녁 8시에 North Shore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in Skokie에서 피아노/바이올린 듀오 리사이틀을 갖습니다. 이 음악회는 서울대학교 시카고지역 동창회와 한인사회복지회



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한인사회복지회 (733)-583-5501로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참석하셔서 아름다운 선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료원: 시카고지역 동창회)

시카고 지역 동창회(회장 한재은) 2002년도 행사

- ◆11월 2일(토) 제 4차 임원회, 황치용 부회장님
- ◆11월 7일(목) 지역사회봉사
신수정, 이경선 연주회
Skokie Performing Arts Center
- ◆11월 30일(토) 총회 및 연말 Party.
Raddison Hotel(Lincolnwood)

웹사이트 www.snuaachicago.org



2002년 동창회총회 및 송년회

저물어 가는 2002년을 정리하고 희망의 새해를 계획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친애하는 동문들을 모시고 뜻있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자 아래와 같은 좋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부디 부부동반 참석하시어 다시 한번 동창회 연례 총회와 연말 파티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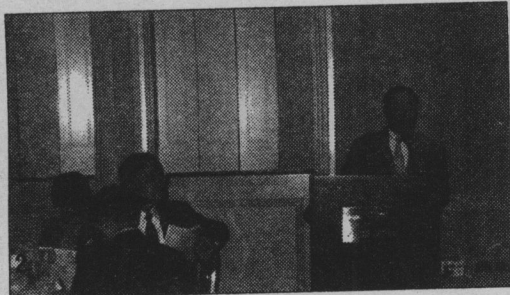
- ▶일시: 2002년 11월 30일(토요일)
- ▶장소: Radisson Hotel
4500 West Touhy Ave, Lincolnwood, IL
847-677-1234
- ▶회비: 일인당 \$65 (학생동문은 일인당 \$20)
- ▶연락처: 황치용 부회장 847-895-2814
김동휘 부회장 630-655-2320
장기남 수석 부회장 630-321-1943
김영 재무 630-655-2320
이승자 총무 847-564-5948

서울대학교 시카고지역 동창회
회장 한재은 올림

제 2차 이사회 회의록

10월 5일 오후 6시, Oak Brook Hills Hotel

2003년도 부회장 최희수 · 강영국동문, 차차기회장에 전현일동문



2002년도 제 2차 이사회가 10월 5일 오후 6시에 Oak Brook Hills Hotel에서 개최되었다. 총 61명의 이사와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정족수 확인이 있는 후 김동휘 부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서 한재은 회장의 인사와 더불어 2002년도 동창회 행사 요약이 있는 후 아래와 같은 회의 순서는 진행되었다.

1. 정족수 확인 및 개회 선언- 김동휘 부회장
2. 회장 인사- 한재은 회장
3. 고 이동찬 동문(미대 61졸)과 이재선 동문(문리대 61졸) 추도 묵념
4. 참석 이사 소개- 장기남 수석 부회장
5. 제 1차 이사회 회의록 / 행사 보고- 이승자 총무
6. 재무보고-김영 재무
7. 차차기 회장 (2004년도) 추천/인준- 한재은 회장:
차차기 회장으로는 10여년간 회

계로 수고하신 전현일(농대 66졸) 동문이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인준되었다.

8. 차차기 회장 (추천)인사:
전현일 동문은 출타 중으로 회의에 불참하였으나 2004년도 회장으로 추천받음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모든 동문제위가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차차기 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수락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와 한재은 회장의 낭독으로 인사를 대신하였다.

9. 차기 회장단 및 감사 추천 및 인준- 장기남 차기회장:
장기남 차기 회장은 2003년도 부회장으로 최희수(문리대 67입) 동문과 강영국(수의대 67입) 동문을 각각 추천 인준받았다. 또한 감사로는 이철주(치대 77입)와 한의일(공대 66졸)동문을 추천하여 인준받았다.

10. 장학금 관리 현황보고- 박종희(의대 75년졸)관리 위원장:
장학금 관리 현황보고에 있어 현재 금융시장이 양호하지 않아 2002년 장학금 \$5,000을 동창회 기금에서 대차하여 지불할 것의 건의 추천함에 여러 의견의 교환이 있었으나 결국 가결을 보았다.

11. 장학생 선발보고- 한재은 회장:
장학생 선발은 선발위원회에서 모든 심사결과 선발된 장학생들을

이사회에서 인준해 줄 것을 제안하여 결의를 보았다.

12. 관악지 발간 중간보고:
총무 이승자 동문이 육길원 편집 간사를 대신하여 동문 여러분들의 투고를 부탁하였다.

13.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현황보고- 이용락 미주 총동창회장:
이용락 회장은 힘든 중에도 동창회원들의 많은 찬조와 노력으로 지나간 일년을 성공적으로 모든 행사와 "재미 서울대동창회보"를 중단없이 발간하였음에 감사의 뜻을 피력하였다.

14. 기타사항에서:
a. 신수정, 이경선 Piano/Violin 음악 연주회는 오는 11월 7일 목요일에 Skokie에 위치한 North Shore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에서 있을 예정이며 입장권 100매를 시카고 동창

회에서 소화할 것을 수석 부회장 장기남 동문이 설명하였다. 이에 이소정 동문(음대졸)은 연주자들의 탁월한 학력과 경력에 대해 자세히 발표를 하였다.

b. 총회 및 연말 파티 준비는 황치용 부회장의 총괄 하에 우선 초대장을 전 회원들에게 보내며 참석 여부를 미리 확보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그

나머지 모든 준비는 다음 임원회에서 자세히 토론하도록 하였다.

15. 8시 15분 경에 김동휘 부회장의 폐회 선언 후 곧 만찬에 들어갔다.

<투고자 이승자 총무>



<사진설명> ①전현일 동문부부-10년간의 만년재무의 공덕을 쌓은 후 고향 재판으로 2004년 회장의 중책을 맡은 전현일 동문부부 ②개회 인사를 하는 한재은 회장 ③장학기금관리 보고를 하는 박종희 동문 옆에 시회를 하는 김동휘 부회장 ④참석이사를 소개하는 장기남 수석 부회장 ⑤만찬장의 동문들 ⑥동문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서승환 동문 ⑦협담하는 동문들 (가운데가 문필가인 노재욱 동문)



모교소식

대학원장에 白忠鉉교수 취임

지난 8월 13일 모교 대학원장에 법대 법학부 白忠鉉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白忠鉉대학원장은 61년 법과대학을 졸업, 71년 하버드대에서 석사학위, 76년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무처장, 법대 학장, 대한국제법학회



장 등을 역임했다.

黃俊淵학생처장·朴鍾根연구처장

기획실장에 柳根培교수 선임



黃俊淵 학생처장



朴鍾根 연구처장



柳根培 기획실장

지난 8월 1일 모교 학생처장에 음대 국악과 黃俊淵교수, 연구처장에 공대 전기·컴퓨터공학부 朴鍾根교수, 기획실장에 사회대 지리학과 柳根培교수가 각각 선임됐다.

黃俊淵학생처장은 72년 음대를 졸업하고, 91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음대 부학장, 동양음악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朴鍾根연구처장은 73년 공대를 졸업한 후 82년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공대 전기공학과장을 지냈다.

柳기획실장은 77년 사회대를 졸업한 후 86년 조지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토문제연구소장, 사회대 학생부학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지난 8월 6일 교무부처장 겸 기초교육원장에 인문대 영어영문학과 邊昌九(74년 文理大卒)교수가 선임됐다. 13일

학생부처장에 사범대 사회교육과 李美娜(77년 師大卒)교수가 선임됐다.

공과대학 학장에

전기공학부 韓民九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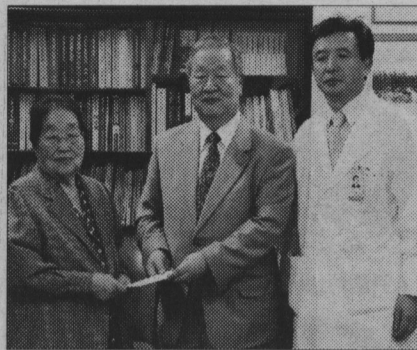


지난 7월 16일 모교 공과대학 학장에 전기컴퓨터공학부 韓民九교수(사진)가 취임했다.

신임 韓학장은 71년 모교 공대 전기공학과를 졸업, 82년 존스홉킨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대 부학장, 다산기술상 심사위원장, 한국학술진흥재단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89세 이금주 할머니

전 재산 3억원·33평 아파트 의학발전 기금으로 기부



지난 9월 24일 올해 89세의 이금주 할머니(左)가 하숙집을 운영하며 모은 전 재산을 근신 경계질환 환자를 위해 써달라던 모교 의대 李鍾郁학장(中)에게 전달했다.

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고귀한 마음을 전달했다.

이 할머니는 해방 이전 이북에서 유복한 시절을 보냈지만 고향을 떠나 인천에 살면서 혹독한 가난에 고생했다. 근검절

20여 년을 퇴행성척추증, 말초신경병증으로 모교 병원 신경과 李光雨교수의 치료를 받아 오고 있는 이 할머니는 이날 평생 모아 온 현금 3억원과 현재 살고 있는 33평 아파트와 비슷한 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

약의 습관 때문에 고령의 나이와 질환으로 보조기에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자 집안을 청소하고 오래된 물건을 고쳐 사용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그동안 모교 병원 신경과에 다니면서 조기에 치료를 받을 경우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많은 퇴행성 신경계질환 환자들을 많이 만났으며 그때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매주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 근육병, 심장병, 백혈병 등으로 어렵게 투병하는 환자들의 모습에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가슴 아파해왔다고 전했다.

이번에 기부 받은 의학발전기금 전액은 모교 병원 신경과 근신경계질환의 연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모교 병원

강원도 양양 수재민에 의료봉사

모교 병원(원장 朴容岐)은 갑작스런 집중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도 양양에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동안 긴급

의료지원단(단장 응급의학과 李重宜교수)을 파견, 실의에 잠긴 수재민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소아과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약사, 행정지원팀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첫날 양양군 내 서면 장승리 경로당에 임시진료소를 마련하고 수재로 외상, 피부병 등 부상과 질병을 앓고 있는 수재민을 진료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앰블런스

스 예방접종을 하는 등 방문진료를 했다.

둘째 날인 10일 집중호우로 마을 전체가 잠겼던 강현면 전진리와 주청리에서 진료를 펼친 버스 진료팀과 별도로 앰블런스 지원팀은 폭우로 1백70여 채의 집들이 완전히 휩쓸려나간 현북면 대치리와 상광동리 등 수몰 산골마을을 찾아다니며 방문진료를 펼쳤다.

85종의 의약품과 39종의 의료재료 등을 갖춘 의료지원단은 이번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버스와 앰블런스를 동원해 양양군 서면, 강현면, 현북면의 산간오지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 및 검사, 투약을 해 수해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진료봉사로 지원단은 이틀동안 총 2백55명에게 8백여건의 진료와 1백8명에게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雙)

同門동정

丁浩 박사(공대 66년졸)미국 기계공학학회 국제 학술대회 주재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세계 최대 과학 기술 학회 중의 하나인 미국 기계공학 학회(ASME)의 PVP Division 회장이 정 호 박사는 지난 8월초 Canada의 Vancouver에서 열린 연례국제학술대회(PVP-2002)의 대회장으로 학술대회를 주관하였다.

이 학술대회는 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최고수준의 학술대회로 33개국에서 700여명의 과학 기술인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丁 동문은 이 학술대회에 공식 Sponsor로서, 유럽 및 일본의 기계공학학회 이외에 한국 기계공학학회(KSME)를 이 학회 역사상 처음 한국의 과학 기술인을 대거 초청하는 한편,

한국전력연구원 원장 윤맹현 박사를 Keynote Speaker로 초빙하여 한국의 위상을 세계무대에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尹원장은 그의 Keynote Speech에서 제네바 협정에 의거, 북한이 원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한에 두개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KEDO (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Project의 배경과 진척상황, 그리고 한국의 역할을 소개하여 많은 이해와 관심을 이끌어 내었다. 이 PVP-2002 국제 학술대회는 주로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한 전력 발전 설비와 그의 안전성을 다루는 세계적인 학술 대회이다. 자세한 학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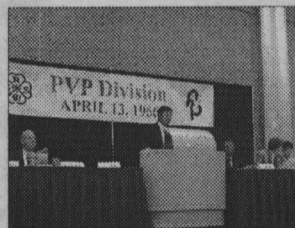
회 내용은 Internet Web Page (www.asme.org/conf/pvp02)를 통해서 볼 수 있다.

학술대회 시작 전야제로는 한국전력연구원의 후원으로 세계 수준급의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Russia의 유명한 Moscow String Quartet의 제 1 Violin 주자인 Eugenia Alikanova와 현 위스컨신 대학교 피아노과 정명희 교수를 초청하여 모짜르트, 베토벤과 브람스의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를 연주하여, 학술대회를 더욱 빛나게 하였으며, 예술분야에도 한국계 음악인의 국제활동을 진작시켰다.

정 호 박사는 25년 동안 시카고 서부지역의 국립 알곤 연구소의 研究員으로 재직했으며 재미 과학 기술인 협회(KSEA) 29대 전국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미국 기계 공 학 학 회 (www.

asme.org) PVP Division 회

장을 역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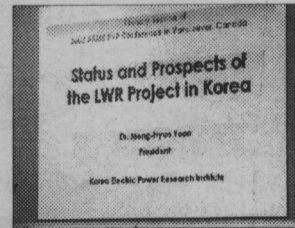


미국 기계공학회 학술대회를 주재하는 정호동문(좌) 한국전력연구원 원장 윤맹현 박사 기조연설문 표지

<19면 오하이오 동문 소식에서 계속>

이 지역의 동포들과 함께 지난 6월 29일 Dayton에서 열린 한국전 50주년 기념 시가행렬에 참가하여 태극기와 한국해병대깃발을 들고 Dayton에 있는 한국전 기념 전적비까지 행진하였는데,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한국전 참전용사가 참여하였으며, 행사 후에는 참전용사회가 주최하는 만찬에도 참석하였다.

또한 최 동문은 Corea



정호동문(좌) 한국전력연구원 원장 윤맹현 박사 기조연설문 표지

Alpine Club과 한국 금속재료 연구소 종신회원이며, U.S. National Ski patrol팀의 종신회원으로서 매주 12시간씩 중부 오하이오에 있는 Mad-River Mountain Ski Resort에 자원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하이오의 한국학교 교장, 한국 학교 기금모금 위원장 및 중부오하이오의 한미위원회 회장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동 정

수 상

▲李信子(55년 美大卒·갤러리 우덕 고문·美大同窓會長)=지난 9월 5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4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미술부문)을 수상함.

▲金正鈺(56년 文理大卒·한국 문화예술진흥원장)=지난 9월 10일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예술문화훈장 「코망되르」를 수상함.

▲李御寧(56년 文理大卒·중앙일보 고문·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9월 16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한토목학회가 수여하는 제1회 松山賞(문화부문)을 수상함.

▲柳宗鎬(57년 文理大卒·연세대 교수)=지난 10월 11일 동아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6회 仁村賞(문학부문)을 수상함.

▲尹任重(59년 醫大卒·대한산업보건협회장)=최근 미국안전협회로부터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국제산업안전보건 명예의 전당」 수상자로 선정됨.

▲高建(60년 文理大卒·前서울시장·명지대 석좌교수)=지난 9월 17일 몽골 정부로부터 북극성 훈장을 받음.

▲李在淑(63년 音大卒·모교 국악과 교수)=지난 9월 5일 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제47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음악부문)을 수상함.

▲全鳳倫(64년 文理大卒·다운센터 소장)=지난 10월 11일 동아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6회 仁村賞(공공봉사부문)을 수상함.

▲尹鍾龍(66년 工大卒·삼성전자 부회장)=지난 10월 11일 동아미디어센터 강당에서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와 동아일보사가 공동으로 제정한 제16회 仁村賞(산업기술부문)을 수

상함.
▲吳炳煥(73년 農大卒·모교 지구환경시스템 공학부 교수)=지난 9월 16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한토목학회가 수여하는 제1회 松山賞(학술부문)을 수상함.

▲崔炳寅(74년 醫大卒·모교 진단방사선과학교실 교수)=최근 미국초음파 의학회(AIUM)가 수여하는 「2003년도 명예학자상」 수상자로 선정됨. 시상식은 내년 6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세계초음파의학회 개막식에서 열린다.

▲柳根榮(75년 師大卒·KBS 보도본부장)=지난 9월 16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대한토목학회가 수여하는 제1회 松山賞(인문부문)을 수상함.

▲丁海日(78년 醫大卒·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제주 롯데 호텔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 소아신장학회에서 「최우수 초록상」을 받음.

▲金正寬(82년 經營大卒·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지난 9월 25일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 제13회 辜雲문화상(정의부문)을 수상함.

▲曹秀美(81년 音大·소프라노)=지난 9월 27일 류관순기념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제18회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함.

이동·선임

▲閔丙峻(56년 師大卒·한국광고주협회장·本會 副會長)=지난 9월 5일 세계광고주연맹(WFA) 아태지역 담당 부회장에 선임됨.

▲金鎭炫(58년 文理大卒·세계평화포럼 이사장·本會 副會長)=최근 미국 앨라배마주 버밍햄시에 설립된 세계아동공동체(ICC) 국제고문에 위촉됨.

▲裴茂基(62년 商大卒·울산대

총장)=오는 2004년 6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노사관계학회 제5차 아시아대회 조직위원장에 선임됨.

▲金光鎬(65년 農大卒·건국대학교 교수·한국육종학회 회장)=지난 9월 2일 건국대 제10대 농축대학원장에 취임함.

▲尹國炳(66년 文理大卒·한국일보 수석부사장)=지난 8월 30일 한국일보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崔永煥(67년 行大院卒·한국과학문화재단 이사장)=지난 9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에 위촉됨.

▲李鍾昇(69년 師大卒·충남대학교 교수)=지난 9월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선임됨.

▲李榮蘭(71년 法大卒·숙명여대 교수)=지난 8월 27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됨.

▲金鍾勳(72년 農大卒·매일경제신문 이사·本報 論說委員)=지난 9월 4일 매일경제신문 MBN 관리담당 상무 겸

관리·기술국장에 선임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뉴미디어본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9월 11일 한국디지털 위성방송(Sky Life) 주

주총회에서 사외이사에 선임됨.
▲徐南洙(75년 文理大卒·교육인적자원부 대학지원국장)=지난 9월 12일 모교 사무국장에 임명됨.

▲姜吉夫(84년 環大院卒·前건설교통부 차관)=최근 경기대 정치전문대학 교수로 부임해 「지방자치론」, 「남북한교류협력론」 등을 강의함.

행사·출간

▲金雲泰(48년 文理大卒·모교

冠岳山에서 浩然之氣를 나눴시다

10월 20일. 일요일. 모교 대운동장. 관악산 등반. 농생대 수목원 집결.

Home Coming Day 겸 서울대 가족 친목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다고 하여 모교를 알마 마터(Alma Mater)라고 하지요. 冠岳의 품속에서 추억여행과 함께 서울대인의 浩然之氣를 펼쳐 보입니다.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決氣를 다집니다. 서울대 가족 여러분을 모교의 품으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행정학과 명예교수)=지난 9월 12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저서 「한국 정치·행정사전집」 출판기념회를 가짐.

▲金相度(49년 文理大卒·한국장묘문화개혁국민협의회 이사장·本會 顧問)=지난 9월 25일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지방자치와 추모시설 확충」을 주제로 창립 4주년 기념대토론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지난 9월 27일 하얏트호텔 튜립룸에서 국립암센터 朴在甲(73년 醫大卒)원장을 초청, 「암의 예방과 치료」를 주제로 10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鄭然世(57년 工大卒·한국선급엔지니어링 회장·海港會 회장)=지난 9월 5일 해양회 사무실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해양수산부 전·현직 자녀 28명에게 장학금 1천만원을 전달함.

▲金芝烈(60년 美大卒·서울시미술협회 감사)=지난 9월 3~13일 한국야쿠르트빌딩 갤러리 우덕에서 개인전을 열고 「누드」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임.

▲南正鉉(61년 工大卒·대우엔지니어링 회장·한국산악회 회장)=지난 9월 28일 미국 콜로라도주 골든에서 열린 미국 산악회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함. 또 10월 1~6일 에리조니주 플래그스태프에서 개최된

국제산악연맹(UIAA) 총회에 참석함.

▲李相完(61년 醫大卒·서울정형외과 원장·대한교통의학회 명예회장)=지난 9월 22~25일 카이로에서 열린 제18차 국제교통의학회에 참석, 「한국 등 중진국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해 발표함.

▲金新顯(62년 美大卒·전업미술가협회 회원)=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청담동 유나화랑에서 「樂律」을 주제로 다섯 번째 개인전을 가짐.

▲朴香淑(62년 美大卒·서울여대 교수)=지난 9월 16일부터 27일까지 핀란드 Evtek Institute of Art & Design에서 염색작품전을 가짐.

▲徐丙喆(63년 文理大卒·통일연구원장)=지난 9월 19일 한국언론재단 기자회견장에서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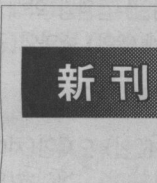
▲金東建(65년 商大卒·모교 행정학과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지난 9월 13~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IMF와 함께 「정부간의 재정협력」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짐.

▲崔圭鶴(65년 行大院卒·한국소비자보호원장)=지난 9월 26일 타자와젠이치 일본가전제품 PL센터장을 초청, 업종별 PL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

▲李鍾協(66년 音大卒·중앙대 교수·협스트링앙상블 음악감독) = 지난 10월 10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金起宰(77년 音大卒·중앙대 교수·바이올리니스트)동문 등과 함께 협스트링 앙상블 제17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金準次(63년 音大入·서울챔버앙상블 음악감독) = 지난 10월 15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서울챔버앙상블 제23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함.

▲曹相鎬(67년 行大院卒·前체육부 장관·창조장학회 이사장) = 지난 8월 31일 서울 강북 대학원 소강당에서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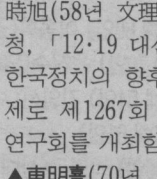


년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짐.

▲金春玉(68년 美大卒·한국전업미술가협회 이사장) =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잠원동 갤러리 우덕에서 「幽玄」을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張萬基(68년 經大院卒·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지난 9월 26일 롯데호텔 벨뷰룸에서 아시아신문재단 한국위원회 南時旭(58년 文理大卒)회장을 초청, 「12·19 대선정국의 전망과 한국정치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제126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개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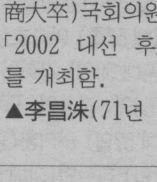
▲申明薰(70년 美大卒·모교 강



품함. 또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갤러리 리즈에서 李貞演(75년 美大卒·SADI 교수)·李珉柱(80년 美大卒·모교 강사)·成京姬(83년 美大卒·모교 강사)동문과 함께 4인4색展을 가짐.

▲金基道(72년 新大院入·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 지난 9월 25일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을 초청, 「2002 대선 후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함.

▲李昌洙(71년 音大卒·코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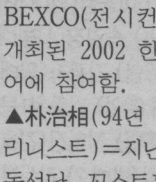


사) = 지난 9월 2~21일 일본 갤러리 LA FENICE 에서 열린 한일교류전에 작품을 출

심포니 수석·클라리넷) = 지난 10월 1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金亨燮(76년 音大卒·숙명여대 강사·오보에)·金泳律(80년 音大卒·모교 교수·호른)동문 등과 함께 「가을, 그 고전의 향기」를 주제로 아울로스 목관 5중주 제13회 정기연주회를 가짐.

▲鄭仁植(78년 工大卒·부산정인갤러리 대표·부산화랑협회 상임감사) = 지난 9월 3일부터 8일까지 부산 해운대 BEXCO(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02 한국 국제 아트페어에 참여함.

▲朴治相(94년 音大卒·바이올리니스트) = 지난 10월 14일 명동성당 프스트홀에서 「바흐와 함께 하는 저녁」이라는 주제로 열린 돔앙상블 제17회 정기연주



회에서 협연함.

▲沈甲輔(3기 AMP·삼익LMS 부회장) = 지난 9월 24일 영남대 인문관 강당에서 「디지털 시대 - 기업이 바라는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함.

▲鄭壯皓(14기 AMP·한국정보통신협회장) = 지난 9월 16일 베트남 정보통신연구소에서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베트남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음.

▲金澈運(33기 AMP·한국물가협회장·충효에실천운동본부 총재) = 지난 9월 26일 LA 용수산에서 개최된 충효에실천운동본부 미서부지역 창립총회에 참석, 지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

▲朴成得(20기 ACAD·전자신문 사장) = 지난 9월 18일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전자신문」 창간 20주년 기념식을 가짐.

▲朴尙東(2기 EPHPM·동서한방병원장) = 지난 9월 16~18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에 의료봉사단을 파견,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함. 또 14일 서대문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함.

(정리=安興燮 기자)



新刊

■ 나는 세상을 고치는 의사이고 싶다
—李吉女 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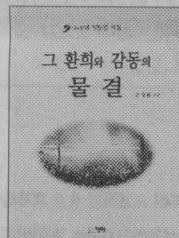


산부인과 의사로 출발, 의료·교육·언론·문화재단의 경영자로 우뚝 선 李吉女(57년 醫大卒·경원대 총장·의대동창회장·본회 부회장)동문의 감동적인 인생 스토리를 담은 책.

이 책은 어쩌면 李동문의 자전 에세이가 아니라, 그의 생활 철학인 「박애와 봉사애국」의 전도서요, 「베푸는 삶」에 대한 지침서일지도 모른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거대한 대나무의 마디마디처럼 도전과 성취로 일관해 온 인생 역정에 대한 담담한 서술을 통해 평생을 이타적으로 살아온 그의 삶에 진지하게 동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 담겨 있는, 그토록 치열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점철된 그의 삶의 편린들에서 우리는 삶의 묘약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사刊·값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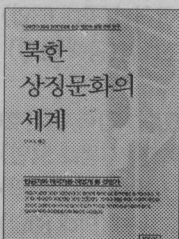
■ 나의 아버지 金醫師 / 그 환희와 감동의 물결
—金守經 著

모교 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金守經(63년 齒大卒·서산의료원 구강암예방연구소장)동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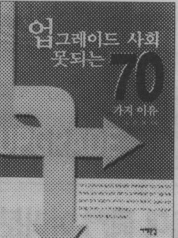
이 隨想錄과 2002년 월드컵 시집을 펴냈다. 국제펜클럽·한국시인협회 회원인 金동문은 「나의 아버지...」에 의사로서 교육자로서 농촌계몽가 또는 농부로서 지내다 타계한 부친에 대한 기억들을 담았으며, 「그 환희...」에서 첫 승의 환희, 잠 못 이루는 밤, 불굴의 한국혼, 붉은 물결 후의 희망 등 1백여 편의 시를 통해 월드컵의 환희와 감동을 표현했다. (도서출판 가야·각권 값8,000원/5,500원)

■ 북한 상징문화의 세계
—林采郁 著



북방문제 연구소 부소장인 林采郁(64년 文理大卒)동문이 우리가 아주 막연하게 알고 있는 북한 상징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남북한이 화해하고 협력하려면 서로간에 많은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북한의 상징 문화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혹은 무지한 것을 염려해 북한 상징문화의 본질을 밝혀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더 심도 있는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화산문화刊·값7,500원)

■ 업그레이드 사회
못되는 70가지 이유
—金基德 著



KBS 뉴욕특과원을 역임한 金基德(72년 新大院卒·부경대 신문방송학과 초빙 교수)동문이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담았다. 金동문은 우리 사회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며 살아가는 「제 멋대로 가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사회현상의 원인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선 정신적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해문집刊·값9,500원)

公演

■ 林慶園첼로독주회
—10월 17일 예술의 전당



진지한 해석과 유려한 테크닉을 자랑하는 첼리스트 林慶園(85년 音大卒·성신여대 교수)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아나체크, 베토벤, 쇼팽, 프로코피에프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李碩垞호른독주회
—10월 28일 예술의 전당



호른리스트 李碩垞(95년 音大卒·KBS교향악단 수석단원)동문이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독주회를 열어 퍼시케티, 슈트라우스, 프랑세, 칼리보다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展示

■ 多涓 李敬子 개인전
—10월 23일 인사아트센터



한국미협 회원인 李敬子(61년 美大卒)동문이 「野濕觀照」를 주제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다섯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80년대 이후 수묵담채화에 정진해온 李동문은 자연에 존재하는 물상 가운데서도 특히 늪의 정경을 즐겨 다룬다. 그의 작품에는 늪을 통해 인생의 의미를 깨우치려는 실존적 의식이 담겨 있다. (전시 문의: 인사아트센터 736-1020)

華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회축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 * 구본기 군·이주현(00년 保大院卒)양=10월 19일 12시 30분.
- * 임철현(95년 工大卒)군·이정연 양=10월 19일 15시 30분.
- * 김호준(01년 人文大卒)군·최진주 양=10월 26일 14시.
- * 이흥진(98년 工大卒)군·황지혜 양=11월 2일 14시.
- * 최정일(00년 社會大卒)군·고연주 양=11월 3일 14시.
- * 정정기(96년 家政大卒)군·최명숙 양=11월 9일 12시 30분.
- * 김종욱(99년 工大卒)군·권선이 양=11월 9일 15시 30분.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	지부명	명 단
01	남가주	174 <p>이 승(공대 59입) 임낙균(약대 64입) 민경탁(의대 61입) 호기원(치대 70졸) 최순자(약대 53입) 박영근(상대 56입) 광철(법대 64입) 최준호(치대 58입) 신정현(미대 59년입) 서관석(미대 67년입) 이양구(상대 57입) 이홍표(의대 60입) 방윤자(문리대 59입) 임재영(공대 59입) 박익순(\$50 수의대 74입) 김창섭(\$100 약대 44년입) 최예섭(치대 45년입) 강형운(농대 52년입) 김옥권(미대 76년입) 배효식(문리대 52년입) 이명선(상대 58입) 오인근(약대 59입) 유진형(상대 48입) 이병희(공대 61입) 최명룡(음대 ?) 김재신(음대 60입) 이동성(의대 53입) 박태호(치대 66입) 탁해숙(음대 67입) 이효경(치대 63입) 홍훈정(음대 70입) 이병희(수의대 75입) 노봉식(음대 ?) 오형원(의대 53입) 송길장(사범대 58입) 홍경삼(문리대 61입) 이정옥(공대 52입) 강배영(상대 54입) 황봉찬(문리대 48입) 김창무(음대 53입) 김은희(치대 50졸) 고재천(공대 57입) 김동익(법대 57입) 김광자(약대 62입) 조만연(상대 58입) 김해인(가정대 69입) 김종원(문리대 69입) 이호일(의대 60입) 강영만(상대 72입) 서동영(사범대 60입) 이동휘(공대 63입) 김태웅(의대 63졸) 배재호(공대 58입) 나민주(음대 65입) 정현진(간호대 72졸) 황석우(의대 53입) 윤병인(의대 64입) 박범순(가정대 70입) 윤진수(의대 57입) 노병일(경성법학전문 41졸) 김생철(법대 ?) 김성복(공대 59졸) 임선영(음대 57졸) 안승호(공대 71입) 이완규(공대 54입) 김일선(사범대 67입) 정기정(상대 69입) 권대원(대학원 59입) 윤방현(사범대 53입) 최재현(수의대 66입) 이상학(공대 59입) 김학천(치대 71입) 노명호(공대 61입) 고용규(의대 67입) 김윤걸(자연대 77입) 임용오(의대 57입) 탁의용(상대 58입) 김상익(공대 46입) 조정시(공대 60입) 박명근(상대 63입) 정황(공대 64입) 김원탁(공대 65입) 신동국(수의대 76입) 김정협(치대 59입) 도영미(사범대 52입) 김명자(치대 57입) 하기환(공대 66입) 이경호(공대 67입) 심상은(상대 54입) 이견택(경영대 72입) 서경만(의대 51입) 윤경민(법대 55입) 박취서(약대 60입) 이승재(상대 67입) 한원민(의대 59입) 홍상애(의대 60입) 신한경(약대 56졸) 김정애(간호대 69입) 김원경(약대 59입) 장동석(문리대 66입) 이해란(미술대 72입) 장진성(약대 66입) 양은석(음대 70입) 김상영(공대 57입) 김선주(사범대 50입) 신우식(치대 ?) 신무수(치대 63입) 백만일(공대 64입) 강신호(사범대 49입) 김세담(법대 55입) 정동구(공대 57입) 고석규(치대 65입) 신우천(치대 64입) 양은혁(상대 56입) 정복근(\$100, 사범대 69입) 차민영(의대 78입) 김동호(치대 ?) 이강훈(치대 65입) 손학식(공대 61입) 김동산(법대 59입) 정경화(의대 70입) 박계영(공대 57입) 김은중(상대 59입) 이정재(수의대 45입) 김건진(문리대 62입) 오재인(치대 33입) 최호준(의대 77졸) 권길상(음대 46입) 이호준(공대 55입) 오길평(치대 61입) 이현세(법대 68입) 김선명(공대 75입) 김희재(사범대 66입) 최복영(사범대 56입) 이성호(의대 72졸) 김영(수의대 63입) 조성운(법대 46입) 홍진(간호대 55입) 김용채(문리대 61입) 신정자(사범대 63입) 박인창(농대 65입) 김희봉(공대 72졸) 노상규(공대 60입) 송두빈(사범대 57입) 김영기(의대 54입) 김근빈(법대 56입) 이나경(음대 66입) 남정우(치대 48졸) 이견섭(치대 54입) 우원섭(치대 65졸) 김일영(의대 65입) 한종철(치대 62입) 강동순(법대 59입) 한홍택(공대 60입) 신상화(공대 58입) 박인하(치대 56입) 박해옥(간호대 69입) 이근원(공대 67입) 임문빈(상대 58입) 조종웅(공대 45입) 엄세욱(간호대 69입) 권기상(경영대학원 72입) 육중훈(상대 67입) 강경수(법대 58입) 정원훈(상대 38입) 임택선(공대 52입) 김석구(공대 66입) 최숙규(간호대 65입) 문덕수(공대 73입) 최승륜(상대 53입) 서치원(공대 69입) 지인수(상대 59입) 이환진(상대 68입) 임택선(공대 52입)</p>
02		1 김항자(약대 61입)
03	샌프란시스코	3 박세록(의대 57입) 황동하(의대 65입) 정조웅(공대 60입)
04	뉴욕 (NY, NJ, PA, IL, CT)	148 <p>조시래(문리대 57졸) 고석원(문리대 50입) 최승웅(의대 61입) 이명해(의대 79졸) 김영덕(공대 53입) 이봉상(약대 59졸) 연봉원(문리대 61입) 최정애(간호대 66입) 김관준(약대 46입) 최재홍(의대 67졸) 박선섭(공대 61입) 김익성(상대 52년입) 윤봉균(사범대 54년입) 이영숙(간호대 56년입) 최형무(법대 69년입) 이유찬(의대 58년입) 윤여민(상대 60년입) 김규화(상대 63년입) 김훈일(공대 60년입) 윤갑석(공대 53년입) 권영대(공대 69입) 송관호(의대 58입) 배명애(간호대 45입) 윤현남(공대 63입) 노경희(간호대 66입) 문길용(음대 45입) 소무영(상대 65졸) 유재은(미대 71입) 반영철(\$100 약대 58졸) 차국만(상대 56입) 김현중(공대 63입) 조대영(공대 61입) 정진우(의대 72졸) 서병선(음대 65입) 송웅길(신문대학원 69입) 김원복(문리대 50졸) 손갑수(약대 59입) 임문수(공대 72졸) 백윤자(간호대 64입) 김양호(의대 57입) 이기준(\$100 문리대 66입) 선우지민(약대 54입) 조문혜(약대 59입) 김학자(간호대 63졸) 임석태(법대 48입) 이정애(미술대 57입) 이영연(상대 58입) 성백문(공대 61입) 선종철(의대 57입) 이대영(문리대 64입) 최석진(사범대 54입) 전재우(공대 75졸) 이종성(의대 58입) 정택수(문리대 45입) 김양수(미술대 69입) 김석식(의대 56입) 박상원(음대 69입) 강상진(의대 59졸) 남상래(간호대 65입) 백영복(간호대 69입) 이필영(사범대 54입) 장미숙(치대 85입) 황문하(수의과대 76입) 박건호(의대 57입) 한승원(미술대 60입) 전병삼(약대 54입) 김용재(의대 60입) 오정환(의대 55입) 이재원(법대 60입) 홍명희(간호대 61입) 이연찬(의대 52입) 허재순(사범대 54입) 김정빈(약대 54입) 조정현(보건대학원 64입) 현건섭(공대 55입) 이경태(공대 63입) 조경호(의대 66입) 리준국(공대 47입) 조성무(공대 56입) 김현희(간호대 63졸) 이승호(상대 63입) 이경림(상대 64입) 조충열(의대 60입) 한호(상대 66졸) 조숙자(간호대 59입) 남일우(법대 57입) 이명희(의대 60입) 최창식(의대 61입) 변광록(간호대 72입) 김광호(의대 72졸) 정일화(상대 55입) 김영용(치대 60졸) 조규웅(의대 66졸) 이정은(의대 58입) 박순영(법대 56입) 김영일(의대 69졸) 최수용(상대 55입) 오준영(상대 49입) 최한용(농대 58입) 이홍제(의대 68입) 전성진(사범대 58졸) 탁명양(약대 56졸) 서상철(의대 56졸) 최구진(약대 54입) 송재한(약대 61입) 윤정옥(약대 50입) 김우영(상대 60입) 송영순(사범대 60입) 이기영(농대 70입) 장동만(문리대 63졸) 나연수(사범대 53입) 유호근(법대 71입) 김충정(상대 64입) 김주은(공대 71입) 강재현(상대 70입) 김한중(의대 56입) 이재덕(법대 60입) 권우열(상대 73졸) 최한선(공대 56입) 이충호(의대 63입) 윤순철(사범대 44입) 김상각(상대 57입) 이정자(간호대 63졸) 강석권(법대 61입) 이견미(문리대 60입) 변찬의(상대 63입) 나찬국(의대 64졸) 김진승(문리대 53입) 성기호(약대 57입) 심정섭(의대 53입) 김기훈(상대 52입) 김희국(약대 54입) 최휘웅(문리대 64졸) 김병술(약대 52입) 조종수(공대 64입) 이국진(사대 51입) 전민욱(간호대 66입) 이정순(법대 53입) 최영태(문리대 67입) 노용면(의대 55졸) 한용호(법대 52졸) 이문휘(문리대 54입) 김세환(공대 65입) 박창익(농대 64입) 전희근(의대 54입) 이덕인(미술대 56입) 허선행(의대 58입) 김영두(농대 61입)</p>

재미서울대 同門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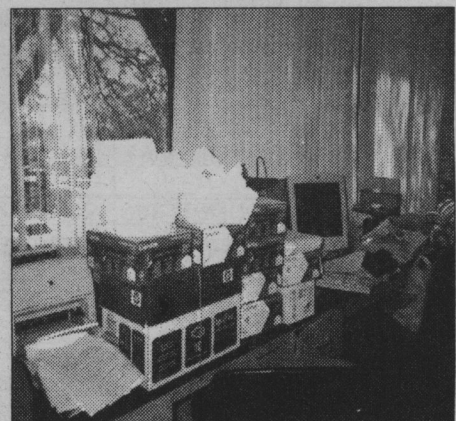
우리 재미 서울대학교 동창회는母校를 한국의 最高大學으로 부터 세계적인 先進 高等教育 기관으로 高擡하는 牽引車의 一翼을 담당하며, 美利堅에서 開拓者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同門들의 發展을 성원하고자하는 志氣입니다. 在美 서울大同窓會는, 한국의 最高 知性人인 우리 同門들의 精神과 友情을 글로써 나누고 同門과 그 가족들의 소식을 기록하여 고국과 재미 同門전례를 연결하는 使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보내주시는 同門들의 誠意으로써 우리 동창회보가 이번 102호를 발간하게 됨을 同門여러분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 회계년도(2002년 7월 1일~2003년 6월 30일)의 '在美 서울大同窓會報 구독료' \$60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격조있고 내용있는 회보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 구독료 납입 요청서는 주소 변동시 必달이 안되는 동창회보의 달리, 현재의 주소를 확인하는 可能性이 있으므로 이미 회보 구독료를 납부하셨거나 同窓 會비를 내신 同門들께서는 그 사유를 明示하여 반송하여 주시면 精確한 자료 運轉 유지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오신 同門 先輩들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동창회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5일 재미서울대학교 동창회장

동창회보 구독료 지부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명 단
05	시카고(IL, IN, WI, MO, MI, OH)	108 강태수(의대 65입) 최호승(작년 납부) 한재은(의대 59년입) 지명식(사범대 65년입) 구자원(법대 55년입) 이영모(의대 59년입) 이태석(의대 67년입) 이한중(의대 61년입) 장병호(의대 66년입) 한정희(간호대 67입) 이근정(공대 73입) 이규달(의대 68입) 이종일(의대 71입) 윤호윤(의대 63입) 이한홍(의대 68입) 임현재(의대 59입) 황치룡(문리대 65입) 박영준(문리대 67입) 최순분(간호대 56입) 구행서(공대 69입) 엄무광(문리대 61입) 오상현(의대 71입) 김정근(의대 61입) 한성수(의대 56입) 최인갑(작년도에 납부, 공대 61입) 김영호(의대 77입) 장재찬(의대 59입) 장세근(의대 57입) 박정일(의대 61입) 조중행(의대 63입) 박숙(의대 64입) 이설희(간호대 73입) 최순강(음대 65입) 이순자(간호대 66입) 전현(문리대 60입) 이정일(농대 57입) 이소정(음대 84입) 고성서(경성사범 38입) 배건재(공대 53입) 김일훈(의대 51입) 이재풍(의대 58입) 정길화(의대 65입) 신영규(의대 57입) 이상일(의대 54입) 김승희(법대 55입) 김택수(의대 57입) 곽노균(상대 55입) 송용덕(의대 57입) 김형수(농대 68입) 김유식(의대 64입) 이종기(농대 55입) 서영일(의대 68입) 강영국(수의대 67입) 김용성(상대 54입) 백영구(행정대학원 61입) 김현석(문리대 69입) 한의일(공대 62입) 김상기(문리대 61입) 배영섭(의대 54입) 임재일(농대 64입) 안정희(간호대 75입) 장시경(의대 58입) 진보린(의대 56입) 서상현(의대 64입) 김앤드류(상대 50입) 백준철(공대 62입) 김현옥(문리대 67입) 박준환(의대 57입) 박종수(수의대 58입) 이영웅(의대 62입) 장홍(문리대 61입) 고영철(의대 45입) 성흥환(\$160, 수의대 75입) 김윤화(음대 72입) 서승환(치대 61입) 손기용(의대 55입) 김한철(사범대 61입) 김세중(경영대 79입) 김용우(공대 58입) 박홍근(공대 64입) 허서룡(의대 60입) 정병욱(의대 59입) 김병운(문리대 65입) 이용락(공대 48입) 전영자(미대 58입) 하계현(공대 64입) 계명수(의대 69입) 박연희(간호대 65입) 김정주(문리대 64입) 임근식(문리대 56입) 이승자(사범대 60입) 김갑중(의대 57입) 정의철(의대 55입) 유준석(의대 53입) 조철(\$50 공대 49입) 정태(\$100 의대 57입) 이덕수(\$100 문리대 62입) 최승정(공대 60입) 이진주(문리대 55입) 송재현(의대 48입) 안창현(의대 55입) 유석훈(상대 61입) 서경원(공대 53입) 구경희(의대 59입) 안은식(문리대 55입) 유효명(\$100 의대 58입) 김정수(문리대 69년입) 홍혜례(사대 76년입) 도상탁(\$100, 의대 56년입) 최애옥(간호대 47입)
06	워싱턴 DC (MD, VA)	40 심준보(상대 55입) 이재승(의대 55년입) 김기봉(공대 63년입) 조남현(의대 64년입) 문홍숙(간호대 55년입) 변만식(사범대 49년입) 고무환(법대 57년입) 소속영(간호대 64년입) 이내원(사범대 58입) 석균범(문리대 61입) 김충규(의대 60입) 박성대(문리대 71입) 이정섭(의대 48입) 오광동(공대 52입) 신상균(의대 52입) 김용덕(의대 53입) 김창호(법대 56입) 김창웅(법대 60입) 곽홍(의대 45입) 이정희(의대 59입) 배병권(상대 55입) 김훈진(치대 ?) 홍인희(공대 58입) 엄승용(농대 57입) 박평일(농대 69입) 장병균(사회과학대 76입) 최동현(문리대 50입) 조병선(의대 71입) 곽태조(음대 64입) 오인환(문리대 63입) 안미애(가정대 81입) 박은희(미대 72입) 강경구(사범대 49입) 김정환(문리대 60입) 최경수(문리대 58입) 박홍우(문리대 65입) 박병영(의대 66입) 전정철(공대 55입) 윤개일(의대 60입) 주 일(의대 46입)
07	워싱턴주 (WA)	8 김영일(공대 53입) 이대원(사범대 58입) 유성렬(공대 72입) 전계상(공대 40입) 맹병규(문리대 70입) 최두환(공대 83입) 허유행(사범대 57입)
08	휴스턴 (HOUSTON)	15 신용선(공대 55입) 박승균(의대 59입) 탁순덕(사범대 57입) 조시호(문리대 59입) 유금영(법대 50입) 김성철(의대 61입) 최광욱(문리대 73입) 이은실(문리대 53입) 노인규(의대 57입) 이규진(약대 60입) 명인성(공대 50입) 박민자(사범대 58입) 김충열(의대 5입) 최관일(공대 54입) 강영빈(\$120 문리대 58입)
09	달라스 (DOLLAS)	2 김인호(공대 47입) 이병규(약대 61입)
10	미네소타 (MN)	6 왕규현(의대 56입) 박상빈(공대 71입) 문일지(공대 61입) 김권식(공대 61입) 남세현(공대 67입) 조형준(문리대 62입) 조덕성(공대 71입)
11	조지아 (GA)	6 장병건(보건대학원 64입) 이철남(의대 50입) 백성식(약대 58입) 이관호(공대 45입) 윤민자(음대 65입)
12	아리조나(AZ)	4 이은수(경영대학원 73입) 서기권(공대 70입) 박양세(약대 48입) 이용길(의대 62입)
13	유타 (UT)	2 이정민(문리대 48입) 김인기(문리대 58입)
14	하와이 (HI)	6 구해근(문리대 60입) 최치덕(법대 59입) 김용진(공대 50입) 신동인(공대 58입) 김동림(사범대 55입) 박성재(상대 49입)
15	오레곤 (OR)	7 한영준(사범대 ?) 김상만(음대 46입) 나제관(공대 72입) 장유자(공대 50입) 이태호(문리대 61입) 류광현(문리대 58입) 최원웅(약대 62입) 안동욱(자연대 72입)
16	기타 (서부)	7 이순환(의대 53입) 김갑견(의대 54입) 박용호(의대 59입) 홍지호(공대 53입)
17	기타 (중부)	
18	기타 (동부 & 캐나다)	11 김주용(의대 63입) 윤영욱(의대 57년입) 김정권(의대 55입) 김수산(의대 52입) 김연국(수의대 74입) 오인석(법대 58입) 김기욱(공대 79입) 조무정(약대 62입) 조동림(의대 56입) 김미현(문리대 52입) 손정호(의대 53입)
19	필라델피아(PA)	24 송영두(\$100, 의대 56입) 오진석(치대 56입) 이규호(공대 56입) 이윤성(수의대 81입) 김희섭(의대 55입) 김영우(공대 55년입) 심기련(상대 57년입) 이재희(상대 88입) 이성숙(가정대 74입) 조영호(음대 60입) 이삼민(문리대 58입) 윤정나(음대 57입) 김세경(미대 62입) 김주진(법대 54입) 안지영(문리대 71입) 문대욱(의대 73입) 전방남(상대 73입) 김종규(치대 69입) 진병학(의대 57입) 서진석(의대 62입) 유창남(의대 58입) 전무식(\$50, 수의대 61입) 염극용(의대 60입) 김형달(의대 70입)
20	뉴잉글랜드 (MA, RI)	20 김문소(농대 61년입) 두선자(간호대 75년입) 한병의(문리대 60입) 인준식(사대 55입) 김종성(경영대 76입) 배성호(의대 65입) 박중건(의대 62입) 채도경(의대 59입) 권이덕(공대 68입) 이희규(공대 69입) 윤상래(수의대 62입) 김호영(약대 52입) 문형성(의대 65입) 김영익(사대 59입) 이재신(공대 57입) 김제호(상대 56입) 김유경(음대 ?) 김병국(공대 71입) 노인규(의대 52입) 김장태(문리대 53입)
21	허트랜드	8 박세화(의대 76년입) 지일성(의대 61입) 신두식(의대 58입) 김호원(치대 52입) 임하진(의대 79입) 이상문(상대 57입) 구명순(간호대 66입) 오태요(의대 56입)
22	펜실베이니아	1 이수경(자연대 81입)
23	케롤라이나	3 박태진(의대 62입) 한광수(의대 57입) 정일환(의대 63입)
특별기부금		
계		604 36,730



재미서울대 동창회보의 발행제원을 마련하고 동문들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보내는 '구독료 청구서'. 5000여명의 동문들의 주소를 정비하여 동문들의 성금을 모금하기 위한 '청구서'를 전부 발송하기 위해서는 2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동문들께서 주소 변경시에는 동창회 사무실로 새주소를 알려주시면 행정발령되는 동창회보로부터 생기는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미주관악후원회 이사회비 납부 현황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1일 ~ 2003년 6월 30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납부인원	합 계
01	남가주	서동영(\$200, 사범대 60입) 제영혜(\$200, 가정대 71입) 정원훈(250 상대38입)	3	650
02		김향자(\$300, 약대 61입)	1	300
03	샌프란시스코	정유석(200 의대 58입)	1	200
04	뉴욕(NY, NJ, PA 일부 CT)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전현일(\$200, 농대 62입) 강영국(\$300, 수의대 67입) 송순영(1000 문리대 52입) 구경희(500 의대 59입) 시카고 지역동창회(4000) 한재은(1500 의대 59입) 이용락(5000 / 종신이사비 3000 일반이사비 2000 공대 53졸) 엄무광(500 문리대 61입)	9	13,000
06	워싱턴 DC (MD, VA)			
07	워싱턴주	허윤희(250 사범대 57입)	1	250
08	휴스턴			
09	달라스			
10	미네소타			
11	조지아			
12	아리조나			
13	유타			
14	하와이			
15	오레곤	김상순(200 상대 67입)	1	200
16	기타1(서부)			
17	기타2(중부)			
18	기타3(동부 & 캐나다)			
19	필라델피아	정정수(200 의대 56입)	1	200
20	뉴잉글랜드	윤상래(\$200, 수의대 62입)	1	200
21	하트랜드			
22	중부펜실바니아			
	특별후원금			
일반 이사 합계			17	\$12,000
종신 이사 합계			1	\$3,000
총 계			18 명	\$15,0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관악 후원금 납입현황

(2002년 7월 01일~9월 28일)

종신이사

강영빈, 박경민, 박병기
방은호, 서영석, 심상은
오인석, 오흥조, 윤선홍
이교락, 이기영, 이병준
이세열, 이진구, 정 태
이청광, 전희택, 윤정옥
한흥택, 조시호, 이용락

300달러이상

김향자(\$300)
강영국(\$300)
송순영(\$1,000)
구경희(\$500)
시카고지역동창회(\$4000)
한재은(\$1,500)
이용락(\$5,000)
엄무광(\$500)

300달러이하

서동영(\$200)
전현일(\$200)
윤상래(\$200)
제영혜(\$200)
허윤희(\$250)
정원훈(\$250)
김상순(\$200)
정유석(\$200)
정정수(\$200)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백만달러 기금
납입 현황**

(2002년 1월 19일 ~ 6월 30일)

Anchor-Donor (2만달러 이상:약정)

방은호 (워싱턴 DC · 약 42입)

윤정옥 (뉴욕 · 약 50입)

김영덕 (뉴욕 · 공 53입)

이병준 (남가주 · 상 55입)

김병수 (뉴욕 · 상 55입)

최수용 (뉴욕 · 상 55입)

유창남 (뉴욕 · 의 58입)

오인석 (뉴욕 · 법 58입)

이전구 (뉴욕 · 농 60입)

임낙균 (남가주 · 약 64입)

3,000달러 이상

1,000달러 이상

이용락 (공대 53졸) \$1000

300달러 이상

조시호(문리대 59입) \$500

정정수(의대 56입) \$500

워싱턴DC 지역동창회 \$510

**(조수미 CD 34장 판매대금/
CD 판매 총액 300장 총 \$4500)**

300달러 이하

이경립(상대 64입) \$200

이소정(음대 84입) \$200

변만식(사범대 49입) \$100

**母校와 後進을 위한 1백만불 기금 지부별 입금 현황
基金을 출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0년 7월 1일 ~ 2002년 9월 28일

지역 번호	지부명	후원이사(후원금)	남부인원	합계
01	남가주(CA)	한홍택(\$1,000)황석우(100) 정인환(200)권길상(100)한상철(333,400) 이병준(20,000) 심상은(1,000) 조용명(500) 임낙균(500) 이명선(300) 박취서(200) 이종열(200) 이강훈(150) 임택선(100) 김옥권(100) 권기상(100) 이정재(100) 신동국(100) 김일영(100) 유병원(100) 도영미(100) 황석우(100)	22	358,550
		이양숙(200) 박우선(200)	2	400
03	샌프란시스코	김양주(300)	1	300
04	뉴욕 (NY, NJ, PA 일부, CT)	이경립(\$200) 김기훈(\$250)최수용(5,000)김석식(100)진성호(19,400) 추재욱(10,000) 오인석(20,000) 김병수(7,000) 최수용(5,000) 김영덕(5,000) 윤정옥(5,000) 이전구(4,000) 황관일(1,500) 김진승(1,000) 허리훈(1,000) 허선행(500) 이준행(500) 강영선(500) 김용재(500) 이기범(500) 이재진(500) 변찬의(500) 김상각(300) 홍선경(300) 이경립(300) 방준재(300) 주의돈(300) 남상래(300) 조성준(300) 김기훈(250) 박승서(250) 이기철(200) 김연서(200) 동형근(200) 리주국(150) 황진환(100) 주대영(100) 허병권(100) 신기권(100) 유진형(50)	40	91,800
05	시카고 (IL, IN, WI, MO, MI, OH)	이용락(1000) 이소정(200)소진분(100) 임춘수(200) 이용락(1,000) 조영재(300) 정태, 최호승(500) 배영섭(200) 전영자(200)	17	5,900
06	워싱턴 DC(MD, VA)	임춘수(200) 강영국(200) 박중수(200) 구자원(200) 이기훈(200) 김윤태(100) 문병훈(100) 변만식(100) 지역동창회(510, 조수미CD 34장 판매대금) 방은호(5,000)	11	16,200
		지역동창회(3,990)조수미 CD 266장 판매대금) 이규섭(150) 방은호(5,000) 박유수(1,000) 박용갑(100) 오인환(200) 김철호(50) 장병권(50) 이선명(50)		
07	워싱턴주(WA)			
08	휴스턴(HOUSTON, TX)	조시호(\$500) 강영빈(500) 박중수(300) 유금용(100) 김충열(200) 박민자(100)	6	1,700
09	달라스(DALLAS, TX)	김인호(200)	1	200
10	미네소타(MN)	송창원(100) 변우진(100) 김태환(300) 왕규현(100) 변우진(100) 남세현(100)	6	800
11	조지아(GA)	장병권(250) 장병권(100)	2	350
12	아리조나(AZ)	박양세(100) 박양세(200)	1	300
13	유타(UT)			
14	하와이(HI)			
15	오레곤(OR)	이태호(100) 익명(300)	2	400
16	기타(서부)			
17	기타(중부)	이회백(1,000)	1	1,000
18	기타(동부&캐나다)	한광수(333.33)	1	333.33
19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PA)	정정수(500) 정정수(500) 서중민(1,000) 이정필(800) 정정수(500) 한혜원(300) 현재원(300) 정홍택(300) 강형진(200) 윤경숙(100) 정구영(100)	11	4,600
20	뉴잉글랜드(MA)	도운회(200) 이재신(3,000) 이금하(200) 정태진(100) 김제호(100)	5	3,600
21	하트랜드	오태요(500) 김명자(500) 이상문(250) 배한홍(100)	4	1,350
22	펜실바니아			
	특별 후원금	간호대동창회(13,560) 모교동창회/모교순방단(3,000) 임광수 서울대총동창회부회장(5,000) 한규남(유화1점: 현재 경매 중)	4	21,560
	총 계	당회계년도 모금액 총액 \$24,190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분 \$ 1,000 방은호 동문 기여금 \$ 5,000은 기금위원회 직접 접수	138	509,594.33

약정하신 동문들

(작년도 집계표에서 강영빈씨를 중부 기타지역에서 텍사스주로 이동하였음)

	후원이사<후원금>	남부인원	합계
현금 약정	방은호(워싱턴 DC/\$20,000약정 \$10,000납입) 서동영(남가주/\$100,000:생명보험 중 일부) 윤정옥(뉴욕/\$20,000중 \$5,000납입) 임낙균(남가주/\$20,000약정) 김영덕(뉴욕/\$20,000중 \$5,000납입) 김병수(뉴욕/\$20,000중 \$7,000납입) 최수용(뉴욕/\$20,000중 \$10,000납입) 이전구(뉴욕/\$20,000중 \$4,000납입) 유창남(20,000약정) 강영빈(기타 중부 /\$500중 \$500 납입) 강경식(뉴잉글랜드/생명보험 중 일부)	11명 (7명 납입)	\$260,500 (\$41,500 납입)
기타	방은호(유증) 김태환(유증) 정태	3명	
총 합 계		145 명	728,593.33

조수미 CD 주문서

조수미 CD 'Love from Washington' 주문서 (8-25-01 Washington DC 공연 실황 녹음)

구입자 성명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구입 수량 및 금액 : CD _____ 개 총액 \$ _____ (우송료 포함)
 수표는 Payable to SNUAAUSA *가격 : 1장 당 \$15.00 (우송료 별도)
 우송료는 1장 당 \$3.00, 복수 구입시 추가 1장 당 \$1.00 추가

*주문서를 기입하여 CD대금과 우송료를 합계하여 재미동창회 사무국으로 보내 주십시오.

SNUAAUSA
 790 BUSSE ROAD,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전화: 847-981-1464, Fax: 847-981-1465

*판매대금 전액은 재미 동창회를 위한 관약후원금과母校와後進을 위한 基金에 적립됩니다.

절취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한 동문독자 여론조사 설문서

이번 8월부터 이곳 시카고에서 발간할, 재미 동창회보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설문으로 독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잠깐 시간을 내셔서 설문에 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꼭 회송하여 주십시오

필) 동창회보가 각 분야에 종사하시는 동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쓰는 기획기사를 연재한다면, 어떤 분야의 주제가 관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야를 쓰셔도 좋고 가능한 자세하게 기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I) 지금까지 동창회보를 우편으로 받으신 후 (택일)

- 1) 그냥 받아두고 잘 읽지 않는다()
- 2) 눈으로 일별하고 밀쳐둔다()
- 3) 흥미있는 기사가 있으면 즉시 읽어본다()
- 4) 시간상 당장 읽지 않더라도 보관했다가 꼭 다시 찾아 읽는다()
- 5) 시간 나는대로 게재내용을 거의 다 읽는다.()

1)

2)

II) 동창회보를 읽으시는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분 ()시간 정도

VII) 현재 기획중인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분석기사를 동창회보에 게재하는 데에 찬성하시면 O, 반대하시면 X표를 해 주십시오

III) 어떤 내용의 기사를 유심히 읽어보십니까 (여러 항목에 표하셔도 됩니다)

- 1) 동창회 사업계획 보도기사나 공지사항()
- 2) 본국 동창들의 동정, 소식()
- 3) 미국 내 동창들의 개인/지부 활동소식(소속지역)()
- 4) 타지역 동창회 소식()
- 5) 동문들이 투고한 기사 및 column()

- 1) 남북한 관계와 통일에 관한 국제 정세()
- 2) 한국교육문제에 장래와 서울대학교의 역할()
- 3) 기타 자연과학, 기술분야에 대한 읽고 싶으신 주제에 대한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VIII)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 집필의뢰를 하면 응하시겠습니까?

- 1) 예()
- 2) 아니오() →어째서 그러십니까? ()

IV) 일반 신문잡지에서 어떤 분야들에 관한 기사를 관심있게 읽으십니까?

IX) 미주동창회에서 동창회를 빛내는 전문적 업적을 성취하신 동문을 초청하여 지역을 순회하는 강연회를 개최하는(Distinguished Alumni Lecturership)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V) 지금까지 받으신 동창회보의 내용 구성에 대하여 (택일)

- 1) 만족한다()
- 2) 좀 부실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 3)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 4) 내용이 실망적이어서 읽을 흥미가 없었다()

- 1) 예()
- 2) 아니오()

X)내용있고 수준있는 동창회보를 만들기 위하여 동문 개개인들이 크고 작은 소식이나 의견을 수시로 보내주시면 알찬 동창회보 발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기타 충고의 말씀이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작성 동문>

성명 :

주소 :

전화 :

e-mail :

Fax :

기타 의견란

동문이 운영하는 우편주문 가능한 Gift Shop

지명식 동문(사대 65입)부부는 시카고 근교 Northbrook의 White Plains Shopping Center내에서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취급 품목으로는 한국인 피부에 적합한 Shiseido, 참존, 아모레 화장품과 지성피부, 여드름 전용화장품 Dr. Eslee를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 각종 선물용품, 가정용품, 부엌용품, 속옷류, 전기제품, 악세사리, 영양제, 비타민 등을 구비하고 있고, 전자파를 방지하여 편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Sheild Life 제품도 갖추고 있다. 귀국 선물로 인기있는 로얄제리, 커피 및 꿀가루등도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구입할 수 있다. 전화주문이나 우편주문은 UPS로 즉시 발송하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10:00AM-8:00PM, 일요일 1:30PM-5:00PM 이다.

많은 동문들의 이용을 기다리겠습니다.

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 동문 (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

재미 총동창회 지부회장 / 동창회보 지국장 명단

지 부	회 장	총무 / 동창회보 지국장
뉴욕	김종율 B:914-714-0587 F:914-686-0186	한창섭 B:212-594-0493 H:201-848-8665
남가주	임낙균 B:213-999-1600 H:310-530-4353	백옥자 B:213-999-5911 F:213-365-1686
샌프란시스코	정조웅 B:408-496-6838 H:408-972-4026	임승배 B:415-777-1133 H:510-537-5369
시카고	한재은 B:841-741-7990 H:847-428-4929	이승자 B:773-553-1930 H:847-564-5948
뉴잉글랜드	이재신 B:508-577-9424 H:508-923-0031	변종원 H:508-366-2743 B:508-389-1760<ext.3038>
조지아	김재철 B:770-944-2775 H:770-579-5615	문종현 B:770-409-8844 H:770-449-0301
미네소타	김태환 B:612-863-4060	남세현 B:651-733-7287 H:651-768-8939
워싱턴 DC	이영득 B:703-578-6806 H:703-748-0269	김 국 B:703-304-2129 H:703-830-7979
워싱턴주	허윤형 B:360-683-4195 H:360-683-4197	이혜숙 B:253-927-8668 F:253-627-2542
휴스턴	김영창 B:713-431-6071 H:713-859-8182	변중무 B:713-743-9301 H:713-783-3178
달라스	이병규 B:817-251-8789 H:972-304-0748	강성호 B:972-570-0234 H:214-496-9393
아리조나	윤성수 H:480-283-9806 yunss@cox.net	최윤근 B:480-967-9461 H:602-502-9988
하와이	정재훈 B:808-951-7242 H:808-926-6089	정광수 B:808-956-7653 H:808-395-1678
유타	한성양 B:801-272-7444 H:801-485-2065	황선종 B:801-582-1695 H:801-582-1695
오레곤	리제관 B:503-696-3422 H:503-645-5550	정성국 B:503-226-6467 H:503-524-7741
필라델피아	김용식 Fax:610-664-3447 C:215-771-2957	주기목 B:215-745-9030 F:215-745-3055
하트랜드	이상문 B:402-472-3915 H:402-483-0221	장명우 F:402-472-5290
중부펜실베이니아	송재훈 B:814-865-6998 H:814-466-0542	이 옥 B:814-862-0494
캐롤라이나	김기현 B:919-560-6451 H:919-560-5012	Fax : 919-560-5012
캐나다/온타리오	유희자 B:416-960-0074	노정희 B:905-886-4152
캐나다/밴쿠버	황태구 B:604-433-8539	박병우 B:604-570-0803 H:604-420-7034
캐나다/에드먼튼	정기진 B:780-437-7669	

동문 사업체 안내

<p>강남</p> <p>Pusan Pipe America 이병준(상 55입) (562)692-0600 Sant Fe Springs, CA</p> <p>캘리포니아</p> <p>New York Golf Center 이진구 (농 60입) (212)564-2255 New York, NY</p> <p>공인회계사</p> <p>Young Sik Oh CPA 오영식 (법 72입) (201)569-1177 Englewood Cliff, NJ</p> <p>이범선 (상 48입) 이경림 (상 64입) (212)768-9144 New York, NY</p> <p>Young Tail Choi EA 최영태 (문 67입) (212)695-0206 New York, NY</p> <p>Delloitte & Touche LLP 김낙국 (상 67입) (213)688-5585 Los Angeles, CA</p> <p>Wesley Y Chung 정일희 (상 55입) (212)736-6590 New York, NY</p> <p>이규선 (상 68입) CPA, CFA (703)642-2900 Annandale, VA</p> <p>뉴욕</p> <p>IBECONS INT'L 김재철 (공대 58입) (212)460-2815 New York, NY</p> <p>전라교회 김태철목사 (공대 76입) (718)225-1000 New Hyde Park, NY (L.I.E. Exit 33 South)</p>	<p>국제금융</p> <p>Sit/Kim International Investment Associate 김병수 (상 55입) (212)750-7215 New York, NY</p> <p>PTC International 이태영 (법대 60입) (410)962-8409 Baltimore, MD</p> <p>광고</p> <p>Alco Lock & Safe 정인식 (상 58입) (212)867-3377 New York, NY</p> <p>금상/상지</p> <p>무역</p> <p>Nina America Inc. 강석권 (법 61입) (212)683-6462 New York, NY</p> <p>EAC Trading Inc. 윤정옥 (약 50입) (516)466-5678 Great Neck, NY</p> <p>Oregon Hide Co. 조형원 (수 55입) (503)620-1001 Lake Oswego, OR</p> <p>G.A. Marketing Company 지인수 (상 59입) (310)216-7929 Los Angeles, CA</p> <p>미주</p> <p>최형무 변호사 최형무 (법대 69입) (718)463-3500 Flushing, NY</p> <p>한국서적 전문 서물서점 권혁진 (문 60입) 장입 (773)463 7756</p>	<p>김용학 변호사 김용학 (법대 69입) (212)619-1770 New York, NY</p> <p>병원/내과</p> <p>Joon J Bang, MD 방준재 (의 63입) (718)768-1264 Brooklyn, NY</p> <p>병원 수의(동물병원)</p> <p>Charles H. Sung, DVM DVM 성홍환 (수의 75입) (330)534-8383 Hubbard, OH</p> <p>병원/신경과</p> <p>Rim and Sul, MDPC 임훈수 (의 57입) (313)882-2922 Grosse Pointe,</p> <p>병원/신경외과</p> <p>Kenneth Song 송근호 (의 58입) (212)423-4817 New York, NY</p> <p>병원/외과/내과</p> <p>Chang Ho Suk 석창호 (의 66입) (718)461-6212 Flushing, NY</p> <p>병원/지리</p> <p>Sung Bo Hong, DMD 홍성보 (치 63입) (201)871-0007 Tenafly, NJ</p> <p>부동산</p> <p>Gold Plus 서재숙 (공 65입) (212)354-8988 New York, NY</p> <p>안과</p> <p>KOI 종합병원 김성희 (상 67입) (213)387-5252 Los Angeles, CA</p>	<p>한미종합보험 박달순 (상 59입) (718)458-3551 Jackson Hts, NY</p> <p>한영종합보험 한영우 (공 59입) (718)463-9100 Flushing, NY</p> <p>부동산</p> <p>Cosmo Realty 이재택 (법 60입) (201)944-4949 Palisades Park, NJ</p> <p>C-21 Infinity 이재원 (법 60입) (201)944-5353 Palisades Park, NJ</p> <p>REMAX (희망부동산) 최 호 (문 61입) (201)461-3525 Palisades Park, NJ</p> <p>Gateway Title Co. 박인수 (농 64입) (213)388-3333 Los Angeles, CA</p> <p>ERA Premier Properties 변만식 (사대 49입) (703)750-0000 Annandale, VA</p> <p>로얄 부동산 엄무광 (문 65입) (800)474-0200 SKOKIE, IL</p> <p>Pacific Hotel Motel Specialists, Inc. (HMBA American Hotel Broker) 김동호 (농대 58입) (206)972-3675 Everett, WA</p> <p>건축</p> <p>Booming World Design & Engineering 김상익 (공 49입) (310)539-7760 Court Lomita, CA</p> <p>Queens Plumbing Supply 김승호 (공대 71입) (718)382-0111 L.I.C. NY</p>	<p>업적</p> <p>Care Tex Industries, Inc. 강봉창 (약 50입) (562)602-6567 South Gate, CA</p> <p>운수/통관</p> <p>S. Y. Shipping 김종표 (법대 58입) (592)467-5455 Artesia, CA</p> <p>상지</p> <p>Equitable Financia Service 원영배 (미 74입) (213)368-5705 Los Angeles, CA</p> <p>Hanin Federal Credit Union 이영일 (문리 57입) (213)368-9000 Los Angeles, CA</p> <p>의료기관</p> <p>MASH 심상은 (상 54입) (213)487-5695 Los Angeles, CA</p> <p>의료</p> <p>Jeffrey Allen Corp. 이기영 (농 70입) (201)863-5160 Secacus, NJ</p> <p>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 (상 61입) (201)440-8500 Moonachie, NJ</p> <p>인터넷 사업</p> <p>KS E biz 장세완 (농 69입) (201)722-4796 River Vale, NJ</p> <p>다문화</p> <p>MODERN GIFTS & DUNDEE SHISEIDO 지명식(사대 65년 입) Tel: 847-559-1005 Northbrook, IL UPS, Mail Order 가능</p>	<p>인터넷 사업</p> <p>Aladdin USA 이형렬 (문 79입) (323)692-9888 LA, CA</p> <p>지리지/부품</p> <p>Knox-Seeman Whse, Inc. 서동영 (사대 60입) (310)327-1006 Gardena, CA</p> <p>잡지</p> <p>Amkor Anam 정홍택 (상 61입) (214)580-1879 Philadelphia, PA</p> <p>주류상</p> <p>Smithtown Wines & Spirits 이지현 (문리 73입) (613)265-1121 Smithtown, NY</p> <p>학원</p> <p>Kumon Educational Institute 김형덕 (상 57입) (718)358-0538 Flushing, NY</p> <p>의료원</p> <p>Joong-Ang Medical Center 이수호 (보건대학원 71입) (718)353-6207 Flushing, NY</p> <p>브롱스 약국/시호 한의원 박경룡 (약대 63입) (718)733-1399 Bronx, NY</p> <p>부동산</p> <p>Revicci(레비치) 신정택 (약대 52입·화장품, 약품개발) (973)994-1421 Short Hill, NJ</p> <p>학원</p> <p>Flowers On Lexington 박상원 (공 65입) (800)2525-way New York, NY</p> <p>Seward Florist 김수향 (간호 72입) (626)287-6161 San Gabriel, CA</p>
---	---	---	--	--	---

금년에도 재미총동창회와 동창회보 100호 간행을 후원하여 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동창회는 전 동문의 네트워크를 위해 Data Base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 응답하지 않으신 동문은 이 설문지를 기입한 후 오려서 동창회 사무실로 우송바랍니다.

재미 동문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위한 설문 및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공개 여부 설문 2002. 7. 1 ~ 2003. 6. 30 회보 구독료 납입서

재미 서울대 전 동문들의 직업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교 지원사업 및 동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간단히 답하시어 동문의 반송봉투를 이용 설문지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창회보를 받지 않는 주변 동문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본 설문지 여백에 적어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명 : 한글 _____ 영문 _____
2. 모교 입학년도 _____ 졸업년도 _____
3. 졸업전공 : _____ 대학 _____ 학과 _____
4. E-mail 주소 : _____
5. 새 자택 주소 : _____
6. 새 자택 전화번호 _____ Fax _____
7. 직장주소 : _____
8. 직장 : Tel. _____ Fax _____
9. 웹사이트 주소록 일반에 공개 무방 (), 가급적 동문들에게만 공개 원함 ().
10. 동문 자료 은행구축과 모교와 조국을 위한 지적 봉사단의 자료를 위하여 귀 동문의 자세한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동창회보 일년 구독료 \$ 60은 동창회보 발간 사업 뿐 아니라 모교지원을 위한 업무 및 재미 동문 지원사업을 위하여 긴요한 재원입니다. 재미 총동창회 집행부는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재정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 유지하겠습니다.

본인은 2002. 7. 1 ~ 2003. 6. 30 구독료 \$60을 함께 우송합니다.

Yes. ()

No. ()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수표 보내실 곳 : SNUAUSA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12. 소속 지역동창회 이름 : () 지역동창회

1 재미서울대 동창회보 구독료 \$60(2002.7. 1. ~ 2003. 6. 30 회계년도)을 납부합니다.

2 **미주 관악후원회 4차년도 후원 이사회비 出捐書**

본인은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의 활동재원 확보와 **미주동창회보의 지속적인 월간발행을 후원**하기 위하여 결성된 「미주관악후원회」 회원임을 명예스럽게 생각하며, 제 3차년도 관악후원회비를 아래와 같이 보냅니다.

●매년 불입 후원이사
 년 \$ 200이상 (금액명기 \$)
 년 \$ 500이상 (금액명기 \$)
 년 \$ 1,000이상 (금액명기 \$)

●일시불 종신후원이사
 \$ 3,000이상 (금액명기 \$)

▷이 후원금은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후원금에 대한 세금보고용 영수증은 별도로 송부하겠습니다.
 : \$ 250 이상만)

3 **母校와 後進을 위한 기금 出捐書**

본인은 영원한 서울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모교와 후진을 돕기 위한 1백만달러 기금**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다음과 같이 기금을 낼 것을 동의합니다.

●총액(금액명기 \$)
 ①일시불 ()
 ②3년 분할 납입 ()
 (\$)씩 ()회 분납

▷이 기금은 면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미 총동창회는 재산을 이 1백만달러 기금에 남겨주실 유언 (A Will Program)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Check Payable to :

SNUAUSA (재미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Check 보내실 곳 :

SNUAA in the USA
790 Busse Road, Suite #201
Elk Grove Village, IL 60007
Tel. (847)981-1464 Fax. (847)981-1465
e-mail : snuaausa@snuaa.org